



12

1977

문학예술출판사

# 조선문학

조선작가동맹 중앙위원회 기관지

1977. 12호

(루게 362)



## ◆◆◆◆◆◆◆◆◆◆ 차 례 ◆◆◆◆◆◆◆◆◆◆

사랑의 행군길 .....	2
천만년 대를 이어 길이 모시리 .....	12
해와 달 다하도록 수령님을 모셔가며 .....	18
우리의 오늘과 먼 앞날에 .....	20
위대한 사랑의 테제 .....	21
백두의 눈보라속에 .....	22
김정숙어머님의 동상앞에서 .....	23
우리는 자란다 .....	25
산간마을의 영웅작업반장 .....	37
승리한 가을이 설레인다 .....	41
분배날 밤 .....	41
분조장이 웃는다 .....	42
산촌의 풍년맞이 .....	43
마지막 고개 .....	44
창작적개성과 묘사수법들의 효과적리용 .....	49
생활의 요구와 단편소설 .....	52
서정시에서의 생활반영과 서정성문제 .....	55
혁명소설에 대한 반향 .....	58
혁명의 길, 충성의 한길을 드림없이 걸겠습니다 .....	58
《락동강》에 비친 위대한 수령님께 충직한 인민군전사들의 형상 .....	60
새세대의 매혹적인 성격형상 .....	63
인민군전사-영웅들의 불보다 뜨거운 충성심을 감명깊게 배웠습니다 .....	64

## 사랑의 행군길

진재환

련대는 산언덕을 내려 흰하게 열려진 골짜기에 들어섰다. 시루속처럼 숨막히는 수림속을 헤쳐 또 하나의 험한 산을 넘어선 대원들은 짜거운 땀이 스배인 눈을 크게 뜨고 앞길을 바라보았다. 더위와 행군에 지친 그들은 골바닥에 내려서면서 시원한 한줄기의 강물이 흐를것을 바랐으며 서늘한 바람이 불것을 기대했다.

그러나 골바닥의 더위는 더 심했다. 닳아진 신바닥은 단 돌에 녹아붙고 메여진 운두구멍으로 박여든 돌부스레기는 총알처럼 발잔등을 따갑혔다. 땀별은 정수리를 지지고 열풍은 숨통을 죄었다. 덩치 큰 산들도 더위에 까무라친듯 기척없이 꾸역꾸역 흰구름을 뿜어올리고있었다.

행군은 간고했다. 조선인민혁명군대원들은 불사신처럼 대형과 간격을 보존하면서 불도가니속같은 산골짜기를 건너지나고있었다.

경애하는 사령관 **김일성**장군님께서서는 선두중대의 마지막 위치에서 행군하시고계시었다. 어버이장군님의 두리에는 이번 초여름에 유격근거지를 떠날 때 입대한 열대여섯살전후의 어린 대원들이 앞서거니뒤서거니 따라걸고있었다. 그들이 얼마만큼 잘 걸어내는가 하는데 따라 이번 행군의 속도가 결정된다.

어린대원들을 직접거느리신 어버이장군님께서서는 번갈아가며 그들의 총과 배낭을 대신 메주시었다. 그이께서는 그들이 피곤을 느낄새없이 재미있는 이야기도 해주시며 앞장선 중대와 뒤따르는 중대들을 살펴보시었다.

어린 대원들은 소곤소곤 이야기를 나누며 걷는 것이었다.

《야, 숲속보다 더위가 더 심한데...》

누구인가가 이렇게 이야기를 꺼낸다. 산언덕을 내려설 때는 산을 오르기가 더 힘든가, 내리기가 더 힘든가 하고 끝없이 속삭이던 그들이었다. 그들은

다시금 겨울추위가 더 बे찬가, 여름의 더위가 더 बे찬가 하며 속삭이고있었다. 그렇지만 눈이 그뻑 쌓였으면 좋겠다는 말에는 모두가 동감이였다.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신 어버이장군님께서서는 단인두처럼 뜨거운 총신을 옮겨메시며 생각하시었다. (모두들 무더위와 갈증에 태를 치는군!)

어버이장군님께서서는 대렬앞쪽을 살펴보시었다. (눈은커녕 샘구멍이라도 하나 나졌으면.)

대렬은 기척없이 걸어가고있었다. 무더위와 갈증도 조선인민혁명군의 의지와 패기의 상징인 대오의 줄기찬 전진에 영향을 주지 못했다.

대오가 골바닥가운데에 들어섰을 때 경애하는 사령관동지께서는 묵묵히 걸어가던 대렬에 약간한 파문이 생긴것을 감촉하시었다. 어버이장군님께서서는 선두중대 행렬에서 대원들의 감정에 영향을 준 어떤 정황이 생겼으며 그때문에 사람들이 웅성거리고 대형의 균형과 간격이 흐트러졌으며 정상적이고 고르로운 행군속도가 깨어졌음을 감촉하시었다. 그러나 그러한 기미는 대원들의 심정에 강하게 영향주고있는것은 사실이지만 적과 부딪쳤을 때처럼 긴장되고 엄숙한것은 아니였다.

어버이장군님께서서는 손채양을 지으시고 앞쪽을 바라보시었다.

앞에서 걸던 련대장이 옷단추를 채우며 부지런히 돌파서오고있었다. 남들은 더위에 노그라져 땀투성이가 된다지만 이 흰결찬 련대장은 힘이 넘치여 땀을 뿜는다는 사람이였다. 그는 무슨 일이 생겼는가고 묻는듯하는 수많은 대원들의 눈길을 외면하면서 바쁘게 걸어오고있었다. 련대장이 그쯤하면 간단한 문제가 아니였다.

《사령관동지!》

련대장은 어버이장군님앞에 서서 보고할 자세였다. 어버이장군님께서서는 대오의 행군을 계속시키시기 위하여 옆으로 서너걸음 물러서시었다.

《행군을 잠시 중지하고 간단한 회의를 열었으면 좋겠습니다.》

련대장의 얼굴에는 갈피 없는 불안의 기색이 어려있었다. 그는 자신도 모르게 덤벼치고있었다.

《련대장동무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그렇게 하시오. 그런데 회의는 왜 하려고 합니까?》

아버이장군님께서서는 손수건으로 눈언저리를 째시며 물으시었다. 련대장은 실수한듯 미소를 지었으나 불안한 기색은 지우지 못했다.

《사령관동지, 방금 대오앞에 원두막이 나졌습시다. 참외밭이었습시다.》

아버이장군님께서서는 련대장에게 되물으시었다.

《참외밭이 있단말입니까?》

련대장은 장군님께 보고를 계속 올리였다.

《그렇습시다. 이런 깊은 산속에 참외밭이 있을줄 생각인들 했겠습니까. 동무들이 참외밭이 있는것을 보자 너무나 신기하여 걸음을 멈추고 이야기판을 늘어놓았습니다. 이 소식이 삽시에 퍼지자 온 중대가 웅성거립니다.》

경애하는 사령관동지께서는 잠시 생각해보시었다. 이곳에서 서남쪽으로 한 60리 더 가면 500호쯤 되는 큰 《집단부락》이 있다. 그러니 원두막이 나질법하기도 했다.

아버이장군님께서서는 참외밭이 있다는 말을 들으시자 빙그레 웃으시었다.

《우리 동무들이 신기해할수 있습니다. 먹고싶다는 동무들은 없었습니까?》

련대장은 장군님께 말씀올리였다.

《더위때문에 모두 갈증에 신고하고있습니다. 지금 참외 한개만 먹으면 숨이 열릴것 같습니다. 제 생각도 이러하니까 어린 대원들의 마음은 어떠하겠습니까? 특히 우리 인민혁명군의 규률에 익숙되지 않은 신입대원들이 적지 않은 조건에서 참외밭을 지나기전에 간단한 회의를 열고 참외넉쿨 하나 밟지 않도록 미리 정치사업을 하는것이 좋을것 같습니다. 수백명이 지나가느라하면 참외넉쿨을 밟을수도 있고...》

아버이장군님께서서는 련대장이 제때에 보고해왔

다고 생각하시였다. 련대장은 조선인민혁명군의 규률을 잘 알고있는 사람이였다. 인민들에게 폐를 끼치거나 손실을 주지 않는것은 조선인민혁명군의 드릴수 없는 규률의 하나이다.

아버이장군님의 품속에서 강철같은 규률정신으로 교양되고 자라난 련대장은 전번에 있는 북만원정의 길에서 자기가 류숙하게 된 집이 갓 결혼한 신혼부부가 사는 가정이라는것을 알고는 그 집안에 들어가기를 내내 거절하고 봉당에서 추운 겨울을 지새운 그러한 사람이였다. 이처럼 인민들에게 폐를 끼치는 일에 대해서는 감히 생각도 못하는 련대장은 자기 련대에서 군중규률을 위반한 일은 한번도 없었으나 그래도 선손을 써서 대원들에 대한 정치사업을 하려는것이였다.

이때 아버이장군님께서서는 얼핏 어린 대원들에게로 눈길이 가시였다. 서너걸음 밖에 서있는 어린 대원들은 저희끼리 속삭이고있었다.

《야, 참외! 참외를 한개만 먹었으면!》

《참외라는게 뭔데?》

《동문 참외도 몰라? 촌에서 살았다면서.》

《모르는 사람까지 알려줄 필요 없다. 이럴때 한개 서걱서걱 먹어봤으면, 야.》

아버이장군님께서서는 그들의 얼굴을 살피시었다. 참외라는 말만 듣고도 기뻐하고 있었으며 생기를 띠우는것이였다.

련대장도 그들의 말을 들은 모양 한층 더 절박하게 말했다.

《대원들에게 참외밭이 있다는것을 알려주어 그 옆에도 가지 않도록 일깨워주는것이 좋을것 같습니다.》

아버이장군님께서서는 련대장의 절절한 이 제기에 보다는 어린 대원들의 얼굴에 관심이 가시였다. 그이께서는 참외를 모른다는 대원의 짧은 경력을 회고해보시었다. 정말 그는 참외를 보지 못했을수 있었다. 그이께서는 자식들에게 꼭 배워주어야 할것을 아직 배워주지 못하신것 같았다. 그리고 참외가 무엇인지 알고 얼굴에 욕망과 기대를 그리는 어린 대원들에게서 눈길이 떨어지지 않으시였다.

회의를 한다면 규률은 강해질것이다. 참외밭에 가기는커녕 눈길도 돌리지 않을것이며 모르고 밟을 걱정도 없을것이다. 그러나 회의만 해서는 참외를 먹고싶은 마음을 달랠수는 없을것이였다. 참외가 있다는것을 몰랐다면 그만이겠지만 일단 안 이상 먹고싶은 그 마음이야 어떻게 막아버리게 할수 있겠는가. 욕망은 규률만으로는 억제할수 없다. 대원들을 위해서는 규률에 대해서도 책임져야 하지만 그들의 욕망도 풀어주어야 할 지휘관들이 아닌가. 지휘관은 그래서 병사들의 만행이 되여야 하며 만누이가 되여야 한다고 말하는것이다.

대렬은 참외이야기로 웅성거리며 흘러가고있었다. 런대장은 자주 앞길쪽을 바라보았다. 누구인가가 참외밭을 밟을것 같아 걱정스러운 모양이다.

《런대장동무의 생각대로 하시오. 아무튼 행군을 멈추시오. 그리고 나하고 같이 원두막에 가봅시다.》

아버이장군님께서서는 지시하시였다.

《휴식-》

《휴식-》

앞으로 뒤로 명령이 전해졌다. 강물도 없고 음달도 없는 평벌밭에서 때아닌 휴식명령을 받은 대원들은 오히려 어리둥절해졌다. 그들은 모두 참외 참외하며 웅성거리였다. 런대장은 재빨리 런대정치위원에게 자기의 생각을 전하여 사업을 벌리게 하고 총망히 사령관동지를 따라섰다.

참외밭은 되바라진 산밭말에 있었다.

경애하는 사령관동지께서는 산기슭을 따라 걸으시며 참외밭을 살펴보시였다. 사례가 길게 늘어져 있는 꽤 큰 참외밭이였다. 참외넙쿨은 더위를 타서 뒤집혀지고 있는 오그라들어 바람이 불면 날아날것 같은데 이파리속에서 영가시같은 순이 빠져져나와 있었다. 이랑에는 번들번들한 참외가 데굴데굴 깔려있었다. 열끝내기, 맹꽁이참외, 노랑참외들이 섞여있었다. 밭쪽에서는 잘 익은 참외의 향그런 맛이 풍기여왔다. 참외밭 둘레와 네귀에는 콩, 팥, 팥중이, 록두, 강냉이, 수수, 기장 같은 낫익은 곡식들이 몇대씩 서있었다. 예부수수한 이랑우에는 이따금

상추며 중갈이배추며 근대들이 띠엮띠엮 널려있었다.

사령관동지께서는 돌연 어린 시절이 떠오르시였다. 할아버님께서도 여름마다 원두를 놓으시곤하시였다. 장군님께서서는 더위와 모기를 피하시여 원두막에서 책을 읽으시고 밤을 보내시던 일이 었그제 일 같으시였다. 원두막다락에서 대동강 물결소리를 들으시며 책을 읽으시기도 하고 할아버님의 일을 도와주시기도 하시였다.

아버이장군님께서서는 주변을 둘러보시였다. 화라지가 짝 갈라진 락락장송밑에 기루마만한 원두막이 있었다. 경애하는 사령관동지께서 스펙스적 원두막으로 향하시였다.

그곳에는 밭주인이 없었다. 원두막안팎에는 부지런한 주인이 방금까지 앉아있을 흔적이 력력했다. 나무가지와 새초를 돌기돌기 쌓아 만든 곱새막의 경사진 지붕에는 날림으로 결은 짜리채반과 타래를 친 비사리가 되는데로 얹혀있었다. 원두막앞에는 가운데가 패여들어난 개상이 놓여있었는데 그옆에는 호심경같은 달밧이 반들반들 윤이 나는 웅솔이 뒤집혀져있었다. 명석이 깔린 움막안에는 조자리를 제물땀한 중두리가 놓여있고 다른쪽에는 불돌과 부저가락이 담긴 오지화로가 놓여있었다. 명석자리 가운데에는 목침과 나무로 만든 담배통이 놓여있었다. 그안에는 막불경이 한줄과 동결이 담배대가 들어있었다. 그옆에는 호미자루와 호미날이 저마끔 떨어져있었는데 호미의 습베에 삼오리를 감다가 그대로 놓아둔것이 보였다. 그것을 보신 아버이장군님께서서는 원두막주인이 방금 호미자루를 맞추다가 사람들이 나타난것을 보고 어디론가 숨어버린것이라고 짐작하시였다. 그러니 이 주인은 산속에 살면서도 사람을 싫어하지 않으면 안될만큼 사람단련을 받아온것이 틀림없었다.

《원두막주인을 찾아보시오. 가까운데 숨어서 걱정하고있을것입니다.》

아버이장군님께서서는 엄숙히 따라선 지휘관들을 향해 말씀하시였다. 곧 원두막주인을 찾으려 대원들이 떠났다.

어버이장군님께서서는 지휘관들이 하얗게 닳아워진 달밀을 이상한 눈길로 보는것을 느끼시고 말씀하시였다.

《짐승들이 가까이 올 때마다 발주인은 달밀을 치며 쇠소리를 냈을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원만한 호신책이 될수 없습니다. 막에서 곧바로 나무로 올라갈수 있게 막자리를 정한것을 보시오. 큰 짐승과 맞다들리면 나무로 올라가야 할것입니다.》

경애하는 사령관동지께서는 바람벽에 작은 짚신에 걸려있는것을 보시고 그것을 들어보시였다.

《원두막주인에게는 어린 손자가 있는 모양입니다.》

어버이장군님께서서는 막안을 보시고도 주인의 살림형편과 가족까지 짐작하시였다.

사령관동지께서는 주인을 기다리시며 원두막 뒤쪽을 살펴보시였다. 그곳에는 군불을 때는 아궁이 있었는데 아궁이에서는 지금도 아지랑이 같은 가느다란 연기가 가물거리고있다. 아궁이옆에는 화로에 쓸수 있는 돌들(뜬숯)과 냉파리(팔은 숯)가 따로 무쳐있었고 한쪽에 놓여있는 찌리섬에는 참숯이 빼곡이 차있었다. 원두막주인은 귀한 성냥을 마질겸 숯을 구워돌검 불을 죽이지 않고 흔한 장작을 군불로 때고있었다.

막주변에는 따비며 우비칼이며 도끼, 호미 등 연장들과 멍구럭, 줄망태, 발채지게, 오쟁이, 찌리섬들이 저마끔 흩어져있었다.

《산속에서 로력으로 바꿀수 있는 물건들은 다 있습니다. 그런데 손바닥만한 이불 한패기 보이지 않습니다.》

경애하는 사령관동지께서는 만경대초가집과 할아버님이 생각키우시였다. 발기스레한 찌리로 엮어 만든 발채를 유심히 바라보시니 할아버님께서 쓰시던 발채같으시였다.

아마 이 참외밭주인도 자식들과 손자들을 많이 둔 할아버지일것이였다. 몇푼의 돈을 구해 궁한 살림을 보렘하려고 이런 깊은 산속에 원두를 놓았을것이였다. 참외는 소담할 정도로 잘되였다. 그러다가 웬 사람들이 나타나자 한해농사를 거덜냈다고

생각하며 어디에 숨어서 속을 태울것이였다.

어버이장군님께서서는 나무그늘밑에 앉으시였다. 새록새록 일어나는 고향생각으로 원두막주인을 만나고싶은 마음이 더 굳어지시였다. 어버이장군님께서서는 로인이 습베에 삼오리를 감은 호미를 드시고 자루를 박으시였다.

《그래 회의를 했습니까?》

사령관동지께서는 련대장에게 물으시였다.

《지금 곧 시작할것입니다. 그런데 참외밭이 있다는 말을 듣자 모두 참외밭이 어느것인가고 물으며 너물너물합니다.》

이때 선두위치에 있던 중대장이 웬 늙은이를 앞세우고 나타났다.

누데기로 간신히 알몸뚱이를 가린 늙은이는 두손을 맞잡고 겁에 질린 눈으로 화라지밀로 오고있었다. 늙은이의 다박나룻수염은 폭 패인 울대밑에 늘이웠는데 해질대로 해진 옷에서는 수염오리만한 푸서 한오리도 너물거리는데것이 없었다. 무작정 허리를 굽히는 늙은이의 잔등에는 너덜너덜한 베천이 겨우 등태를 가리우고있었다. 사령관동지께서는 이 늙은이가 곧 주인임을 알아보시였다.

원두막주인령감은 방금까지 그 누구도 찾을수 없는 움속에 숨어서 바깥동정을 살펴보고있었다. 숲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나오는것을 본 늙은이는 올해 참외농사도 다 틀러졌다고 생각하며 숲속에서 나타난 사람들의 일거일동을 주시했다.

그런데 웬일일가? 사람들은 자기 원두막의 참외를 알아보자 와르르 달려드는것이 아니라 오히려 피해서 물러섰다. 참으로 상상밖의 일이었다. 이런 더위때 참외밭을 보고 좋아하며 달려드는것은 꼭 나쁜 사람들의 소행만도 아니다. 그닥 나쁜 사람이 아닐지라도 이런 날 참외맛을 보자고 할수도 있다. 결과는 주인에게 손해를 주지만 복철에 참외를 먹자는것은 아플 때 약을 청하는쫌 여겨야 할것이다. 그러나 이번에 나타난 사람들은 참외를 보자 밭에 달려들긴 고사하고 오히려 피하는것이 아닌가!

세상에 별일도 다 있다. 남에게 손해를 주지 않으려고 넉쿨 한줄기 밟을세라 길을 에도는 저 사람들

이 과연 어떤 사람들일까?)

풍상고초를 겪을대로 겪은 늙은이에게는 오히려 한가닥 소년다운 호기심이 일었다. 이 어지러운 세상에 인간도덕을 지켜나가는 사람들을 만나보고싶었다.

누구도 찾아내지 못한 풀숲 움속에서 박을 내다보던 늙은이는 스스로 어정어정 걸어나왔다. 그래서 유격대지휘관들은 원두막주인을 쉽사리 만날수 있었던것이다.

그러나 늙은이의 얼굴에는 조심하고 경계하는 기색이 가시지지 않았다. 늙은이는 아무말 없이 장군님앞에 와서 허리굽혀 절을 했다.

경애하는 사령관동지께서는 늙은이의 허리를 펴주시며 말씀하시였다.

《로인님, 너무나 더워 좀 쉬어가려던 참이었습시다. 주인이 없어서 쉬기조차 마음이 켕기였습시다.》

아버이장군님께서서는 늙은이의 손을 이끄시여 화라지그늘밑에 앉게 하시였다.

《예, 무척 날이 덥습시다. 가만히 막안에 앉아있기조차 벅찬데 산길을 걸으시자니 오죽하시겠습니까. 어서 꼭 쉬어가십시오.》

늙은이는 레절차게 말하였으나 경계심과 불안은 사라뜨리지 못하였다.

늙은이는 무인산중에 나타난 사람들이 누구인지 모를것이였다. 이 시대 인민들은 아직도 **김일성** 장군님께서 이끄시는 항일유격대를 직접 보지 못했다. 경애하는 사령관동지께서는 보다 넓은 지역에서 군사정치활동을 벌리심으로써 인민들을 혁명적으로 각성시키고 묶어세우기 위하여 이번의 행군을 설계하시였다. 그리하여 늦은 봄부터 런 석달을 낫선 고장을 찾아 행군하며 적을 치고 인민들을 각성시키는 길이었었다.

경애하는 사령관동지께서는 늙은이가 우선 안심하도록 하시기 위하여 긴치 않은 질문을 하시였다.

《로인님, 산속 원두막치고는 꽤 큰 축입니다. 참외가 잘되었습시다.》

늙은이는 그런 질문을 기다리고있었다는듯 느닷

없이 줄망태를 들며 말했다.

《참외는 가물어야 잘된답니다.》

늙은이는 곧 참외를 따러 갈 심산이였다. 늙은이는 어째선지 아무튼 이 길손들에게 참외를 대접하고싶은 마음이 강했던것이다.

《어서 앉으십시오. 담배를 한대 피우지 않겠습니까? 로인님의 담배대는 막안에 있더군요.》

아버이장군님께서서는 부디 늙은이에게 가치담배를 권하시였다. 늙은이는 할수 없다는듯 옆에 앉아서 담배를 빨았다. 아버이장군님께서서는 자루를 땀뽀 호미를 늙은이에게 돌려주시였다. 늙은이는 호미자루에 슬그머니 힘을 넣어 뽑아보려고 했으나 그것은 뿌리를 내린듯 꿈쩍도 안했다.

경애하는 사령관동지께서는 변함없이 인자하신 목소리로 말씀하시였다.

《여기서 인가가 켕 멀겠는데 참외농사를 지어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꼬장꼬장한 늙은이는 심정이 움직여졌는지 속마음을 털어놓았다.

《하기야 할 짓이 없으니까 이런 일을 벌렸습지요. 푸서리를 뿌시여 이만한 밭을 만들기가 어디 험합니까. 봄내 여름내 키워 잘익은 참외를 한발채 지고 사오십리 걸어가야 20~30전씩 받습시다. 제가 여기서 축내는 소곰값도 되나마나하지만 그러나 어찌겠습니까. 숨이 붙어있으니 그냥 앉아있을수가 없고 목숨이 원쑤되어 이 놀음입니다.》

굶주림과 고역에 허기지고 들피진 앙상한 로인의 몸은 불안과 공포를 사그러뜨리고 차차 안정되어갔다.

경애하는 사령관동지께서는 늙은이에게 살아가는 형편에 대하여 자세히 물으시였다. 늙은이는 마치도 난생 처음으로 자기의 아픈 속을 쓰다듬어주는 은인을 만난듯 순진하게 자신의 피로움을 털어놓았다.

늙은이에게는 40이 되어 장가가서 본 끝끝한 아들과 무던한 며느리가 있었으며 귀염둥이 손자도 있었다. 로인의 기쁨, 로인의 희망은 그들이였다. 그러나 살림은 말이 아니였다. 늙은이는 대여섯해

전부터 산속에 들어왔다. 자식들을 돕는 방법은 자기 입을 더는 길밖에 없었다. 하루만 보지 못해도 죽을것 같은 손자를 뿌리치고 심심산골에 들이박혀 여름에는 밭을 두지고 겨울에는 잔불놓이를 하며 연명해오고있었다. 늙은이는 잘 익은 참외를 손자 녀석에게조차 푼푼히 먹이지 못한다고 이야기를 하다가 눈물을 떨어뜨리는것이였다. 그의 불우한 이야기는 끝이 없었다.

경애하는 사령관동지께서는 마음이 피로우시였다.

그이께서는 서서히 걸으시여 원두막앞에 이르시였다. 밭에 널려져있는 참외들이 참외로만 보이지 않으니였다. 참외넉쿨 한줄기 밟지 않도록 해야 하겠다던 련대장의 우려는 공연하지 않았다.

《로인님, 저 밭의 참외를 다 내다 팔면 돈을 얼마나 받을수 있습니까?》

아버이장군님께서서는 비분을 이기시며 다시금 말씀을 시작하시였다. 늙은이는 심드렁한 기색으로 말했다.

《저것이 돈이 되려면 아직 멀었습니다. 아무 곡절없이 메다 다 판다해도 모르겠는데…》

로인은 말을 맺지 못했다. 아버지장군님께서서는 따져물으시였다.

《지난해는 얼마나 받았습니까?》

《지난해도 공으로 거덜냈습니다.》

산중에 나타나는 비적들과 반일부대가 해마다 원두밭을 송두리채 판대군하였다. 결국 늙은이는 허심쓰레기를 주어다 손자에게 주었다. 손자애는 해마다 참외를 먹지만 아직 참외맛을 모른다고 했다. 늙은이는 아마 이번에도 위불없이 다 익힌 참외를 거덜낼줄 알고있었다. 장군님께서서는 몇번 다시 물으셔서야 원두밭의 참외값을 아실수 있었다.

아버이장군님께서서는 늙은이에게 말씀하시였다.

《로인님, 지내 근심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일제놈들을 때려부시고 조국을 해방하기 위해 싸우는 조선인민혁명군입니다. 여기에 있는 사람들은 모두 늙은이와 같은 할아버지나 아버지를 모시고있는 젊은이들입니다.》

장군님의 말씀을 들은 늙은이는 입이 하 벌어지는것도 모르고 그이를 우러러보고있었다.

《아, 그러십니까? 소문은 많이 들었습니다. 벌써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시고. 그럼 백두산정기를 지니시고 태어나신 **김일성** 장군님을 보셨겠습니까. 예?》

늙은이의 말을 들으신 아버지장군님께서서는 지휘관들을 둘러보시며 웃으시였다.

《로인님, 바로 이 동무들을 보면 장군을 본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장군한테도 로인님과 같은 할아버지가 있습니다.》

늙은이는 경계심과 꺼려하는 기색이 없는 전혀 새로운 눈길로 지휘관들을 둘러보다가 돌연 줄망태를 메고 밭으로 들어섰다.

《올해는 내가 이런 경사를 보려고 참외도 류달리 잘된 모양입니다. 내 이제 잘 익은 참외를 한망태 따오리다. 원 **김일성** 장군님의 군사를 만나뵈다나…》

경애하는 사령관동지께서는 지휘관들을 둘러보시며 말씀하시였다.

《동무들, 늙은이의 말을 들으니 마음이 슬퍼집니다. 몇해 살지도 못할 늙은이가 오죽하면 무릎앞에서 기는 손자까지 뿌리치고 홀아비살림을 결심했겠습니까? 그대로 밭길이 떨어지지 않을것 같습니다.》

지휘관들은 묵묵히 피로움을 새기고있었다. 아버지장군님의 심려를 덜어드리기 위한 좋은 수가 생각나지 않았던것이다.

잠시후에 늙은이는 줄망태가 넘게 참외를 따가지고 왔다.

《항일유격대어른, 늙은이의 지성으로 알고 맛보시우. 더위엔 참외가 약이라고도 합니다. 자, 어서 하나씩…》

늙은이는 깨끗한 오쟁이를 퍼고 그우에 참외를 하나하나 꺼내놓았다. 늙은이는 막에 들어가 손칼을 가져다놓은 다음 다시 줄망태를 메고 밭으로 들어갔다.

경애하는 사령관동지께서는 마치도 참외를 자식



러는듯 노랑참외 한개를 드시고 보시였다. 향기로 우면서도 시원한 감을 주는 참외향기가 질게 풍기였다. 지휘관들은 참외옆에 뺨 돌려섰으나 감히 참외에 손을 대지 못했다.

(기구한 늙은이, 이렇게 훌륭한 열매를 키워서 사랑하는 손자녀석에게도 먹이지 못하는 가련한 신세, 참외를 볼 때마다 손자생각이 오죽할까?…)

아버이장군님께서서는 눈언저리가 뜨거워지시였다. 이때 런대정치위원이 왔다. 아버지장군님께서는 그에게 물으시였다.

《우리 동무들이 지금 회의를 하고있습니까?》

정치위원은 중대별로 모임을 벌리고있음을 보고 드리였다.

정치위원의 보고를 들으신 아버지장군님께서는 회의를 벌리고있을 대원들을 그려보시였다. 그들은 조선인민혁명군의 계급적사명과 인민적성격에 대해서 토론할것이며 인민의 재산을 다치지 말아야 할 필요성을 이야기할것이다. 그래서 참외밭의 넝쿨 한줄기 밟지 않도록 조심히 지날것을 결의할것이다. 그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그러나 아버지장군님께서서는 나 어린 대원들이 속삭이던 말들이 생각나시였다. 갈증에 몸부림치던 그들이 내심 얼마나 참외를 먹고싶을가, 또 그들속에는 참외가 어떤 열매인지조차 모르는 젊은이도 있다. 그러나 그들은 결국 참외를 따먹지 않을것이며 참외밭가까이에도 가지 않겠다는 결의를 다지고 있을것이었다.

아버이장군님께서서는 며칠동안 산속에서 몇알의 강낭쌀로 끼니를 에우면서도 기운차게 행군해오던 대원들의 모습이 떠오르시였다. 그들은 자신의 주림과 더위의 고통에 대해서는 입밖에도 내지 않았다. 이 고장은 더위가 왜 이리도 지독한가, 우리 고향 같으면 아무리 높은 산에도 샘이 솟고 내물이 있는데 여기는 하루종일 걸어도 물이 없다.

고향 같으면 밤, 대추, 머루, 다래가 쌓였겠는데 여기는 콩알만한 열매 하나 없다. 고향 같으면 골짜기마다 원두막과 오이막이 있고 하다못해 무우밭이라도 있겠는데 여기는 아무것도 없다. 이러고보면 우리 나라는 정말 아름답고도 먹을것이 많은 살기

좋은 고장이라고 말하면서 굶주림과 더위를 이겨내던 그들이였다.

그런데 그들앞에 원두막이 나졌는데 그것 하나 먹이지 못한단말인가?

물론 규률은 누구도 어길수 없으며 엄격히 지켜야 한다. 그러나 그런 경우에도 지휘관은 대원들의 심정을 잘 알고 친부모의 심정, 만형의 심정으로 규률을 위반하지 않도록 조건을 지어주며 잘 돌봐주어야 한다.

아버이장군님께서는 그들에게 참외를 보여주시고 시원하게 먹고싶은 생각이시였으며 소담스러운 참외를 보실수록 그 욕망이 강해지시였다.

참외밭 늙은이는 줄망태에 참외를 그들먹하게 따매고왔다.

《로인님, 기왕이면 제일 푹푹하고 잘 익은것으로 한망태기 더 따오십시오.》

경애하는 사령관동지께서는 뜻밖에도 로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였다.

《예, 어서 쉬엄쉬엄 많이 드십시오.

후담에도 김일성장군님을 뵈게 되면 이 늙은이가 장군님을 대접하듯 군대어른들을 대접했다고 말씀올려주시우. 이런 망태기로 따내서는 차리도 나지 않습니다.》

늙은이는 웃음을 지었다.

아버이장군님께서는 깨끗한 오쟁이에 참외를 넣으시였다. 열매들이 치일세라 한개씩 드시여 오쟁이밑에 차곡차곡 쌓으시였다. 영문을 알리 없는 지휘관들은 의아쩍게 생각하는 눈길로 오쟁이아구리를 잡아드렸다. 아버지장군님께서는 농익어 물소리가 나는 속이 군 참외는 빼놓고 제일 신선한것들만 골라넣으시였다. 오쟁이배가 불룩해졌는데도 그이께서는 담쭈담쭈 넣으시였다.

오쟁이안에는 잘 익고 싱싱한 참외가 세망태기나 들어갔다. 그것을 본 참외밭늙은이는 무척 이상쩍어해하는 눈치였다.

경애하는 사령관동지께서는 오쟁이를 들어보시고 나서 말씀하시였다.

《이만하면 됐습니다. 로인님, 참외가 일매지게 잘 익었습니다.》

늙은이는 의아해하는 기색을 지우지 못한채 말했다.

《예, 지금이 한철입니다. 이제 강쇠바람만 오면 익었던 참외맛까지 달라진답니다.》

경애하는 사령관동지께서는 또 발에 들어가려는 늙은이의 손목을 잡으시었다.

《로인님, 잘 익은 참외를 보니 탐이 납니다. 우리 동무들이 지금 물 한모금 마시지 못하고 땀별속을 내쳐 걸어오고있습니다. 그러니 이 참외를 우리한테 발채로 팔아주시지 않겠습니까?》

늙은이는 참외가 담긴 오쟁이를 보며 다급히 말했다.

《원, 이런 별맞힐 말씀 삼가해주시오, 조선백성이 **김일성**장군님의 군사를 받드는것은 응당한 일인데 팔고사고가 무슨 말씀이십니까? 저는 제가 땀흘려 가꾼 참외를 **김일성**장군님의 군대에게 대접한다면 일생에 그 이상 자량이 없겠습니다. 저가짓것들을 몽땅 걸어서 메다 판대야 손자아이 때때웃 한벌 값도 안나옵니다. 어서 모두들 둘러앉아 달게 자십시오. 여기서 자실수 없는 사정이 있으면 발의 참외를 모두 따가기라도 하시우. 정녕 늙은이의 지성이옵니다.》

아버이장군님께서서는 늙은이가 발으로 들어간 다음 련대장, 련대지휘성원들에게 말씀하시었다.

《지금 우리 동무들이 며칠째 더위때문에 무척 힘겨워하고있습니다. 식사도 제대로 시키지 못하고 먼길을 걷고있습니다. 참외발이 있다는것을 알고야 왜 먹고싶은 생각이 없겠습니까. 물론 엄격한 규률 위에 회의까지 했으니 참외발을 다칠 우려는 없습니다. 그러나 대원들이 참외발을 보며 그냥 지나기가 얼마나 섭섭하겠습니까. 어린 대원들중에는 아직 참외가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도 있는 모양입니다.》

이 참외발주인이 원두를 놓은 목적은 판데 있는 것이 아니라 몇푼의 돈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동무들이 이야기를 들은것처럼 늙은이는 살길이 없어 이런 놀음을 하고있는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늙은이를 도와주고싶지만 당장 무슨 판 방법이 없습니다.

참외발을 통채로 우리가 사줍니다. 그리고 참외 값은 늙은이가 말한것보다 열배쯤 되게 치릅니다. 늙은이도 우리들한테서 그냥 돈을 받는것보다는 나을것입니다. 그 돈이면 늙은이가 얼마동안 아들, 손자, 며느리들 다 모여서 궁색한 살림을 조금이나마 펴수 있을것입니다. 내 생각은 이러합니다. 우리 동무들이 모두 참외발에 들어서서 마음껏 참외를 따 먹으며 늙은이와 이야기도 나누며 친숙해지게 합니다. 선 참외를 따거나 녀쿨을 다치는 일은 없도록 강조해야 합니다. 그리고 돈은 내가 물겠습니다.》

련대장도 정치위원도 모두 머리를 숙이었다. 돈이 없는것이 아니었다. 그들의 생각은 가장 원칙적이고 정당한것 같았으나 늘 아버지장군님의 아량과 웅심에 비하면 웅졸하고 편협했다.

련대장은 곧 중대장들에게 장군님의 명령을 전달하였다. 오래지 않아 대오는 참외발에 들어섰다. 소대들이 한이랑씩 말아 차지했다. 참외발에서는 이윽고 웃음소리, 톱말소리가 터져일었다. 그중에서도 인기는 참외발주인 늙은이였다. 참외를 하나 먹었으면 하고 단침을 삼키던 대원들은 참외는 따서 들기만 하고 늙은이한테 말을 자주 시키는것이였다. 무더위와 강행군 속에 지쳤던 대오는 산을 옮길듯한 기세와 활력을 나타냈다.

《동무들, 시간이 많지 못하오, 말만 하다간 참외 맛을 못보고 후회할수 있소.》

아버이장군님께서서는 쾌활하게 말씀하시며 발으로 들어가시었다. 대원들이 와그르 물려들었다. 그들은 저마끔 참외를 내들고 자기것이 잘 익었다고 장군님께 권하였다.

장군님께서서는 대원들이 권하는 참외들속에서 배꼽이 볼록한 노랑참외 하나를 골라드시었다. 먹음직하게 생긴 참외였다.

그이께서는 손칼로 밑둥 량쪽에 손잡이홈을 파내신 다음 배꼽을 따시고 웃도리부터 껍데기를 내리 벗기시었다. 노랑참외는 순간 진한 향기를 물씬 풍기였다.

《택봉동무 어디 있소?》

장군님께서서는 물이 흐르는 참외를 드시고 대원들속을 살펴보시었다. 택봉이란 아직 참외가 무엇인

지 모른다던 젊은 대원이었다. 장군님의 부르심을 듣고 그이앞으로 뛰어온 택봉이는 어쩔바를 모르고 눈만 슴벅거렸다.

《어서 참외맛을 보오, 참외는 노랑참외가 다오.》

옆에서 감격에 어린 눈으로 장군님을 우러르던 로인은 그이의 소매를 끌었다.

《저기 저쪽으로 가십시다. 참외는 이 늙은이가 잘 알지요.》

아버이장군님께서서는 늙은이의 정을 뿌리치실 수 없으시여 가자는데로 가시었다. 원두막앞 참외를 넣은 오쟁이앞에는 여러문개의 주먹만한 작은 참외들이 놓여있었다. 노랑참외, 얼룩참외, 청참외들이었다.

《이것을 하나 드십시오. 그대로 꿀맛입니다.》

아버이장군님께서서는 소담한 참외를 하나하나 드시여 냄새를 맡아보신 다음 참외가 그들먹한 오쟁이에 그것들을 더끔더끔 쌓으시었다. 참외밭주인은 아마 오쟁이에 담긴 참외를 가지고 가시려는줄로 생각했을수도 있다.

《로인님, 불같은 별이 쏟아지는데서 참외를 먹으니 그 맛이 별맛입니다. 우리 동무들이 얼마나 기뻐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늙은이는 그이께서 가장 달고 맛이 있는 참외를 사양하시는것이 좀 섭섭했으나 여전히 기쁜 마음이었다.

《올해에 원두를 논 보람이 큼니다. 다음해에도 또 놓겠으니 꼭 들려주십시오. 그리고 더 많이 놓지 못한것이 후회됩니다. 설사 다시 만나뵈옵지 못하는수가 있어도 부디 오래도록 이 늙은이의 소원을 생각해주십시오. 늙은것은 김일성장군님의 항일유격대가 꼭 조국을 찾아줄것을 굳게 믿게 됩니다. 오늘 장군님의 군대를 직접 보고나니 앞길이 환해집니다.》

소대장들이 차례로 와서 참외밭주인에게 고맙다는 인사를 했다. 늙은이는 인사를 받을 때마다 세상에서 김일성장군님의 항일유격대처럼 훌륭한 군대는 처음 보노라고 탄복했다.

련대장과 정치위원이 온것을 보신 아버이장군님

께서는 곧 떠나야 하리라고 생각하시었다.

《로인님, 우리 이제 떠나겠습니다. 우리 동무들의 이름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부디 건강하여 조국의 해방을 보아야 합니다.》

늙은이는 허리를 깊이 숙여 절했다.

《왜놈들을 내쫓고 나라를 찾아주십시오. 일일천추로 해방의 날을 고대하옵니다. 자식들과 손자만이라도 제 나라 제 땅에서 활개치며 살게 해주옵소서.》

아버이장군님께서서는 늙은이의 몸을 일으키시었다. 그이께서는 참외가 가득 든 불룩한 오쟁이를 가리키시면서 늙은이에게 말씀하시었다.

《로인님, 이 참외를 지고 집에 가서 손자애너석한테 주십시오. 새들도 잘 익은 열매는 새끼들을 위해 남긴다는데 손자생각이 오죽하겠습니까.》

늙은이는 오쟁이의 참외를 손자에게 가져다주라는 말씀을 듣자 그만 다시금 덤벼치기 시작했다. 그안의 참외는 모두 그중 잘 익은것들이었다.

《그건 안됩니다. 그 참외는 김일성장군님께 올리는 마음으로 한이랑에서 한개씩 골라 판것입니다. 다문 한개라도 자서야 합니다.》

늙은이는 흥분에 떠서 소리쳤다. 아버이장군님께서서는 비통하신 기색으로 엄숙히 말씀하시었다.

《꼭 손자한테 메다 주십시오. 나의 할아버님은 학대와 주림 속에서 한평생 모든것을 빼앗기시였지만 자신께서 익히신 첫물참외는 손자들에게 먹이였습니다. 로인님, 꼭 그렇게 하십시오.》

그 다음 장군님께서서는 돌아서시여 걸음을 떼시었다. 늙은이는 오쟁이안에서 꺼냈던 노랑참외를 높이 들고 그냥 하나만이라도 잡수셔야 한다고 권했으나 목이 갈려 소리가 나가지 않았다.

련대장은 늙은이의 손에 봉투를 쥐여주었다. 그리고 늙은이가 그안의것을 보기전에 흙모에 잠겨 말했다.

《로인님은 저분이 어떤분이신지 아직 모르고있습니다. 저분이 바로 백두산정기를 타시고 우리 나라를 구원해주시기 위해 싸우시는 전설적영웅이시며 절세의 애국자이신 김일성장군님이십니다.》

늙은이는 눈물에 젖은 가시주름살을 쭉 펴며 눈

을 번쩍 떴다.

《예? **김일성** 장군님!》

늙은이는 어버이장군님의 영상을 다시한번 우리  
르려는듯 한걸음두걸음 나서며 마들가리소매자락  
으로 눈언저리를 문대었다.

몸소 호미자루를 맞춰주시던 그분이, 늙은이의  
아픈 마음을 어루만져주시던 그분이, 제일 맛있는  
참외를 손자에게 먹이라고 하시던 그 인자하시고  
고마우신분이 **김일성** 장군님이시였다. 그이의 인품  
이 이처럼 인자하시고 고결하시니 한번 뵈온 사람  
들은 힘을 내고 앞길을 굳이 믿었다. 늙은이는 위대  
한 장군님을 다시한번 더 뵈고싶었다. 배낭을 메고  
총을 멘 끝끝한 혁명군이 줄지어 지나가면서 늙은  
이에게 팔을 저어보이고있었다. 장군님을 다시 뵈  
울수 없게 된 늙은이는 하얀 봉투를 꼭 그러안았다  
가 그속을 꺼내보았다. 봉투안에는 그가 아직 본 일  
조차 없는 지전몽테기가 들어있었다.

《장군님, 이 해망없는 늙은것이 미처 인사 한마  
디 올리지 못했습니다. 장군님께서서는 우리집 3대를  
살려주시었습니다. 장군님, 우리 3대는 영원히 장  
군님을 따라가겠습니다. 장군님, 부디부디 만수무  
강하옵소서...》

련대장과 정치위원, 이 련대의 지휘관들인 두사  
람은 참외밭을 둘러보았다. 아직 익지 않은 참외들  
이 많이 남아있었으며 술한 대원들이 밭에 들어갔  
었으나 넉쿨 한줄기 상한것이 없었다. 그들은 소매  
를 붙잡고 놓지 않는 늙은이에게 인사말도 변변히  
못하고 원두막을 떠났다. 대렬에 들어서니 대원들  
은 싱글벙글 웃으며 걷고있었다. 참외를 들고 보면  
서 병긱병긱 웃으며 걷는 대원들도 있었다. 기쁨과  
힘이 융솟음친다. 그들에게는 이미 갈증과 땀별도  
피로와 허기증도 문제가 아니었다.

어버이장군님께서서는 엄숙해지는 련대장과 정치  
위원에게 말씀하시였다.

《이것보시오. 참외를 한개씩 맛보이니 내집이 가  
벼워졌습니다. 이 동무들이 총도 배낭도 더는 나에  
게 메우지 않습니다.》

어린 대원들은 유격근거지에서 갓 떠날 때처럼  
활기에 넘쳐 그냥 웃기만 하며 거침없이 걸어가고

있었다. 련대장은 병사들처럼 웃을수만 없었다. 그  
순간 그의 체험은 심각했다. 자기는 대원들속에서  
규률을 위반하는 사람이 생길가보아 당황하기만 하  
였지 그들의 심정을 알아보고 그것을 풀어줄 방도  
를 생각하지 못했었다. 아마 대원들속에서 참외 하  
나라도 다쳤다면 그는 친동생처럼 사랑해오던 그  
대원에게 어차피 엄격한 추궁과 제재를 가했을것이  
였다. 지휘관들의 태도와 립장이 모두 자기 같다면  
병사대중이 어디서 기쁨과 보람을 느낄수 있으며  
주립과 고통 속에서 불사신같은 힘을 낼수 있겠는  
가.

어버이장군님께서서는 갈증에 허덕이는 대원들에  
게 그 심정을 제때에 헤아리시고 참외를 사먹이심  
으로써 규률을 어기지 않도록 해주시었을뿐아니라  
그들에게 힘과 기세를 돋구어주시여 행군에 박차를  
가하게 하시였다. 이렇듯 어버이장군님께서서는 일  
부 지휘관들에겐 걱정거리로 생각되던 참외밭을 이  
처럼 모두에게 기쁨으로, 힘으로 되게 하시였다.

행군은 계속되고있었다. 8월의 햇빛아래 천악만  
봉은 비늘처럼 겹쳐있다. 언제부터 시작한 길이며  
이제 얼마나 더 걸어야 할것인가? 원쑤들을 죽치는  
싸움터가 도착직이고 승리한 싸움터가 다시 새로  
운 출발점으로 되는 그들이였다. 앞만 볼뿐 그들은  
승리와 영광과 기적으로 수놓아진 자신들의 로정을  
돌아다보는 일이 없었다. 한평생을 어버이장군님  
을 따라 앞으로만 달려갈 조선혁명의 전위들이였다.

그들의 가슴속에는 영원히 잊을수 없는 뜻깊은  
사연들이 생동히 간직되어있었으며 그것은 오직 혁  
명승리의 그날까지 그들을 달려나갈수 있게 하는  
무궁무진한 힘의 원천으로 되였다.

련대장과 정치위원은 쉼쉼 걸어 자기 위치로 향  
했다. 대원들의 기세는 하늘에 닿고 걸음발은 날개  
를 뚫친듯하다.

대원들은 어버이장군님의 끝없는 사랑과 함께 이  
날의 참외맛을 한평생 잊을수 없을것이였다. 하물  
며 이날 어버이장군님께서 보이신 모범과 가르치심  
은 련대장과 정치위원은 물론 모든 지휘일군들이  
대를 이어가며 본받고 리행하여야 할 위대한 귀감  
이였다.

## 천만년 대를 이어 길이 모시리

1

푸른 하늘아래  
끝없는 환호의 꽃바다  
다함없는 흠모의 정이 설레이는  
감격의 바다  
기쁨의 바다

어버이수령님을  
우러러 높이 추대하는  
더없는 영광과 행복  
세찬 격랑으로 굽이치고  
뜨거운 열풍으로 터져오르는  
환희의 광장

진정할길 없는 흥분으로  
한밤을 잠못이룬 가슴들이여라  
새벽별도 지기전에 산길을 떠나  
고개 넘어 달려온 그 걸음  
아침이슬에 옷자락을 적시며  
자랑을 안고  
노래를 안고  
모여온 사람들

높이 솟은 은빛철탑아래서  
하나하나 뜨겁게 손을 잡아주시던  
잊을수 없는 그날의 감격이  
어제런듯 새롭고  
대풍의 이삭을 안고  
설레이는 열두삼천리벌우에  
보내주신 그이의 자애로운 미소가  
오늘도 영원한 사랑의 빛발로 어려있는  
후더운 가슴들이여

세차게 고동치는 심장  
높이 울리는 감격의 환호성  
해 뜨는 동해에서  
해지는 서해끝까지  
온 나라가 안주땅이 되어

위대한 수령님을 높이 추대하며  
설레이는 꽃물결  
  
환호의 끝은 그 어디  
감격의 끝은 그 어디  
위도와 경도를 넘어  
온 세계가 그토록 흠모하며 높이 우러르는  
위대한 수령님 모신  
크나큰 행복과 긍지에 넘쳐  
부르고 또 부르는 만세의 대합창이여!

하나같은 감격이  
차넘치는 강산  
하나같은 영광이  
하나같은 축원이  
뜨겁게 물결치는  
인민의 대축전

반만년 기나긴 역사를 두고  
이렇듯 위대하시고  
이렇듯 자애로우신 수령님을  
이 땅에 높이 모신적 있었던가

설레여라 번영하는 조국강산에  
흠모의 꽃물결  
행복의 꽃물결  
굽이쳐라 인민의 가슴에  
수령님만을 따르는  
한없는 신뢰의 바다  
뜨거운 충성의 바다여

목청껏 만세를 부르고 또 부르는  
환호의 폭풍속에서  
어찌하여 우리의 눈앞이  
이렇듯 흐려오는것인가  
칠순이 넘는  
저 할아버지의 주름깊은 얼굴에  
더운 눈물이 끝없이 흘러내리는것인가

웃음이 있었던가  
어제날 우리 인민에게  
노래가 있었던가  
나라없이 깃발혔던  
어제날 우리 인민에게

민족의 뉘은 갈가리 찢겨지고  
마가울에 훔날리는 락엽처럼  
뿔뿔이 흩어져가던 인민  
일제의 총칼밑에 랑자히 흐르는  
참혹한 피바다속을 헤매지 않았던가

오늘의 이 영광의 꽃바다가 시작된  
잇을수 없는 고난의 백두산기슭을 생각하노라  
어둡고 괴롭던 가슴들이  
희망의 창문을 열고  
기쁨의 눈물 흘리며

**김일성**동지!

빛나는 존함과 함께 우리론  
백두의 장수별

아 누리를 밝히며 솟아오른  
백두의 그 장수별은  
흩어진 인민의 분노와 념원  
찢겨진 민족의 뉘과 원한을  
하나로 뭉쳐준  
위대한 사상의 탄생이였고  
하나의 신념, 하나의 의지로  
인민의 가슴을 그렇듯 힘있게 끌어당긴  
향도의 위대한 중심이었어라

밤하늘에 가득한 성좌도  
하나의 중심을 향해 움직이듯이  
땅우에 흐르는 무수한 강줄기도  
하나의 바다로 흘러가듯이  
오매에도 그림던 수령님 품에  
울면서 안겼던 우리 인민

위대한 수령님 안겨주신  
이 주체사상이 아니었더라면  
무엇이 다르랴 우리 인민이

거칠은 들판에서  
바람에 훔날려가는 작은 모래알과  
무엇이 다르랴  
밤하늘에 사라져가는 한점의 별찌와  
심산유곡을 외로이 울리며  
흐르는 한줄기 가는 실개울과...

영영 불행의 눈물속에 묻혀버릴  
우리의 운명이 아니었던가  
산길은 화전의 외진 비탈밭에  
석수 쏟아지는 죽음의 갭구에  
치량한 달빛아래  
설음과 한숨을 찢던 연자방아간  
망망대해우에 뜬  
한잎의 의지없는 쪽배우에서...

수령님을 떠나서는  
순간도 살수 없는 우리 인민  
3천리가 들끓던 개선의 광장과  
승리의 축포를 하늘높이 울리던  
전승의 광장을 거쳐  
얼마나 많은 환호의 꽃물결로  
수령님을 끝없이 우리르며 따르는  
우리의 이 행복을 수놓아왔던가

수령님 따라  
우리 달려온 길우에  
시련의 언덕도 수없이 넘었고  
가슴아픈 일도 많았건만  
수령님 지너주신 영생의 정치적생명을  
그속에서 꽃피우며  
보람차게 달려온 혁명의 길

자주의 강국  
자립의 강국  
자위의 강국으로  
누리에 자랑 높이  
그 위용을 떨쳐가는  
오늘의 조국을 바라볼 때마다  
가슴뜨겁게 젖어오는  
수령님에 대한 생각

그 누구도 걸어보지 못한  
광휘로운 주체의 초행길을  
확신과 투지에 넘쳐 걸어가는  
이 높은 영예와 자부심을  
새롭게 느껴볼 때에도  
환희로이 가슴에 솟구쳐오르는  
수령님 모신 우리의 이 영광

-고맙습니다  
수령님 고맙습니다  
인민의 하나같은 이 감사의 정이  
폭풍같은 환호로 터져오르고  
-영원히  
영원히  
수령님을 모시고 따르렵니다!

인민의 이 하나같은 간절한 념원이  
뜨겁게 굽이치는 강산  
그칠줄 모르는  
행복의 환호, 영광의 환호여

그것은  
우리의 가슴속 가장 깊은곳에 심어주신  
주체의 위대한 사상  
위대한 진리에 대한  
인민의 환호

수령님 지펴주신 위대한 신념을  
억년 드눌지 않는 주춧돌로 삼고  
수령님 두리에 하나로 굳게 뭉친  
단결된 인민의 심장의 웨침

태양의 찬연한 빛발로  
새세기를 밝히시고  
주체의 새 기원을 열으신  
위대한 수령님 우러러  
대륙의 산발 넘어 태양의 파도 넘어  
끝없이 달려오는  
만민의 폭풍같은 환호

이 강산이 설레이는

장엄한 새시대의 환호여  
받아안은 은혜  
바치는 충성이 하나로 되어  
누리에 자랑높이 울려퍼진다  
위대한 조선의 영광  
행복한 인민의 영원한 노래여!

## 2

행복한 날에  
즐거운 날에  
우리 부르는 노래는  
아버이수령님 베푸신  
다함없는 사랑의 노래

하늘도 변함없는 그 하늘  
땅도 변함없는 그 땅  
대대로 살아온 사람들도 그 사람들이건만  
그 사랑 가슴가슴에 넘쳐  
우주를 움직일  
크나큰 힘을 지닌 자주의 인민

말하라 력사여  
세상에서 가장 권리 없고  
세상에서 가장 천대받던  
이 나라, 이 인민을  
인간존엄의 상상봉우에 올려세우신분  
그 누구이신가

먼 태고로부터  
인간의 투쟁은  
자주를 위한 투쟁이었고  
유구한 인류사의 폐지는  
이 투쟁으로 가득찼건만  
그 어느 시대에  
인간자주의 승리를  
이처럼 자랑높이 세상에 선포한적 있었던가

아 위대한 **김일성**동지  
인간의 운명이 도탄속에서 헤매일 때  
인간이 인간에게 줄수 있는  
가장 큰 사랑을

새로이 베푸신  
위대한 주체의 사랑이여

그것은  
이 세상 처음  
자주의 눈  
자주의 정신  
자주의 심장을 지닌 인간을 낳은  
위대한 품이여라

그것은  
인간해방의 기치를 높이 드시고  
혁명의 길에 나서신  
위대한 수령님께서  
이 세상 처음  
인민에게 안겨주신 가장 뜨거운 믿음이여라

이런 사랑 이런 믿음을 지니시고  
백두의 눈보라길에 나서신 수령님  
뜻을 같이할 혁명동지를  
한사람한사람 찾아내시여  
주체의 기치아래 묶어세우시고  
혁명의 길로 이끌어주신 전사  
천이더냐 만이더냐

비내리는 진창길  
열어붙는 눈보라길  
천만걸음을 걸으시여 한사람  
오랜 날을 두고  
심혈을 기울이시고 기울이시여 한사람  
그 한사람 한사람을  
혁명대오에 세워주신 수령님

아 사람들이여  
우리 수령님  
평범한 날에  
우리 인민을 키워주셨다면  
이처럼 가슴뜨거우랴  
평탄한 길을 걸으시며  
우리 인민을 믿어주셨다면  
이처럼 가슴뜨거우랴

위대한 주체의 그 길우에서  
백두의 눈보라를 태우고  
민족의 얼었던 가슴들을  
훈훈히 녹여주신 그 사랑

항일의 백설광야에서는  
대원들을 따듯이 품어주신 집이 되여주시고  
해방의 새 언덕에서는  
지난날의 피눈물을 가져주신  
자애로운 어버이손길이 되여주신 그 사랑

그 사랑으로 우리를 키우시여  
당의 기둥으로 세워주시고  
그 사랑으로 우리를 안으시여  
주권의 뗏뗏한 주인으로  
혁명의 믿음직한 역군으로 내세워주신 수령님

그이를 모실 집 한칸 없었던  
전후 폐허의 땅  
허물없이 로동계급과 마주앉으시여  
가슴가슴에 자력갱생의 불씨를 지펴주신 그 손길  
우리 혁명에  
천리마의 억센 나래를 달아주시고  
세인을 놀래우는 기적과 혁신을 불러오시여  
이 땅에 자랑높이  
사회주의락원을 일떠세워주시지 않으셨던가

아 살기좋은 인민의 나라  
무상치료, 무료교육으로 자랑높고  
이 세상에서 처음으로 세금이 없어진 나라  
사람이 누려야 할 참다운 권리를 지녀  
온갖 시름을 모르는  
행복한 이 조국을 우리에게 안겨주신  
그 사랑 그 은덕을 무슨 말로 다 노래할수 있으랴

반세기 조선혁명을 이끄시며  
수령님께서 걸어오신 길은  
유구한 력사가 일찌기 기록한적 없는  
위대한 사랑의 력사  
그 사랑으로 해가 뜨고 날이 저물며  
조선의 해와 달은 흘러가는데



기쁠 때나 어려울 때나  
언제나 인민과 함께 계시며  
현지도의 먼길을 이어가시는 수령님  
깊은 밤  
평양으로 가는 곧은길을 옆에 두시고  
어찌하여 길 험한 들길로 에돌아가시는가

초겨울의 눈발이 날리는 차창밖을  
깊은 생각에 잠겨 바라보시며  
가렬한 전쟁의 날  
적후에서 돌아오지 못한  
한 지휘관의 딸을  
조용히 더듬어보시는 수령님

세월도 흘러 20여년  
자신께서 언제나 품에 안고 다니시는  
작은 목책을 번지시며  
찾고찾으신 그 전사의 딸

끝내 가까이 부르시여  
이 세상 더없는 사랑을 안겨주시고  
아버지의 뜻을 이어  
나라의 훌륭한 일군이 되라고  
자신의 차에 태워  
학교에까지 보내주신 그 사랑

명절날에는 불러주시고  
몸소 전화로 찾으시여서는  
공부는 잘하는가  
몸은 건강한가  
하나하나 물어주신 그 뜨거운 은정으로  
한 농장을 맡은  
어엿한 관리일군으로 키워주신 수령님

이 밤 그 전사가 생각나시여  
그 전사의 딸이 보고싶으시여  
바쁘신 그 길을 지체하시며  
불빛 흐르는 관리위원회 앞마당에  
차를 멈추시여라  
어깨우에 흰눈을 받으시며  
문득 들어서시는 수령님을  
너무도 뜻밖에 뵈옵는 순간

《아 수령님! 이 밤 어떻게...》  
더 말을 잊지 못하는 전사의 딸  
목메여 눈물만 앞서는데

먼곳에 둔 딸을 찾아온  
아버이심정으로  
그의 어깨를 다정히 어루만져주시며  
나라의 일군으로 자란 딸을  
대견하게 바라보시며  
자애로운 음성으로 말씀하시여라

《네가 올해농사를  
잘 지었다는 소식을 듣고  
나도 기뻐서...  
기뻐서 찾아왔다.》

아 아버지 자애로운 그 품에 안겨  
비오듯이 흐르는 딸의 눈물이며  
목메이는 흐느낌  
마음속으로 우러르며  
마음속으로 또다시 부르는  
사랑의 밤이며

목메이는 그 사랑  
아버지가 받아안고  
딸이 받아안은 그 사랑에  
하늘도 눈발을 멈추고 흐느끼는가

가서야 할곳  
만나서야 할 사람  
그토록 많으신 수령님이시고  
단 하루라도 편히 쉬여주시기를 바라는  
인민의 소원이 넘치는 이 밤이건만  
전사의 딸이 해놓은  
작은 성과가 그리도 대견하시여  
이렇듯 찾아주시고 베푸시는 이 은혜

우러러따르는 마음이  
소리없는 이슬로 고이고  
뜨거운 눈물로 흘러  
바위같은 신념으로 굳어지는 그 사랑

이 사랑이 있기에 우리 서슴없이  
시련의 언덕도 넘어왔고  
우리의 운명과 미래를  
그이께 기꺼이 의탁했나니

수령님의 사랑은  
태양의 인력  
수령님의 사랑은  
우리 당, 우리 인민의  
통일단결의 원천이어라

아 주체의 한길로  
혁명을 이끄시고 인민을 이끄시는  
위대한 수령님의 은혜로운 품  
그이께서 창조하신 자주의 새세계에  
복받은 주인들이  
환희의 꽃물결로 흘러넘치는 품

이 품에 안겨  
인간은 세상에서 가장 높이 솟아오르고  
아버이사랑속에 태어나  
충성으로 고동치는 심장은  
오직 수령님을 우러러  
세차게 끓어번지거니

그이를 아버지로 모신  
끝없는 영광과 행복 속에서  
천만년이 흐른들 변함있으랴  
위대한 수령님 두리에 굳게 뭉친  
뜨거운 심장의 이 단결  
불패의 이 단결  
영원한 우리의 통일단결이어!

### 3

행복한 락원에  
충성의 대하는 세차게 굽이친다

시련의 불길속에서  
강철로 다져지고  
반석으로 굳어진  
변함없는 충성의 길  
이 길에서  
우리의 뜨거운 심장은 세차게 고동치고  
우리의 보람찬 삶은 꽃으로 피었어라

눈이 오나 비가 오나 가리심없이  
수령님 걸으시는 로고의 길에는  
충성스러운 인민이  
기쁨을 드리며 따르고  
인민이 있는곳에는 그 어디나  
자애로운 미소를 지으시며  
우리 수령님 언제나 함께 계시여라

아 어버이수령님께서  
한결을 옮기시면  
인민은 손을 모아  
그 자욱을 받들었고  
그이께서 하나의 명령을 주시면  
인민은 그대로  
육탄이 되어 나아가지 않았던가

미제의 포화에  
강산이 뒤덮였던 그날  
나어린 한 전사  
이름없는 산골짜기에서  
수류탄과 함께 적의 무리속에 뛰어들며  
웨치던 그 목소리  
《김일성장군 만세!》

별빛만이 흘러내리는  
무심한 골짜기  
그 목소리 들어줄 사람 없고  
장렬하게 마치는 그의 최후를  
아무도 보아줄 사람 없었던만  
어찌하여 그 전사는 마지막순간에  
이 하나의 웨침을 남기고 갔던가

뜨거운 심장의 그 웨침은  
골짜기에 외로이 메아리쳤건만  
충성으로 불타는  
전사의 깨끗한 랑심은  
조국의 산과 들에  
영원한 노래로 간직되었거니

그 노래  
쇠물을 끓이는  
우리의 가슴에서도  
지구를 태우는 왕가물을 물리치며  
이 땅에 만풍년을 가꾸어가는  
우리의 가슴에서도  
높이 울린다  
《오직 수령님을 위하여!》

아버이 그 사랑 영원하듯이  
바치는 우리의 충성 변함있으랴  
세월이 흐를수록 더욱 뜨거이  
어버이수령님 모시고 따르는 길에  
바치고바치는 우리의 충성  
대를 이어 더욱 불타라

하나를 생각해도

수령님 사상으로  
한걸음을 걸어도  
수령님 가르쳐주신 그 걸음으로

오직 수령님께 기쁨을 드리는것이  
조국땅에 아름다운 꽃을 피우고  
우리의 역사를 빛내이는 길  
주체의 위대한 세기를  
번영으로 이끄는 길임을  
가슴뜨거이 자각한 인민이기에

우리는 모른다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절대성, 무조건성  
그것을 떠난 혁명가의 참된 삶과 투쟁의 보람을

그것은  
자각된 공산주의자의  
드팀없는 신념  
그것은  
주체형의 혁명가의 깨끗한 양심  
이 불같은 충성의 열정이  
사람들의 가슴마다 넘치고  
온 나라에 굽이쳐  
혁명의 세찬 폭풍을 휘몰아가거니

력사여 아는가  
세계여 보는가  
위대한 사상과 뜨거운 사랑  
인민의 불같은 충성으로  
이루어지고  
다져지고  
억세어진  
조선의 이 통일단결을!

흘러온 력사도 수천년  
로동계급의 투쟁력사도 백수십년  
하지만 그 어느 시대, 어느 력사에

인민이 하나의 뜻으로 뭉쳐  
이렇듯 강대한 힘을 떨친적 있었던가

자랑하노라  
총창을 비껴들면 무적이 되고  
낫과 마치 높이 들면  
창조의 새 력사가 태어나는 이 힘

그 몇배 어려운 시련이  
우리앞에 닥쳐온다 하여도  
백번 더  
불바다를 헤쳐나갈수 있고  
천번 더  
허리띠를 졸라매며  
땅을 차고 일어설수 있는  
단결의 이 힘!

아 **김일성**동지!  
그이는 태양  
인민은 별이 되어  
오직 한분 그이를 옹위하며  
세월의 끝까지 모시고 따르리라

은혜로운 태양을 우러러  
만민은 주체의 화원으로 설레이고  
광휘로운 태양의 빛발아래  
인간자주의 송가높이  
주체의 대행진은  
세기의 하늘땅을 울리며 도도히 굽이치거니

아 수령님을 높이 모신 이 행복을  
강산은 아름다운 꽃으로 피우고  
수령님 높이 모신 이 영광을  
인민은 영원한 노래로 부르며  
천만년 길이길이 살아가리라

조선작가동맹 시문학분과위원회

## 해와 달 다하도록 수령님을 모셔가며

김휘조

환호소리 강산에 설레이랴  
노래는 넘쳐 강산을 흔들어라,  
하늘은 어쩌면 저렇게 맑아졌느냐  
땅은 어쩌면 이렇게 밝아졌느냐

해빛은 쏟아지고  
사람마다 밝게 웃는 거리거리  
위대한 수령님 영원히 주석으로 높이 모신  
기쁨에, 감격에

하늘도 땅도 더 밝아진 산천이여

홀려간 력사 반만년

이 땅엔 가장 큰 사변이 있었나니

그것은 꺼져가는 락조를 애통히 붙잡고

망국의 설움에 울던 이 강산에

만경대에서 위대한 태양이 솟아올라

풍랑에 깨어진 난파선같이 흩어지던

이 나라 혁명이 위대한 수령님을 높이 모신 때

피젖은 력사의 폐지가 바뀌었도다

그때로부터

빛없는 꿈이 덩굴던 초가막에도

희망의 웃음소리 맑게 울리었고

투쟁의 전설로 빛나는 백두산에서

어둡던 이 땅에

해방의 푸른하늘이 비껴왔도다

위대한 **김일성**동지,

그이는 굴욕의 사슬에 얹매였던 인민들을

세계의 주인으로 빛내주신분

그이는 주체의 빛발로

안개속에 잠겼던 자유와 해방투쟁의 앞길에

찬란한 봄무지개를 펼쳐주신분

그이는 빛나는 창조의 예지로

이 땅을 인민의 재부로 가득채워주신분...

흐르는 세월과 함께

위대한 수령님 우러러

어버이라 불러 목메이며

높이 모셔온 나날이여

그 나날을 거쳐 우리 인민은

락후와 빈궁을 멀리 떠나

해빛밝은 락원의 한복판으로 왔도다

자주, 자립, 자위의 나라

눈부신 사회주의강국의

영광스러운 인민으로 되였도다

수령님 품은

인민의 천만소원이 열매로 맺는 품

수령님 품은

우리의 운명과 희망을 영원히 맡긴 품

강산이 설레여라

위대한 수령님 영원히 주석으로 높이 모신

크나큰 감격에 설레이나니

다함없는 영광이여

이것은 주체의 위업이 만발한 새세계우에

위대한 승리의 기치가 더 높이 휘날려가는것

이것은 신생의 대륙에 압제의 철쇄가

봄눈처럼 녹아내리고

이것은 《유신》의 독아를 부시며 광장으로 달려

가는

남녘투사들의 앞길에

민주의 화원이 기어이 피어나는것

이것은 우리 공업의 메부리들이 더 억세게 솟구치 고

이것은 우리의 들마다 더 풍요한 만풍이 무르익고

이것은 우리 귀여운 아이들이 더 무럭무럭 자라고

이것은 이것은

날마다 시각마다

즐거움이 우리의 창문을 두드리며 들어서리라는것...

오, 환희로 찬 강산이여

또다시 대경사를 맞은 강산이여

크나큰 사랑을 안으시고

위대한 사색을 안으시고

수령님 계시는 청사의 창문들이

오늘도 온 조국을 향해 열려있다

영광은 빛나라

위대한 수령님을 영원히 높이 모신 강산에

이러한 경사와 경사들을 거쳐

해와 달 다하도록 수령님을 모셔가며

우리 인민은 맞이하리라

인류의 최고속망이 꽃으로 피여 노래하는

위대한 사변을!

아, 그이는 인민의 태양

인민을 위해 탄생하신 만민의 어버이.

# 우리의 오늘과 먼 앞날에

김정호

봄날의 해빛이  
우리의 가슴에 흘러들 때  
어머님의 그 미소 따사로웁고  
푸르게 열려진 하늘밑으로  
가슴 젖히고 걸어갈 때  
어머님의 그 영상 어려와라  
  
군모밑에 밝은 웃음 지으시는  
어머님의 그 영상  
항일전의 그날처럼  
오늘도 우리의 가슴속에 빛나시니

락원의 이 강산  
행복한 땅우에서  
위대한 수령님 모시고 사는  
우리의 가슴가슴마다에  
충성의 길을 열어주시는 김정숙어머님이시여

대사하치기의 푸른 언덕  
사령관동지의 안녕을 위해  
날아드는 적탄을 한몸으로 막으시고  
군복자락을 적시던 그 행복의 눈물이  
우리 가슴에 더운 이슬로 맺히고

눈덮인 만리길도 걸음걸음 녹이시라고  
싸움의 길 떠나시는 장군님 신발에  
정성들여 머리채를 깔아드린 그 마음  
해빛 찬란한 사회주의 이 강산  
저 목란꽃 송이송이에 어려있어라

밀림의 눈보라를 헤치시던 그 행군길도  
군복을 누벼가시던  
밀영의 그 준엄한 밤도  
인민의 행복한 웃음이 비껴

조국의 저 푸른 하늘에 이어놓으시며  
삶도 청춘도 미래도 폭풍속에 피워오신  
혁명의 어머님

아, 가장 고귀하고 참된  
젊음을 바치시여  
한생을 바치시여  
위대한 수령님을 우리러모셔온 어머님  
인간의 진정한 삶은  
수령님을 옹위하는 그 길에 있음을  
우리의 가슴에 깊이 새겨주신  
김정숙어머님이시여

불요불굴의 공산주의혁명투사  
어머님의 위대한 그 업적은  
수령님의 혁명전사가 한치한치 쌓아올린  
불멸의 봉우리  
우리모두가 천만번 태어나 바쳐도 다할수 없는  
충성의 산악

어머님께선  
한생을 바쳐 걸어오신  
혁명의 길우에 남기셨구나  
수령님을 받들어 영원히 변함없는  
우리 인민의 충성의 자욱을  
친위전사의 빛나는 그 자리를!

아, 어머님의 영상  
우러르면  
위대한 수령님을 모시는 그 자리에  
우리모두를 세워주는 해발로  
오늘과 또 먼 앞날에  
충성의 대오를 영원히 불러주는  
해발로 빛나고있어라

# 위대한 사랑의 테제

동기춘

우리 기쁨 넘쳐나서  
저 하늘이 푸르려 끝이 없는가  
우리 행복 넘쳐나서  
이 강산이 바다처럼 설레이는가

위대하신 우리 수령님  
크나큰 사랑을 또 주시여  
사랑의 교육체제를 안겨주시여  
홍성이는 거리  
홍성이는 마을  
터져오르는 광장의 만세소리

한없는 그 은덕에 목매여  
한없는 그 사랑에 목매여  
위대한 수령님을 우러러  
뜨거운 파도 설레는 이 강산에  
은은히 들려오네 학교들의 종소리  
생각 많은 가슴들을 부르며 흔들며  
가슴속 깊은곳에도 울려오는 종소리...

광야의 나지막한 지붕밑  
식민지의 짙은 어둠을 밀어내며  
타오르던 한점의 등불,  
그 몇밤 지새우셨는가 우리 수령님  
먼먼 세기를 내다보시며  
간고한 혁명의 년대들을 내다보시며  
주체교육의 첫 교재를 몸소 집필하시교  
동트는 하늘가에 울려주신 고유수의 종소리

얼음낀 설령을 넘으시며  
한자한자에 사랑을 고이시여  
면비교육문제를 혁명의 기치에 새기신  
조국광복회 10대강령은  
고유수의 첫 종소리가  
백두의 광막한 밀림에  
혁명의 메아리로 울린것 아니던가

그 종소리  
로동대중에게 계급투쟁의 진리를 깨우치며  
항일성전의 북소리 되어 울려킬고  
수난의 안개 걷힌 내 나라  
자유의 푸른 하늘가에  
해방의 만세소리되어 울려킬라

생각의 굽이굽이에서  
못잊을 추억을 불러내는 종소리여  
민주교육의 첫 터전을 잡아주시려

사회주의교육의 꽃대문을 세워주시려  
깊은 두메의 어둠을 밝으시며  
눈비에 옷자락 무거이 젖으시며  
수령님 걸으신 현지지도의 길은 몇천몇만리

그 자옥자옥을 따라  
초등, 중등, 9년제, 11년제  
의무교육의 계단을 오르며  
우리 인민이 이슬머금고 들던 종소리  
번영하는 오늘과 래일을 떠매고가는  
백만지식인대군을 길러내지 않았던가  
온 세상에 그 이름 자랑높은  
배움의 나라 교육의 나라를 일떠세우지 않았던가

수령님 한평생 기울이신 로고  
줄줄에 어려있는 테제  
주체교육사 반세기우에 솟아 빛나는  
《사회주의교육에 관한 테제》-그것은  
인간의 한생을 배움의 해빛아래 세우신  
위대한 수령님의 뜨거운 사랑의 노래

흘러온 인류사 백만년에  
처음으로 인류의 머리에 찬란히 빛발쳐간  
수령님의 교육테제-그것은  
이 땅과 온 세계 수억만 인민을  
자주의 인간으로 키우는 주체교육의 대전서  
지구를 깨우며 누리에 올려퍼진  
공산주의 문명세계에로의 행군나팔소리

아, 강산이 끓는다  
남녘땅이 일어선다  
신생의 대륙들에 넘치는 환희  
인간이 불을 발견한 때처럼  
지구의 경도와 위도를 넘어  
전파를 타고날으는 감격의 환호성이여

들려와라 경사로운 배움의 락원에  
고등의무교육의 마지막대문 열리는 소리  
성인교육의 전당에 들어서시는 힘찬 발걸음소리  
우리 당이 주체의 교육대강을 펼쳐들고  
인민을 공산주의혁명인재로 키우는 목소리

이 영광을 안고  
이 행복을 안고  
충성의 천만대오 굽이쳐가리라  
위대한 수령님 높이 모시고  
테제의 강령이 승리의 노래 떨치는  
공산주의 푸른 언덕으로

# 백두의 눈보라속에

강현세

창밖에 눈보라 휘몰아치는 밤  
어둠은 밀창없이 깊어가도  
훈훈한 방 창가에 피어나는 꽃송이들,  
눈보라소리 따라, 눈보라소리 따라  
잠들수 없는 내 마음  
《고난의 행군》길을 더듬어간다

한줄의 회상,  
하나의 글줄을 읽으면서도  
스스로 마음의 채찍을 들어  
제몸에 엿어보는 심정이어!

나에게 차례진 오늘의 행복이  
저 눈보라속에서 피어난것이 아닌가,  
장설을 뚫고 반겨 웃는 꽃인양  
눈서리의 차거움을 모르는 행복한 삶이어!  
이런 밤이면 내 마음 잠들수 없어  
백두의 눈보라속 그 길을 걸어본다

피바다 불바다를 헤치시며  
조선혁명을 승리에로 이끄신  
우리의 태양 **김일성**동지  
위대한 수령님을 우러러모시는 한마음

그이를 보위하는 길에서  
항일투사들처럼 충성다하고저  
수령님께서 밝히신 미래를  
그분들처럼 묵숨바쳐 사랑하고저...

이 땅에 인민의 새봄을 불러오시며  
전설적영웅 **김일성**동지께서 헤쳐오신 길  
천고밀림도 뿌리채 흔들며

하늘땅을 맞붙이는 백두의 눈보라  
그속에 마음을 세우면  
순간에 의지는 강철의 빛발을 안고  
열정은 화산처럼 타오른다

원쭉치는 행군길  
남해로, 남해로 물결쳐갈 때에도,  
포탄이 우박치는 《나의 고지》에  
첫눈이 내리던 그 밤에도  
심장을 뜨겁게 달구어주던 백두의 눈보라

고난의 행군길 그 자욱은  
전후복구건설의 언덕우에  
첫삽을 박던 그 걸음으로 찍혀졌고,  
폭탄구덩이자리에 황금나락 설레이게 한  
조국의 새 모습으로 새겨졌어라

아, 위대한 수령님을 따라  
불패의 대오가 걸어간 그 자욱  
한흙의 미시가루도 나누던 불같은 사랑이  
그 길우에 타올라  
나는 혼자여도  
언제나 사랑의 바다속에 잠겨사노라

오, 혁명의 성산이어!  
그대의 품에 아로새긴  
《고난의 행군》길을 따라걸는 이 마음  
우리의 마음은 영원히  
백두의 눈보라 가슴에 지너  
세계를 덮는 도도한 주체의 물결로 되리라  
위대한 수령님을 보위하는 길에서  
언제나 진두에 나뭇기는 기발로 되리라

## 김정숙어머님의 동상앞에서

윤승훈

나는 얼마전에 경건한 마음을 안고 또다시 영광의 땅 회령을 찾았다.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어머님에 대한 한없는 그리움과 끝없는 경모의 정을 안고 여러번 이곳을 다녀갔지만 울적마다 가슴속엔 어머님을 우러러따르는 뜨거운 마음이 못견디게 피여오른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혁명가들은 원수들의 겹겹으로 된 포위속에서도 철창속에서도 단두대에 올라서서도 결코 비관하거나 용기를 잃지 않았습시다. 그것은 그들이 자기가 하는 사업의 정당성을 굳게 믿고있었으며 공산주의위업의 승리와 광명한 앞날을 굳게 믿고있었기때문입니다.》**

위대한 수령님께 일편단심 충성을 다 바치신 어머님께서 걸어오신 그 빛나는 혁명로정을 감회깊게 돌이켜보며 유서깊은 땅을 생각에 잠겨 견느라니 이해의 첫눈이 못잇을 사연을 속삭이며 소리없이 내리고있었다.

소담스럽게 내리는 흰눈을 맞으며 오산덕기슭에 모셔진 김정숙어머님의 동상을 우러러 한발자국 두발자국 걸음을 옮기던 나는 크나큰 감동에 휩싸여 문득 발걸음을 멈추었다.

어머님의 동상이 모셔진 오산덕기슭에는 언제나 파사로운 봄날인듯, 내리는 눈송이를 송이송이 반기며 연분홍 진달래꽃이 활짝 피여있는것이 아닌가!

김정숙어머님을 따라배우는 붉은넥타이를 단정히 멘 소년단원들이 겨울철에도 꽃피운 그 정성이 꽃송이마다에 함뿍 어려있는듯, 어머님의 동상을 꽃속에 모시고싶은 그 뜨거운 마음들이 소리없이 아름다움 피여난듯, 상긋한 향기를 풍기는 진달래꽃은 어머님의 모습을 우러러 활짝 피여있었다.

나는 뭉클! 북받쳐오르는 걱정을 삼키며 눈석이 물에 함초롬히 젖어있는 진달래꽃송이들을 가슴에 안았다.

찾아오는 사람들을 반겨주며 무엇인가 속삭이듯 미소를 머금고 방긋이 피여나는 꽃송이와 꽃송이들...

반쳐든 두손에 내린 흰눈은 스르르 녹아 나의 눈굽에 맺히는 이슬인양 주르륵! 흘러내렸다.

흰 화강석계단과 하얀 조약돌우에 조용히 내려와 쌓이는 이해의 첫눈은 나의 생각을 어머님께서 걸어오신 백두밀림의 그 길우에로 이끌어간다.

눈내리던 밀영의 그 나날의 걸음이신듯, 백두의 흰눈을 맞으시며 어느 마을사람들을 찾아 밀림을 헤치시고 산발을 내리시는듯 우러러 가슴뜨거운 어머님의 모습...

아직도 위대한 수령님께 바치신 그 충성이 모자라신듯 먼 하늘가를 우렁이 바라보시며 항일무장투쟁시절의 행장을 풀지 못하고계시는 아! 김정숙어머님의 그 모습!...

얼마나 뵈고싶던 어머님의 모습이신가.

장군님의 높이신 뜻을 받들어 싸우시던 지하공작의 그 나날의 옷차림 그대로 가리마를 곁에 타시고 수수한 치마저고리에 목수건을 두르신채 위대한 수령님의 고전적로작 《조국광복회 10대강령》을 가슴에 꼭 안고계시는 김정숙어머님!

어머님의 모습을 우러르는 나의 머리속에는 눈보라 만리 불바다 수천만리 장군님을 모시고 헤쳐오신 김정숙어머님의 영광에 찬 혁명업적들이 불멸의 화폭인양 펼쳐졌다...

간고한 고난의 행군이 계속되던 어느날, 로약자들과 환자들을 간호할 책임을 맡으시고 청봉밀영에 들어가신 김정숙어머님께서 사령관동지의 혁명사상을 지켜 비타협적인 투쟁을 벌리신 숭고한 혁명정신은 오늘도 우리들의 가슴을 얼마나 세차게 울려주는가. 김정숙어머님께서 사령관동지의 혁명사상을 혈투하려는 엄가놈의 반혁명적주장을 사리정연하게 론박하시면서 놈의 악랄한 행위에 서리발같은 규탄을 내리시였다.

《우리는 조선인민혁명군대원이다.

우리는 **김일성** 동지의 전사다. 너는 누구냐? 너는 혁명의 원수다! 혁명은 네놈을 용서하지 않을것이다. 똑똑히 기억하라. 너는 혁명앞에 지은 죄로 하여 처단을 면치 못할것이다!》

그 어떤 고문과 모략으로도 위대한 수령님의 혁



명사상을 옹호보위하시려는 김정숙어머님의 변함 없는 신념을 꺾을수 없었다.

김정숙어머님께서서는 1939년 봄에 고난의 행군을 승리적으로 끝마치고 북대정자에서 진행된 조선인민혁명군 지휘관병사대회에서 반혁명종파분자인 엄가놈의 죄행을 낱알이 폭로하시였다.

《사령관동지의 혁명사상을 목숨으로 지킵시다!》 이것은 우리의 가장 숭고하고 영예로운 임무입니다!

사령관동지의 뒤를 따라 전진하는 우리의 앞길을 그 어떤 간악한 원쑤도 막지 못할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난관을 물리치고 사령관동지를 따라 조국진군의 길로 힘차게 나아갑시다!...》

이 얼마나 사람들의 가슴가슴을 격동시키는 친위전사의 신념에 찬 말씀이신가!

《사령관동지의 혁명사상을 목숨으로 지킵시다!》 오늘도 이 말씀은 저 멀리 백두의 밀림을 흔들며 우리의 귀전에 쟁쟁히 들려오는것만 같다.

김정숙어머님께서서는 장군님을 가까이 모시고 싸우실 때나, 그리운 사령관동지의 품을 떠나 멀리에서 혁명투쟁을 하실 때나 언제 어디서나 오로지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사상과 의지대로만 사고하시고 행동하시였다.

1940년 초여름, 대사하치기에서 사령부쪽으로 은밀히 기여드는 원쑤들을 한눈한눈 쏘아눕히시며 위기일탈의 그 순간에 사령관동지를 온몸으로 막아나서시였던 불멸의 그 이야기는 또 얼마나 감동적인가!

사령관동지를 따라 압록강을 건너 조국땅에 들어서시였을 때 활짝 피어난 조국의 진달래를 품에 안으시고 장군님을 모신 끝없는 행복과 기쁨에 대하여 너대원들과 속삭이시던 김정숙어머님!...

강도 일제를 때려부시고 조국에 개선하신, 건국사업의 그 바쁜신 나날에도 김정숙어머님께서서는 위대한 수령님의 결을 한시도 떠나시지 않으시고 그이의 안녕과 건강을 지켜드리시였으며 충성의 해발이 되시여 그이의 높이신 뜻을 꽃피워나가시였다.

참으로 불요불굴의 공산주의혁명투사 김정숙어머님의 한생은 위대한 수령님을 높이 우러러모신 충성의 한생이었으며 그이의 심리를 덜어드리고 가장 큰 기쁨을 드리신 친위전사의 숭고한 혁명력사였다...

나는 강사의 설명을 새겨들으며 김정숙어머님께서 탄생하신 키낮은 초가집의 수수한 결방과 소박한 살림도구들을 돌아본 다음 오산덕언덕길에 올랐다. 내 지금 그 어떤 땅우를 걷고있는것인가.

오늘 김정숙어머님께서서는 력사의 강, 두만강의 물결소리 높은 조국의 복단 여기 회령땅에 꽃피는 사회주의락원을 바라보시며 영원한 모습으로 서계신다.

그처럼 바라시던 어머님의 념원이 햇빛밝은 사회주의 이 강산에 찬란히 펼쳐졌건만 1930년대의 그 모습으로 조국의 한기슭에 서계시는 김정숙어머님!...

그렇다. 어머님께서 남기신 빛나는 혁명업적은 온 나라 인민들의 가슴속에 길이 살아있거니, 김정숙어머님께서 계시는곳을 어찌 여기 회령만이라 하랴.

위대한 수령님의 가르치심을 높이 받들고 3대혁명의 기발높이 사회주의대건설을 힘있게 밀고나가는 우리 인민들이 있는곳 그 어디에나 김정숙어머님께서서는 그날의 그 모습으로 영원히 살아계시며 우리들을 충성의 한길로 이끌어주오계신다.

나는 후더위오르는 마음을 달래이지 못하고 김정숙어머님의 동상앞에 오래도록 서있었다.

가장 고결하고 숭고한 어머님의 그 충성을 속삭이며, 노래하며 뜻깊은 흰눈이 내리고 내린다.

위대한 수령님께 모든것을 다 바치신 김정숙어머님의 그 모습을 못잊어, 가장 맑고 깨끗한 친위전사의 그 충성심을 수놓으며 송이송이 피어난 진달래, 조국의 진달래...

아, 위대한 수령님을 어떻게 높이 받들어야 하고 그이께 기쁨을 드리기 위하여 혁명가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변함없는 친위전사의 모습으로 가르치시는 불요불굴의 공산주의혁명투사 김정숙어머님!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의 불길높이 온 사회를 주체사상화하는 장엄한 혁명의 행군길에서 우리 인민들이 서야 할 위치와 자세를 말없이 가르치시며 멀리 백두산이 바라보이는 여기 오산덕기슭에 불멸의 모습으로 서계시는 우리의 어머님 김정숙어머님!...

아, 오늘도, 래일도 영원히 조선의 어머니 김정숙어머님께서서는 위대한 수령님의 가장 가까운곳에 계시며 그이를 충성으로 높이 우러러모시여라!

## 우리는 자란다

권장석

## 1

두줄기 궤도우에 네쌍의 무쇠바퀴를 달고 건동농인 숙영차에 무슨 살뜰한 정이 붙으랴. 심산속의 외진 령에서 령으로 떠다니는 전기철도건설자들의 집, 단조롭고 간소한 그 집은 언제나 려행자들의 눈길에 스치는 철길연선에 무료히 서있었다...

현장에서 돌아온 선령은 석별의 정을 안은 모든 처녀들이 그러하듯 지금까지 자기가 살던 숙영차를 하염없이 바라보았다. 이제 그는 새로 파견된 3대 혁명소조원만 도착하면 정든 숙영차를, 이곳 장준범중대를 영영 떠나가야 하는것이다.

멀리에 있는 고향집은 이맘때의 늦봄이면 구기자 울타리가 싱싱하고 포도덩굴이 질푸르군했었다. 선령의 방은 그 포도덩굴이 군청색 하늘을 배경으로 소녀의 꿈처럼 아지를 치며 풍성하게 걸린 아담하고 따스한 남향이었다. 방안에는 그의 섬세한 취미를 만족시켜주는 다양한 가구들과 생활도구들이 알맞춤하게 갖추어져있었다. 사랑하는 부모의 슬하에서 다정한 형제들과 의좋게 살던 그 집을 두고 입학한 대학으로 떠나갈 때도 선령의 마음은 지금처럼 섭섭하진 않았었다.

대학은 또 얼마나 좋았던가. 《대학춘》이라고 부르던 그의 배움터는 뒤에 꽃과원을, 앞에 푸른 동해를 거느린 소나무숲속의 과학전당이였다. 짧은 가슴에 학구심을 불러일으키던 도서관이며 실험실이며 강의실 그리고 하루 휴식을 즐기며 소설책도 읽곤하던 불밝은 기숙사의 호실... 짧지 않은 5년세월을 과학탐구로 하루같이 보내던 대학을 뒤에 남기고 친근한 학우들의 전송을 받으며 3대혁명소조원으로 떠나올 때도 그의 감회는 지금처럼 깊진 않았었다...

선령은 맑디맑은 산골샘이 주절거리며 모여흐르는 시원한 개울물에 얼굴을 씻었다. 그리고 숙영차의 자기 방에 들어가 어지러워진 작업복을 실내에서 입는 수수한 달린옷으로 갈아입었다. 두어시간 전만 하여도 이곳 백구령 40리 령길우에 꼬리를 물고 뚫린 차굴속을 기관차승무원들과 함께 기관차를 타고 오르내리면서 《연기덕가래》라고 하는 창안품의 마지막 통과시험을 끝내기에 여념이 없던 그였다. 마침내 성공의 기쁨을 안고 기관차에서 내렸을 때, 멀리 령아래 가선대대에 나와있는 려대혁명소조책임자로부터 오는 전화가 선령을 기다리고있었다. 후임이 떠나갔으니 그에게 사업을 인계하고 내려올 준비를 하라고 말이다...

머리손질까지 끝낸 선령은 인계문건을 꺼내놓고 책상앞에 나앉았다. 문건이라고 해야 별게 없었다.

중대에 대한 료해자료와 보고서철 그리고 사업일지였다. 책상우에는 그밖에도 글쓴 종이장들과 세련으로 된 《파견지와 나》라는 두툼한 일기장이 쌓여있었는데 그것들은 모두 그자신의것이였다.

선령은 먼저 료해자료철을 집어들고 갈피를 번졌다. 인계도 인계지만 이제 헤어지면 언제 다시 만날지 모를 장준범중대에 무엇인가 더 해줄수 있었던 일을 그대로 남기고 가는것만 같아서였다.

《정말 없단말인가?... 아니, 아무리 모범중대라고 하더라도 없줄수가 없어.》

하고 선령은 다시 사업일지에 손을 내밀었다. 한장, 두장... 그가 다하지 못한 그 어떤 일이, 당장 해결을 바라는 문제들이 료해자료속에 있단들 때는 이미 지나가지 않았는가. 새 혁명소조원은 이 시각이라도 숙영차의 저 출입문을 주인답게 열고 들어설수 있다. 그리고 선령이자신은 아버지수령님께서 다시 맡겨주실 새 일터로 지체없이 떠나가야 할 몸이다. 하지만 그는 장준범중대를 위해서도, 새로 파견되어오는 혁명소조원을 돕기 위해서도 더 할수 있었던 무엇을 못하고 떠나가게 되는가를 알려라도 주고싶었다. 문건에 의한 실무적인 인계가 아니라 혁명적동지애에 기초한 그런 인계가 무엇보다 중요한것이다.

한해전, 그때 선령은 수고를 먼저 하고간 석남철 혁명소조원의 자취만 남아있는 장준범중대에 파견되어왔었다. 철도대학 남학생이던 그는 선령이가 도착하기 한달전에 벌써 떠나갔었다. 새 부임지가 석남철을 기다리고있었다. 때문에 그는 자기의 교대자로 파견되어오는 수리대학 녀학생 3대혁명소조원인 선령을 만나볼수 없었던것이다.

선령은 사업을 벌려온 날자에 비해 그동안 해놓은 일이 적고 변변치 못할 때마다 아버지수령님께 바치는 자기의 충성심을 재여보게 되는것이였다. 그리고 얼굴도 모르는 석남철을 생각하군했었다. 만약 그를 만나 도움을 받았더라면 좀 더 많은 일을 할수도 있었지 않았겠는가.

부피 두터운 사업일지도 뒤뚜껑만 남았다. 그다음 선령의 손에 무심히 들리운것은 《파견지와 나》라는 일기장이였다. 혹시 앞날의 계시가 지난날속에 숨어있을지 누가 알랴. 그는 파견초기에, 분명 물질이 생긴 손으로 썼을 다음과 같은 자기의 글줄에 눈길이 끌리였다.

《197×년 5월 ×일. 금요일. 백구령의 봄은 이제야 오는듯싶다.

...한달 이틀이 흘러가고있다.

나는 오늘에야 비로소 내가 앞으로 무엇을 어떻게

게 해야 하겠는가를 알게 된것 같다. 장준범중대는 지난기간 석남철동무의 도움을 받아 락후하던 중대로부터 비교적 우수한 중대로 꾸러졌다. 이전에 중대는 일부 지휘관들의 관료주의적사업 작풍과 방법으로 해서 발생이 좀 많았다고 한다. 중대에 정을 붙일수 없었던 대원들은 가졌다오겠다하면서 일을 잘하지 않았다고 한다. 그런 중대를 석남철동무가 파견되어와서 바로잡아놓았었다. 지금 련대전투속보가 정당하게 쓰고있는것처럼 장준범중대는 이번에 아버지수령님의 강령적교시를 높이 받들고 가장 어렵고 힘든 공사구간을 자진맡았으며 그 기일단축에서 자기들의 충성심을 남김없이 보여주고있다. 내가 한달이 넘도록 자기가 할 일을 찾을수 없었던것도 결국은 장준범중대가 우수한 집단이라는데 있었다. 그런데 오늘 나는 무심히 스쳐버릴수 없는 심각한 문제를 포착하게 되었다...》

## 2

서북의 높고 험준한 산밭이며 깊숙한 골짜기들에는 먼지 오른 꺼먼 눈판이 아직도 얼룩소의 흰점처럼 남아있었다.

멀리 령아래 보이지 않는 산간역에서 이따금씩 뿜어대는 기관차의 기적소리가 유난히도 크게 메아리쳐왔다.

하늘에는 크림덩이같은 오묘한 흰구름이 동실 뜨고 따스한 해빛은 사나운 바다처럼 펼쳐진 산악을 어루만지며 가볍게 뛰놀았다.

한손에 조막도끼를 든 선령은 학생모를 벗어 땀얼굴에 부채질을 하며 눈길 닿는대로 바라보았다. 류다른 자연이었고 인상깊은 봄이었다. 다감한 그는 종일토록 바라보아도 싫을것 같지 않았으나 아쉬운 표정으로 다시 산비탈을 내리기 시작했다. 뒤에서는 골방에 매달린 팔따시만한 나무 몇가치가 묵은 락엽을 파헤치며 끌리워왔다. 나무짐은 천막을 칠 번침대들이었다.

장준범중대는 차굴이 아니면 구조물과 같은 거창한 공사들을 다그치고있었다. 공사현장은 구불구불 돌아오른 철길을 따라 40리 길에 널린데다가 지선조차 없는 해발 890미터의 높고 험한 고산지대였다. 그래서 중대의 전용 숙영차는 역구내를 확장하는 이웃 중대에 넘겨주고 자신들은 천막생활을 하고있었다. 중대식당 하나만이 샘물이 솟는 철길가의 산턱을 깎고 세운 판자집이었다. 공사가 끝나면 헐어버릴 집이었으나 중대의 《소목》들로 불리우는 재간둥이들은 대를 물리며 살것처럼 동기와화각 지붕을 땀시나게 엮고 주방뒤에는 두간의 온돌방까지 꾸려놓았었다.

지금까지 선령은 장준범중대장의 권고를 마다할수가 없어 그중 하나의 온돌방을 쓰고살았다. 하지만 오늘 그는 자기 방을 중대의무실로 꾸려주고 다른 사람들처럼 천막을 치기로 한것이다...

선령은 문득 걸음을 멈췄다. 중대부천막 세채가 철길결에 하얗게 줄지어앉은 뒤길로 넘적한 돌을 안고오는 제2소대의 조재길청년을 알아보았던것이다.

(저 동무가 어떻게 올라왔을가?... 저 돌은 또?...)

관돌이 어디에 필요한지도 궁금했지만 그보다 의문스러운것은 조재길이가 중대부에 나타난 사실이었다. 조재길이네 소대는 매골과 죽논골을 련결한 13호차굴에 내려가 천장에 애자구멍뚫기전투를 벌리고있었다. 전차선을 늘이기 위한 어려운 전투였다. 전투는 시간적제한을 받는데다가 작업조건마저 불리해서 계획도의회때 늘려놓은 공사기일을 지키느냐 못지키느냐 하는 문제가 제기되고있었다. 그래서 오늘부터 최후돌격을 벌리기로 했던것이다. 선령이가 천막치기를 서두르는것도 사실은 그곳으로 내려가보자는데 있었다. 그런데 자기 소대와 함께 13호차굴속에 있어야 할 조재길이가 지금 어디에 와있는가...

조재길이기도 언제 벌써 선령을 보았는지 안고오던 돌을 던지듯 놓고 마주 걸어왔다. 호양호양한 몸집, 아직 솜털을 벗지 못한 얼굴... 고등철도전문학교를 졸업하고 전철련대로 달려온 열아홉살청년인 그의 모습은 어느모로 보나 곱살하게만 생겼다. 그러기에 장준범중대장은 현장을 함께 돌아보던 첫날 조재길을 선령에게 인사시키면서 웃는 말까지 했었다.

《두사람이 이렇게 나란히 마주서니 신통히두 오누이같구만요.》

아닌게아니라 조재길은 선령이와 비슷한 점이 많았다. 미소를 지을 때 선령의 부드러운 볼에 나타나 군하는 귀염성스러운 보조개가 조재길에게도 있었다. 타고났건, 문명의 혜택을 받았건 두사람 다 물결이 부드럽게 흐르는 굽실굽실한 검은머리를 가졌다. 미끈하게 빠진 키와 쌍가풀이 진한 고운 눈은 선령이보다 다섯살아래인 조재길의 편이 좀더 커보였다. 그는 혼치 않은 미남이였지만 그때문에 사나이다운 역센 기상, 맺힌 알심이 느껴지지 않았다.

《이리 주십시오, 소조원동무.》

다가온 조재길은 선령이앞에 손을 내밀었다.

《절로 슬슬 내려오는군요. 그런데 어떻게 올라오나요?》

하며 선령은 나무짐골방을 조재길에게 넘겨주었다. 조재길은 나무짐을 살펴보고 이것저것 사내답게 손질하면서

《사실 이럴줄 알구 좀 빨리 올라온다는게 그만...》

하고 혼자소리로 중얼거렸다.

선령은 짚이는데가 없지 않았다. 오늘아침에 장준범중대장은 천막을 치겠다는 혁명소조원의 의견을 다른 때처럼 밀어놓을수 없게 되자 방조자를 불

이려고 했었다. 그러나 선생은 진심으로 거절해나섰다. 대학시절에 군사야영을 나가서 많이 해오던 《집짓기》여서 그에게는 눈익고 손익은 일이었다. 만약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선생은 결코 자기천막치기에 다른 사람들은 불이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니 재길동문 저때문에 올라왔군요. 중대장동무가 보내던가요?》

《보내면서 창고에 있는 각재목을 내다쓰라고 하더군요. 그런데 글썄...》

《괜찮아요. 천막엔 통나무가 더 좋아요. 그래 지금 소대일은 어떻게 돼가요? 어려운 고비는 이제부턴데...》

《관관적입니다. 4소대가 지원까지 왔으니깐요.》

《4소대가?》

《12호차굴 가선작업을 앞당겨 끝냈다고 합니다.》

《그건 정말 기쁜 일이군요. 그렇지만 주인인 재길동무가 지원자들의 앞장에 서서 공사를 마지막까지 끝낼 생각을 못하고 올라온것은 좀 잘못된 일인 것 같아요.》

《중대장동지가 빨리 가보라구 하기에...》 하다가 조재길은 얼굴을 붉히며 돌아서더니 나무짐을 끌었다.

그뒤를 따라 걷는 선생의 생각은 깊어졌다. 차굴천장에 애자구멍뚫기와 같은 어려운 전투는 필요한 모든 기계수단을 가지고도 완력이 드센 적당한수의 대원들만을 요구한다. 따라서 좀 약하다고 인정되는 사람들은 로력이 새로 보충되거나 또 힘겨워하는 눈치만 보이면 쉬운 일에 립시 따돌리운다. 이런 경우에 어떤 대원들은 물러서지 않고 뻔쳐내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모두숨을 은근히 내린다.

선생은 마음이 무거웠다. 최후돌격에서 물러나는 나약한 청년이 앞으로 어떻게 아버지수령님께서 심려하시는 현실의 벽찬 문제들을 받아안고 원만히 해결해나가겠는가. 어려운 일이 제기될 때마다 따돌리우는 그런 《특혜》를 받아버렸하면 이제 닥쳐올수도 있는 준엄한 난관과 시련을 자기스스로는 한발자국도 헤쳐나가지 못할 것이다.

(확실히 여기에 문제가 있구나.)

선생은 사람들을 파악하고 평가함에 있어서 한가지 원칙을 지키고있었다. 그 원칙이란 대상의 과거가 어떻든 현재만을 중시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그는 조재길이 자라는 환경과 사회진출경위, 그리고 반년도 안되는 로동생활과정을 돌이켜보지 않을수 없었다.

딸 많은 집 외아들로 태어난 조재길은 자기 집안에서 금이야 옥이야 하는 귀한 존재였다. 출다거나 배고프다는것을 소설책에서나 읽어본 그가 대학에 앞서 로동현장을 먼저 지망한것은 두말할것도 없이 사회적영향과 교육이 준 힘이였다. 하지만 그보다

중요했던것은 푸른 꿈이 안겨주는 위훈에 대한 갈망이었다.

조재길은 학교를 졸업하자 곧바로 전철련대로, 그것도 랑만이 있어보이는 가선대대 장준범중대로 자원해왔었다. 하지만 첫 일터는 그에게 위훈의 작은 문도 값늑게 열어주려고 하지 않았다. 초기에 재길은 놀랄만한 열정을 가지고 몇건의 창안과 합리화를 런이어 제기했으며 또 실현하려고 뛰어다녔다.

하지만 후일 그자신조차 무색할 정도의 허황한 착상, 분별없는 노력이었다는것을 인정하지 않을수 없었다. 거듭되는 실패, 엄혹한 자연과의 투쟁, 산에서 산으로, 령에서 령으로 옮기는 쉽지 않은 생활... 어느덧 조재길의 곱살한 얼굴에는 희망으로 빛나던 맑은 웃음대신 만사를 귀찮게 여기는 우울이 짙게 어리였다. 장준범중대장은 창격전을 방불케 할수 있는 돌격작업이나 만일의 경우를 생각하여 의지력이 필요한 일이 제기되면 《재길동문 중대부에 올라가서 권선기를 수리하시오. 칠판도 한개 더 필요하오.》 혹은 중대의 협동작전이 제기되어 전체 인원이 필요치 않으면 《재길이, 오늘은 가서 창고장동무를 도와주라구.》 하는 것이였다. 그러면 조재길은 명령에 충실한 전사처럼 말없이 권선기도 수리하고 칠판도 만들고 파손된 공구도 고쳐놓곤했다. 무엇이나 보기만 하면 만드는 재간등인데다가 머리 또한 총명해서 그의 손이 닿기만 해도 맵시가 있었고 쓰기가 편리했다. 장준범중대장과 그의 대원들은 조재길의 그러한 솜씨를 린색하지 않게 칭찬했다. 조재길은 자기의 새 《집》으로 된 중대를 찾아 꿈을 안고 달려오던 그때처럼 기뻐하지는 않았다. 그렇다고 하여 싫어하지도 않았다.

이번에도 조재길은 최후돌격에서 순순히 물러선 것이다.

(문제는 사상의지적인 나약성에 그 원인이 있다. 그때문에 재길은 첫고비를 제대로 넘기지 못하는 것이 아닌가!)

마라손선수인 선생의 오빠는 출발의 첫 30리를 완강한 의지력을 요구하는 가장 어려운 고비라고 말하곤했었다. 따라서 높은 영예의 등수도 첫고비를 어떻게 이기고 넘어서는가에 달렸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벽찬 투쟁의 현실속에서 더 많이 배우고 단련해야 할 조재길이가 힘든일 앞에서 주저하고 뒤걸음치는 원인이 그자신에게만 있을가? 아니다. 조재길을 그렇게 만드는 사람에게도 문제가 있다.

(그 사람은 누구인가?)

아직은 두고봐야 알겠지만 그 사람은 분명 장준범중대장일 것이다.

천막칠 자리에 내려온 선생은 조재길을 그대로 돌려보낼가 하다가 다시 생각하고

《그러지 않아도 재길동무의 솜씨를 한번 보고싶

있어요. 그런데 저 둘은?》

하며 철길쪽가에 던져진 판돌을 눈으로 가리켰다. 조재길은 작업복주머니에서 네겹으로 접은 종이장을 꺼내더니 그것을 선령의 앞에 내밀었다. 구들 굽을 가열식으로 놓게 된 온돌도면이었다.

《〈대중과학〉 최근호에 나온 새로운 형의 온돌입니다. 소조원동무의 천막에 한번 놓아볼가해서…》

《천막을 치고 온돌을 놓아요?》

《먼저 온돌을 놓고 천막을 치지요.》

《정말 놀라운 생각이군요.》

하고 선령은 동의를 표시하고나서 덧붙였다.

《그렇지만 재길동무, 우리 이제 다음 구간으로 가면 그때 이 온돌을 모든 천막들에 놓지요. 이번에는 저도 다른 동무들처럼 온돌 없는 천막에서 지내겠어요.》

《소조원동문 안됩니다.》

《구별하는군요?》

《이곳 밤은 아직도 몹시 차갑습니다. 이제 비까지 내리면 얼마나 참기가 힘들다구요. 어쨌든 소조원동문 녀성이라는것을 부인할수 없지 않습니까?》

녀성이라는 단어가 조재길의 입에서 특별히 강조되고있었다.

(남자의 자부심과 긍지감은 살아있구나.)

선령은 생각하고 말했다.

《그래요. 녀자가 녀자라는것을 부인한다고 해야 남자로 될수는 없어요. 전 부인하지 않아요. 그렇지만 녀자들은 모든 면에서 약하기때문에 응당 특혜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견해만은 부인하고싶어요. 왜냐 하면 난판과 시련 앞에서 녀자보다 강하지 못한 그런 남자들도 없지 않으니깐요. 문제는 성별의 차이에 있는것이 아니라 제기된 곤란을 어떤 신념과 의지를 가지고 이겨나가는가 하는데 있다고 봐요. 그렇지 않을까요?》

선령의 물음에 조재길은 침울하게 응대했다.

《누구나 말은 그렇게 하는데 실천이 따라가지 못하는 경우가 더 많은것 같습니다.》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나요?》

《거야 물론 사상적준비정도가 낮는데 있다고 봐야지요.…》

《원인을 알면 누구나 자기를 고칠수 있어요. 우리 청년들이 지금 얼마나 영예로운 전투과업을 맡아하고있어요. 우리가 철도전기화공사를 하루빨리 앞당겨 아버지수령님께 기쁨을 드릴 그때를 생각해보세요. 우리한테 정말 어려운 일이 있을수 없어요. 그러구 재길동무, 의지가 약하다면 우리같이 투쟁속에서 의지를 키워나가자요.》

조재길은 말없이 입술을 지그시 깨물며 머리를 수그렸다. 비록 대답은 없어도 함께 고치자는 선령의 말을 받아들이는것 같았다…

그날저녁 소대장들까지 참가한 중대참모회의가

중대부천막에서 열렸다가 밤이 이슬해서야 끝났다.

선령은 참모성원들과 소대장들이 돌아간 다음에도 장준범중대장과 기술부중대장을 상대로 이야기를 계속했다. 참모회의의 결과가 말해주듯이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결의목표대로 나아가고있는 중대라 공사와 관련되는 다른 문제란 있을수 없었다. 제기된다면 다섯개의 주력소대들이 차굴속에 서리군하는 기관차연기속에서 전투를 벌리는 애로라고나 할가, 그러나 전철련대가 생겨 지금까지 같은 조건에서 같은 방법으로 철길을 낮추고 조가선을 늘인다고 하니 보통 간단한 문제는 아닌듯싶었다.

《용광로에서 쓰는 4천마력같은 송풍기가 한대 있었으면 좋겠소. 한번 뚫다 불어보게, 아마 5리가 아니라 10리 차굴속두 말끔히 가서낼수 있을거란 말이요. 젠장, 내 입김이라두 좀 쐈으면…》

하고 장준범은 마주앉은 책상에 다부진 상체를 실으며 소리내여웃었다. 하관이 피지고 알근육이 불근거리는 그의 얼굴은 시험에서 어지간히 단련된 권투선수를 연상케 했다. 하긴 무서워하는것이 조금도 없어하는 서른 나이의 민첩하고 힘세고 단단한 청년지휘관이다.

《재길이가 여기 오자마자 <연기덕가래>라는 소리를 하더니 이번에는 중대장동무까지 동화적환상같은 말을 하는군요?》

얼굴이 부알지고 몸집이 우람한 기술부중대장의 어리무던한 말이다.

장준범은 기술부중대장을 가볍게 나무랐다.

《그게 왜 동화적환상같은 말이겠소. 4천마력짜리 송풍기가 귀하구 그게 또 대포루 참새 잡는격이 돼서 그렇지, 여기 한대 있기만 해보소. 가능성중에서도 가장 현실적인 가능성으로 되지 않나.》

《현실적가능성으로 되면 뭘합니까. 중대장동무가 말하대십이 대포로 참새 잡는격인데. 그건 결국 동화속의 주인공들이 바라는 리상에 불과하지요.》

《허허… 이거 또 기차바퀴가 고무바퀴라구 고집을 부리기 시작하는군. 아무래도 소조원동무가 판결을 내려야 할것 같습니다.》

두 지휘관이 룡조로, 그러면서도 양보없이 주고받는 논쟁을 흥미있게 듣고있던 선령은 당황한 표정을 지으며 앓음새를 고쳤다. 하지만 그는 인차 역실역실한 눈을 시원스레 들고 보조개가 꽤우게 웃음을 지으며 말했다.

《그럼 할수 없군요… 우선 기술부중대장동무는 그것이 비록 동화적환상같은것이라고 하더라도 그속에 현실적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연구하고 발전시키고 실현하는 우리 시대 기술일군다운 립장에 튼튼히 서야 할것 같고, 다음 중대장동무는 현실적가능성중에서도 가장 현실적가능성이라고 확신하면 꼭 4천마력짜리 송풍기가 아니라 하더라도 그와 류사한 방법으로 제기된 난관을 해결하기 위해

서 지휘관답게 투쟁해야 할것 같군요.》

《그러니 결국 이런 경우는 저런 경우든 해야 한다는 판결이군. 기술부중대장동무, 뭐가 되든 하긴 해야 하겠구만!》

부추겨대는 장준범중대장의 말에 기술부중대장은 시침을 따고 받았다.

《난 싫수다. 어째서 소조원동무의 판결이 중대장동무편에 더 유리하게 떨어지는가말이요? 이거야 싫어서 살겠소.》

《싫으면 울어야지.》

하고 장준범중대장이 호탕하게 웃어제꼈다. 선령의 입가에도 웃음이 어렸다. 기술부중대장은 사람쫓게 꺾꺾거렸다. 분위기는 더없이 좋았다.

《그런데말이에요.》

천막안이 좀 진정되자 선령이가 먼저 말문을 열었다.

《아까 그 재길동무의 <연기억가래>란게 뭐인지 좀 자세히 들려줄수 없겠어요?》

《그게 바로 기술부중대장동무의 견해대루 하면 동화적환상과 같은것이지요.》

하고 장준범중대장은 책상우에 백지 한장을 내놓더니 원주필로 차굴문과 마주선 증기기관차 한대를 그렸다. 그런데 증기기관차의 허리에 방패같은것을 둘러놓았다. 다시말해서 증기기관차 기관실앞쪽 바깥벽에 차굴문처럼 말발굽형의 철판을 네개의 조각무이로 해서 달았다 뗐다 하게 되어있는데 그것이 바로 차굴속의 연기를 밀고나가는 녀가래라는 것이다.

우리 나라 어느 령에 철도전기화를 하든지간에, 아무리 차굴이 많은 구간이라고 하더라도 《연기억가래》를 몇틀만 만들어놓으면 된다고 한다.

장준범중대장은 여기 백구령을 실례로 들었다. 동북쪽을 향해 백구령을 넘어가야 할 증기기관차는 령 입구인 口역에서 《연기억가래》를 달고 반대편 첫차굴입구인 乙역에 가서 뎀다. 그 《연기억가래》는 이번에 서남쪽을 향해 乙역을 떠나는 증기기관차에 설치되어 다시 口역으로 넘어와서 같은 순환을 반복하게 된다. 만약 《연기억가래》가 동화적환상같은 착상만 아니라면 전기철도건설자들을 굴속의 연기에서 해방시킬뿐아니라 공사기일을 지금보다 배나 앞당기면서도 작업을 난장이나 다름없이 할수 있다는것이다. 그러나 과거 일본제국주의자들이 대륙침략을 위해 제멋대로 뚫어놓아서 매개 차굴의 넓이와 높이, 그리고 동일하지 못한 철길중심으로 하여 《연기억가래》를 달고다닌다는것은 거의 불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리게 되었다. 그것도 어느 한두사람의 견해가 아닌것은 더 말할것도 없다.

《...그래도 우리는 그때 본인의 열성이 하도 높기 때문에 방조자까지 붙여주었지요. 동무가 하고싶은

대로 해보라구. 그후 재길은 한주일동안 차굴조사를 하면서 백구령 40리길을 돌아보구 오더니 자기 입으로 헛수고를 했다구 말하더군요.》

기술부중대장이 장준범중대장의 말에 주를 달았다.

《사실 말이지, 중대장동무는 재길이가 나갔다는 다음 내게 다시 파업을 주었지요. 그래서 토의해볼 만한데는 다 찾아가고 또 령길도 걸을만큼은 걸었습니다.》

선령은 이해할수 있었다. 이제 좀 더 깊이 알아보아야 하겠지만 아직 동화적환상같은 착상에 불과한 것만은 사실이였다. 설사 가능성이 충분한 경우에도 지금의 조재길이로서는 도저히 해결할수 없을것이다.

선령이가 자기의 의견을 내놓자 장준범중대장도 수긍했다.

《재간은 좋은 청년인데 아직 거칠은 일에 단련이 부족해서 할수 없지요.》

《육체적단련도 물론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문제는 어버이수령님의 교시를 훌륭히 관철하려는 사상적준비정도와 어떤 곤란도 이겨내야 한다는 정신적자세에 있다고 봐요. 재길동무에겐 아직 그것이 부족해요. 그 동무도 다른 사람들 못지 않게 몸이 좋은 편이더군요. 문제는 중대의 모든 대원들을 혁명적실천을 통해서 사상정신적으로뿐만 아니라 육체적으로도 굳센 의지를 가진 수령님의 참된 전사들로 키우는데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자면 우선 재길동무처럼 의지가 약한 대원들일수록 자기 소대에서 절대로 리탈시키지 말아야 하지 않을까요? 그들자신이 의지의 첫 고비를 넘기도록말이에요.》

천막치는 일을 도와주라고 조재길을 마지막 돌격에서 떼낸 오늘 있는 일까지 말하고나니 선령의 기분이 아까처럼 유쾌하지 못했다.

침묵이 흘렀다.

장준범중대장은 덤덤히 듣고만 앉아있다가 긴숨을 내쉬며 말했다.

《소조원동무두 알고있겠지만 난 지난날 대상을 고려하지 않고 중대를 우격다짐으로 지휘했지요. 자연과의 투쟁이라는 원인도 있었지만 그보다는 내게 원래부터 인간성이 부족했던탓이지요. 그러니 무슨 일이 바로 되었겠습니까. 적지 않은 대원들이 매정한 중대장에게 의견을 가지구 말썽을 부리면서 다른 대대로, 혹은 이웃 중대로 가겠다구 성화지요. 나는 일이 뜻대로 되지 않자 판료주의까지 마구 부리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그때 석남철동무가 과견되어와서 나를 적극 도와주었으니 망정이지 그렇지 않았더라면 내가 무슨 일을 저질렀을지 모릅니다. 석남철동무는 인간성이 말라버린 내 판료주의적사업작풍을 자기 모범으로 가르쳐주었지요. 나때

문에 그 동무가 정말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모릅니다. 그후 내게 인간성도 좀 생기고 <말썽군>도 없어지기 시작하자 모든 일이 절루 풀려나갔습니다. 그제야 비로소 나는 자기의 결함을 깊이 뉘우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글썄 석남철동무는 우리 중대를 한가정처럼 묶어세우기 바쁘게 <안녕히들 계십시오!> 하는것이 아니겠습니까. 여기 기술부중대장 동무두 앉아있지만 난 그때 막 붙들구 울구싶었습니다.》

섬섬한 감회가 권투선수같이 생긴 장준범중대장의 네모진 구리빛 얼굴을 슬픔에 잠긴 소년처럼 만들었다.

선령은 하고싶은 말이 한두가지가 아니었다. 행복하게 자란데다가 단련이 부족해서 작은 시련앞에서도 인차 물러서는 청년들을 어루만지기만 하는 눈먼 사랑의 유해성에 대하여, 결과가 가져다줄 업중성에 대하여, 매개 대원들이 사상적으로 준비될 뿐아니라 강한 혁명적의지를 가질 때만이 그 중대도 위력한 집단으로 될수 있다는데 대하여… 하지만 그보다 더 하고싶었던 말은 석남철의 말을 극단에서 극단으로 받아들이고있는 장준범중대장의 잘못을 깨우쳐주고싶은것이였다. 그러나 선령은 석남철이 해온 지난기간 사업에 무슨 잘못된 점이라도 있는듯한 인상을 장준범중대에 줄것 같아서 입을 다물었다.

(사람이란 정말 복잡하구나.)

누가 듣는다면 웃음거리로 되겠지만 그는 지금 사람들을 천진하고 단순한 처녀의 눈으로가 아니라 산전수전 다 겪은 어머니들의 눈으로 보는듯싶었다.

장준범중대장은 때늦게나마 자기 말이 다른 방향으로 흘렀다고 생각한것 같았다.

《하여튼 재길동무를 끝끝한 대원으로 키워봅시다. 그런데 철도공사를 처음 해보는 그 동무가 육체적곤란을 이겨내겠는지… 지나간 일이지만 재길이라도 한때 <말썽군>의 한사람이었던답니다.》

《알겠어요. 그런 문제는 우선 중대장동무하고 제가 말도록 하자요.》

비를 몰아올 서남풍이 불어치는듯 천막이 갑작스레 푸들럭거렸다. 백구령을 마치못해 찾아오던 봄이 되돌아서는것이나 아닌지?… 선령은 바람에 항거하여 오르내리는 천막이 자기 가슴속에서 뛰노는것을 느끼며 자리에서 무거워지는 몸을 일으켰다.

### 3

《파견지와 나》의 폐지들은 선령의 눈앞을 스쳐 지나갔다.

《197×년 6월 ×일. 금요일. 흐림.

…<동화적환상같다구 누가 말했는지 아주 그럴듯하오. 연기억가래라… 처녀동무, 용서하십시오. 그

건 아무리 생각해두 시집가기전에 아이이름부터 먼저 짓는격이란말이요> 부소장동지, 인민학교 학생도 여기 이 산뜻하면서도 으리으리한 사무실에 앉혀놓으면 그런 말을 할순 있어요. 나는 철도설계연구소 청사를 나와서야 이런 말을 해주지 못한것을 분하게 생각했다. 하긴 오늘 처음 당하는 일은 아닌것이다.…》

《197×년 6월 ×일. 월요일. 달무리. …언니, 그리고 아저씨! 욕 많이 할줄로 알아요. 어찌다가 올라온 평양이고 만나본지도 3년세월이 되는데 무정하게 쪽지편지만 넣고간다고. 그렇지만 용서하세요. 저는 오늘 다섯개의 기관을 찾아가서 일을 보고 저녁차로 다시 떠나가야 해요. ××철도공장으로…》

《197×년 6월 ××일. 금요일. 보슬비. …편리화 앞부리가 언제 이렇게 터졌을까? 나는 내 맞은편에 앉은 청년이 나를 왜 자꾸 동정의 눈으로 바라보는가를 인제야 비로소 알게 되었다. 아, 렬차를 기다리기란 정말로 지루하구나. 나는 발을 옮기기가 부끄럽고 거북했다. 그러니 대합실을 나와 락수물이 떨어지는 처마밑에 붙어서지 않으면 안되었다. 몸이 이상하게 오슬오슬해진다.…》

《197×년 6월 ××일. 일요일. 푸른 하늘… 정말 고마운 기사장이구나! 작가들이 그런 동지를 만난다면 자기 소설에 나오는 기사장들을 많은 경우 부정인물로 그리지 않을텐데. … ××기계공장 기사장동지는 공장 기술집단을 동원하여 <연기억가래>의 기술적문제를 해결해주었다.…

어느 인민학교 운동장앞을 지나가던 나는 기쁨을 이길수가 없어서 어린 학생들과 함께 뛰놀고싶은 충동까지 느꼈다.》

《197×년 6월 ××일. 금요일. 찬란한 햇빛, …고마운 사람들은 ××기관차대에도 얼마나 많은가! … 나는 굵이가 백개라는 백구령 40리 철길을 걸으며 생각했다. … 4호차굴, … 19호차굴, … 제멋대로 생겨먹은것이 16개가 아니라 160개라도 좋다. 이제 완충식반자동 <연기억가래>가 네놈들을 굴복시키고야말것이다.…》

《197×년 7월 ×일. 화요일. 무거운 검은구름. 13호차굴 바닥낙추기전투는 이제 겨우 시작에 불과하다. … 기차가 지나가면 차굴속으로 뛰어들어 꼭깡이와 정으로 압박을 까내야 하는 긴장하고 어려운 전투이다.

하루에도 몇십번 차굴속을 드나들어야 하는 어려운 일이다. 하지만 이런 일일수록 누구에게나 뒤지지 않으려는 청년의 모습, 그들의 모습은 정말 아름답

답다는 말로 다 표현할수 없을것 같다. 그런데 재길의 얼굴에 우울이 짙어만 간다. 그것이 기쁨으로 바뀌을 날은 언제일가?...》

...백구령의 서남과 동북을 연결한 궤도는 31호 차굴속에 뻗어있었다.

장준범중대는 그 철길을 20센치 낮추는 공사를 시작하면서 먼저 제2소대와 제3소대를 붙였다. 선발된 두개 소대는 첫날부터 철길을 침목채로 뜨면서 오랜 세월 덧쌓여온 탄재를 파내고 굳은 암반을 까냈다. 공사는 굴속으로 깊이 들어갈수록 더 어려웠다. 재래식추도의 구조물들을 현대적인 전기기관차가 달릴수 있도록 개조한다는것은 레외없이 난공사이다. 그것이 더구나 심한 곡선구간으로 이어진 긴 차굴인 경우에는 끔절로 더하다. 공사는 열차의 정시통과를 보장하면서 진행되어야 하기때문에 분초를 다투는 긴장한 돌격과 민활한 대피과정을 연속적으로 반복하지 않으면 안된다. 게다가 사철 빠지지 못하는 기관차의 매운 연기까지 이겨내야 하는것이다.

바로 31호차굴이 그랬다. 령마루밑에 뿔린 차굴이라 물매는 급하지 않았지만 그 길이가 무려 7리에 달했다. 그래서 장준범중대의 두개 소대는 벌써 보름째 차굴속의 연기를 헤치며 돌격과 대피의 힘겨운 전투를 계속해오고있었다...

노을이 불타는 저녁녘이었다.

차굴이 꺼렇게 들여다보이는 철길결에서 청년들이 무릎씨름을 벌려놓았다. 넓지 않은 철길옆의 풀밭은 한쪽 다리를 꺾어들고 쟁충거리는 술한 외발들에 짓밟혀 몽개지고있었다. 대피라고 하는 열차통과시간을 소대간의 무릎씨름경기로 즐기며 휴식하고있는것이다.

《3소대의 <장갑차>가 잘한다. 한번 더, 좋지!》

《아, 저런! 였다 받아라. 2소대의 <전기기관차>가 나간다!》

바지가랭이를 걷어붙인 침목같은 무릎들이 멍들게 때각뚜각 맞쫓으며 돌아간다. 힘이 뻗친 무릎들은 배허버덕이나 궁둥이도 마다하지 않는다. 상대방을 보기좋게 꺼꾸러뜨린 승리자들은 자기편을 지원하느라고 맞붙어돌아가는 《격투》 판에 선고도 없이 뛰어들어서는 《적수》를 닥치는대로 짓쫓아댄다. 그래서 어떤 판은 령량대비가 일대 삼이 아니면 일대 사라는 엄청난 차이를 보이면서 승부를 다룬다.

가로퍼진 청동빛 몸뚱이에 푸른 런닝그만 걸친 제3소대의 《장갑차》는 허리통이 늘씬한 제2소대의 《전기기관차》에게 불의의 역습을 받아 궁둥방아를 찢으며 나당굴어진다. 그와 때를 같이 하여 저쪽에서 또 두명이 게걸음을 치다가 코배기로 길게 뻗는다.

와하... 와하...

차굴에서 실어나다 무저놓은 탄재와 돌무지우에 앉아 손벽을 쳐가며 웃는 사람들속에는 선령이도 끼여있었다. 하지만 그는 자주 살피는 눈길로 조재길을 건너다본다. 조재길은 아까부터 두다리를 힘없이 뻗치고 맞은켄 사시나무밑등에 잔등을 기대고 앉아있었다. 자기 소대의 영예를 위해 모두숨을 헐떡거리며 무릎을 터지게 싸우는데 그만은 명청한 표정으로 바라보고있는것이다.

(끝내 일어나주질 않으려나?)

선령의 마음은 초조하고 안타까왔다. 어찌보면 그것이 무슨 가슴까지 조일만한 그런 큰일로 되겠는가고 할수도 있다. 하지만 그는 조재길이가 무릎씨름판에 뛰어드는 문제를 범상하게 보고싶지 않았다.

(재길은 이제 일어날거야. 그러면 저 무릎씨름판에서 누군가를 꺼꾸러뜨릴수도 있어.)

선령은 믿고싶었고 요구하고싶었다. 그러나 조재길은 그의 간절한 기대를 배반하듯이 머리를 뒤로 젖혀 사시나무에 기대더니 붉은 노을이 꺼밋꺼밋 스러져가는 저녁하늘을 서글픔이 어린 우울한 얼굴로 하염없이 바라보는것이었다. 곱살하던 흔적이 기억속에만 남아있는, 피로에 지쳐 초췌해지고 살이 깎이워 거칠어진 그 얼굴은 대가 가늘고 가지와 잎이 성근 연약한 사시나무처럼 가냘팠다.

선령은 피로왔다.

조재길은 끝내 일어나서지 않았다.

열풍을 휘몰아치며 긴 열차대렬이 지나가고 돌격구령의 류창한 나팔소리가 산천에 메아리쳤다.

두 소대의 무릎씨름군들은 마치 적의 갱도를 습격하는 전사들마냥 31호차굴속을 향해 와- 내달렸다. 그뒤를 조재길이가 가까스로 따라오고있었다.

선령은 차굴속으로 얼마쯤 들어가다말고 조재길을 기다렸다. 힘이 되고 용기가 될 고무의 말을 그에게 안겨주고싶었던것이다.

뒤늦게 따라오던 조재길은 연기발이 뿌잇한 어둠속 철길우에 우뚝 서있는 선령을 알아보자 당황한 표정을 지으며 급히 지나가려고 했다.

《같이 건자요. 재길동무.》

하고 선령은 조재길이와 나란히 섰다. 조재길은 피하듯 걸음을 빨리 하려고 했다. 그러나 생각에 잠겨 걷는 선령의 보조에 맞추지 않을수 없었다.

《어때요. 몹시 힘들지요?》

부드럽게 묻는 선령의 말에 조재길은 머리를 떨어뜨리며 침목을 세듯 묵묵히 걷기만 했다. 선령은 천막을 치던 지난 어느날 조재길이와 주고받던 말을 상기하며 다시 입을 열었다.

《언젠가 재길동무는 난관과 시련을 이기지 못하는 원인이 사상적준비정도가 낮은데 있다고 말했지요. 생각나세요?》



《소조원동무의 천막을 치던 날인것 같습니다.》

《옳아요. 그날 우리는 원인을 알면 고칠수 있다고 했지요. 그리구 의지가 약하다면 투쟁속에서 같이 키우자고 했지요. 그런데 지금 재길동문 자신에게 무슨 결함이 있다는것을 알면서도 고치기 힘들어하는것 같군요. 그렇지 않은가요?》

《저로서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저 요즘은 소조원동무 보기 부끄러울뿐입니다.》

《그렇다면 자기의 나약성과 싸워이기자요. 그러면 누구앞에서나 떳떳해질거예요. 어버이수령님의 교시를 관철하는 길에서 어떤 난관도 꺾듯이 뚫고 나가겠다는 높은 사상적각오를 가진다면 이만한것이 우리에게 무슨 힘든 일이겠어요. 나도 재길동무 못지않게 힘들어요. 그러나 어버이수령님께 충직한 참된 혁명전사로 살기 위해서 자기의 나약성과 싸우고있어요. 생각해보세요. 이제 어버이수령님께서 펼쳐주신 철도전기화의 원대한 구상이 이 땅에 활짝 꽃피고 그속에서 재길동무나 내가 강철같은 혁명적의지를 가진 공산주의건설자로 자란다면 그때 어버이수령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이거보겠어요. 어떻게 하나...》

《이겨보는게 아니라 꼭 이겨야 해요. 우리 그날을 위해서 이기자요. 나는 재길동무가 이겨내리라고 믿고싶어요.》

멀지 않은 그들의 앞에 차굴을 따라 용암이 흐르듯하는 화불들이 황황 타고르고있었다...

어느덧 한주일이 지나갔다.

그날저녁 선령은 사업일지를 정리하고나서 자기 천막을 나섰다. 중대참모회의계획에 따라 밤작업을 전주운반으로 돌려놓았는데 웬일인지 집합시간이 다 되도록 나팔소리가 울리지 않는것이였다.

선령은 중대부천막을 향해 걸었다.

달이 휘영청 밝았다. 유난한 그 빛은 질푸른 수림의 바다를 포근히 감쌌다. 풀벌레들이 자장가를 불러주듯 찌르르찌르르 울었다. 굵속같은 정적과 고요가 한껏 깃들었다.

선령은 교양실천막앞에서 장준범중대장을 만났다. 자기 천막으로 가는길이었다.

《아니, 왜 또 나오세요?》

그러나 되묻지 않을수 없는 선령이었다.

《왜, 집합나팔소리가 나지 않은군요?》

《원, 소조원동무두, 무슨 일이 생기면야 알리지 않을라고요. 전주운반작업은 래일아침에 일터로 나가면서 한탕씩 합시다.》

《래일아침에요?》

《계획대루 하면 더 좋겠지만 일부 대원들이 좀 힘들어하는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밤은 휴식시키자는 생각입니다.》

그럴수도 있지, 선령은 긍정했다. 그러지 않아도 자신을 힘겹게 이겨오는 선령이로서 휴식이란 말은

너무도 강한 유혹같았다. 그는 눕고싶었고 자고싶었다. 자기가 그럴진대 단련이 부족한 청년들은 또 어떠하랴. 하지만 선령은 중대장에게 그런티를 보이지 않았다.

《소조원동무, 오늘밤이라두 좀 폭 쉬시오.》

장준범중대장은 푸른 달빛에 씻기워 더욱 험쵸해 보이는 선령의 모습을 바라보기조차 피로운듯 몸을 반쯤 돌렸다. 그리고 서서 담배를 붙여물며 떠엄떠엄 계속했다.

《밤낮으로 중대의 앞장에 서있지, 잠시간은 또 잠시간대루 숙보공작이요, 새 노래보급이요, 체육경기조직까지 하며 뛰어다니니 글썄... 난 사실 중대의 이름으로 소조원동무에게 이런걸 권고하고싶었소. 우리가 하는 공사중에서 굴일만은 제발 삼가해달라구말이요. 하여튼 이 앞으로는 자기 몸을 자기가 돌보도록 합시다.》

맑은 이슬이 선령의 눈에서 반짝였다. 고마움이 약해진 그의 가슴을 못견디게 흔들어주는것이다. 선령은 수궁하고싶었다. 그런데 이 순간 그의 뇌리에 불현듯 무서운 생각이 떠올랐다. 자기를 이겨내기 어려울 때 반게 되는 동정은 강한 사람도 약하게 만들수 있지 않는가?... 선령은 몸이 오싹해졌다. 마음이 약해진 사람의 가슴을 흔들어주는 동정, 그것은 어떤 경우를 막론하고 모두 유해롭다. 하지만 동정은 그런 사람들에게 특혜까지 베풀어주는것이다. 특혜에 버릇되면 신념과 의지를 잃게 된다. 단련이 부족한 사람의 경우에는 더할것이다...

선령은 오빠 하나만을 가진 외동딸이었다. 미술가인 아버지는 부잡하고 인정머리없는 아들보다 살뜰하게 굴줄아는 귀여운 딸을 더 사랑했었다. 행복밖에 모르고 자란 선령이었다. 그가 자기를 단련할수 있었다면 그것은 오직 대학에서뿐이었다. 주체의 세계관을 세우주었을뿐아니라 대학은 발전소건설장과 전기철도 변전소건설장에서의 실습, 농촌지원 등으로 연약한 그에게 부족했던 힘과 용기와 의지를 키우도록 했었다. 그랬기에 선령은 어버이수령님의 한없이 큰 신임으로 3대혁명소조원의 영예를 안고 대학을 떠날 때 가장 어렵고 힘든 부문에 서리라고 결의할수 있었다. 하지만 현실은 그에게서 보다 많은것을 요구했다. 선령은 자기자신과 수많은 조재길들을 위해 또하나의 어려운 고비를 스스로 만들어야만 했다.

《그래, 각 소대에 휴식구령을 내리는가요?》

선령의 음성은 무거웠다. 장준범중대장은 놀라듯 돌아보며 대답했다.

《이제 내리지요.》

《내리세요. 그러나 휴식구령이 아니라 돌격을 위한 집합구령을 말이에요.》

《?!...》

장준범중대장은 자기 귀를 의심하는 모양이었다.

휘둥그레진 그의 두눈이 달빛이 던져준 모자채양 그늘밑에서 의혹을 담고 꺼벅거렸다. 하지만 그는 인차 낮을 돌리더니 불꽃이 일도록 담배를 빨았다. 침착하게 바라보는 혁명소조원의 움직임이 없는 시선을 이길수 없었기때문이다.

《중대장동무, 우리는 우리가 오늘로 결정한 전투 계획을 래일로 미루어서는 안된다고 봐요. 그렇지 않을가요?》

《그렇게 놓고 보면야 할 말이 없지요.》

《물론 래일아침에 한다고 해서 공사에 지장을 크게 줄 일은 아니예요.》

《그래서 내린 결심이지요. 아까두 말했지만 소조원동문 자기자신의 몸에 대해서두 생각할 때가 되었다구봅니다.》

《고마와요. 하지만 쉬어야 할 사람이 왜 나혼자 뿐이겠어요.》

《그러기에 오늘은 돌아서주시오. 솔직히 말해서 단련이 부족한 일부 대원들이 좀 베팅하는것 같은데 내가 중대장으로서 지나친 요구를 하지나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선령은 장준범중대장이 이번에도 재길이와 같이 의지가 약한 대원들을 따돌리고 끝끝하다고 보는 대원들로 이 일을 하려는지 모른다고 생각했다. 그것이 대원들에 대한 진정한 사랑이겠는가. 선령은 타협할수 없었다. 하여 그의 목소리는 낮으면서도 근엄하게 울렸다.

《지금 중대장동문 자기 대원들을 무원칙하게 사랑하고있어요. 그것은 진정한 사랑이 아니라 유해로운 동정이예요. 만약 그런 동정에 습관되면 누구를 물론하고 난관과 시련 앞에서 나약해지고말아요. 우린 그런 사람으로 재길동무를 실례들수 있어요. 나약해지는 대원들에게 베푸는 중대장동무의 <특혜>는 진정한 사랑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내가 그럼? ... 하여튼 그 동무들이 견뎌내기만 한다면야 문제가 다르지요.》

하고 장준범중대장은 억울하다는듯이 선령을 바라본다.

잠시 아래입술을 당겨문채 말없이 서있던 선령은 확신에 찬 어조로 말했다.

《재길동무와 같은 나약한 청년들이 자기자신과 싸워서 꼭 이기리라고 믿어요. 중대장동문 다만 철도공사만 책임지지 않았다고 생각해요. 이런 동무들을 다같이 끝끝한 대원들로 키워야 할 의무가 중대장동무에게 있다는것을 무겁게 느껴야 해요.》

집합나팔소리가 울리었다. 잠시후에 대원들은 목고채며 든장대, 그리고 가는 쇠바줄과 삼바줄같은 작업도구들을 들고 소대별로 정렬했다. 한명도 빠짐이 없었다.

장준범중대장은 매 소대들을 대렬점점이나 하듯 돌아보는것이였다.

《동무의 그 목고채는 왜 그렇게 굵소?... 새로 깎았구만.》

장준범중대장의 말을 들은 제1소대의 다부진 대원은 차렷자세를 취하며 제법 의젓하게 대답했다.

《전주운반작업전투는 목고채가 든든해야 합니다. 중대장동지!》

제6소대의 한 대원은 하마트면 자기 천막으로 쫓길번했다. 낮에 그는 전주구덩이를 덤비며 파다가 뼈죽이 내민 돌부리에 무릎을 약간 슬쳤던것이다.

《어디, 정말 아프지 않나 한번 만져보자구.》

손을 내민 장준범중대장은 무릎을 조심스럽게 만질것처럼 하다가 주먹으로 툭 쳤다. 그바람에 마음을 놓고 서있던 그 대원은 다리를 흠칠하며 가는 신음소리를 냈다. 장준범중대장은 손을 들어 천만쪽을 가리켰다. 그러자 그 대원은 얼굴을 붉히며 부당하다는듯이 항의했다.

《중대장동지 너무합니다. 차돌같은 주먹으로 그렇게 잡자기...》

주위에서 키득거렸다. 어깨너머로 건너다보며 웃는 사람도 있었다. 장준범중대장도 히죽이 웃었다. 그는 같은식으로 소대들을 보아나가다가 제2소대의 조재길앞에서 걸음을 멈췄다. 조재길은 무엇인가를 손에 뭉그러쥐고 대렬중간에 서있었다.

장준범중대장은 잠시 조재길의 아래우를 훑어보기만 하다가 손에 든것을 가리키며 물었다.

《그건 뭐요?》

《어깨받치겁니다.》

대답이 제법 시원스럽다.

《전주운반은 8목고요. 꽤 견딜만하오?》

《견딜수 있습니다. 중대장동지!》

《견딜수 있다... 음》

장준범중대장은 무엇인가 더 말할듯하다가 그대로 돌아서더니 출발지시를 내렸다. 소대들은 중대의 립시 하차장을 향해 철길을 따라 령을 내리기 시작했다.

마지막 소대뒤끝에 선령이가 서서 걷고있었다. 《견딜수 있습니다. ...》 하고 씩씩하게 대답하던 조재길의 목소리, 그리고 무엇인가 더 말할듯하다가 돌아서던 장준범중대장의 모습이 그의 뇌리에 자꾸 밟혀왔다. 생각에 잠긴 선령의 여윌사한 얼굴에 이따금 미소가 떠오르군했다. 나약성과의 싸움에서 조재길이고 자기도 이기고있다는 기쁨이였다.

## 4

31호차쿨 바닥낙추기전투가 마지막 고비에 들어서던 어느날 철도부예술폭전대가 장준범중대를 찾아 백구령으로 올라왔다. 예술폭전대 성원들은 마당을 쓴다, 식당일을 돕는다 하더니 어느새 훌륭한 가설무대까지 세웠다. 누구의 머리가 그렇듯 잘 도는지 가설무대는 가파로울사한 산비탈을 《객석》

으로 하고 철길을 등졌는데 이런 산정에서는 《모란봉청년야외극장》이라고 부를만도 했다.

땅거미가 내리기 시작한다.

식사를 끝낸 장준범중대는 가설무대를 향하고 산비탈 《객석》에 까맣게 붙어올랐다. 저저마다 잘 보이는 자리를 잡느라고 돌멩이를 굴리고 흙을 무너트리며 덤벼들었다.

《객석》과 가설무대를 가르고있는 잔디밭 공지에는 벌써 10여명의 악사들이 나왔아 음을 맞추느라고 붐뽕, 붐뽕거렸다.

자기 천막을 너배우들의 분장실로 내준 선령은 조용한 샘터가의 너럭바위우에 앉아서 늘 쓰는 버릇대로 《과견지와 나》에 자기 생각을 정리했다.

그가 《객석》한끝에 서있는 봇나무밑에 들어섰을 때는 이미 소개자가 나와 있었다. 통례로 너배우가 나서게 마련인 공연소개를 오늘저녁은 남자배우가 하고있다. 중대의 특성을 고려한 모양이다.

합창 다음다음 프로인 혼성무를 보고있는데 누군가 선령의 어깨를 가만히 건드렸다. 선령은 얼굴을 돌렸다. 《꼭두배기》라고 불리우는 제2소대 소대장이었다. 소대장은 선령에게 눈짓을 해보이고 제먼저 앞장서 걸었다. 좀 만나자는것이다.

《소조원 동무, 어째 재길동무가 보이지 않는군요?》

소대장은 중대식당 모퉁이에 서서 선령을 기다리다가 말했다.

《구경은 나왔됐나요?》

선령은 불안한 어조로 물었다.

《소개말이 시작되기전까지두 내뒤에 앉아있었지요.》

(그렇다면 어디로 갔을가?)

복잡한 생각이 선령의 머리를 짓눌렀다. 구경을 즐기는 조재길이요보면 그의 신상에 무슨 일이 확실히 생겼다.

《일을 끝내구 나을 때 작업장에서 마지막까지 머물거렸는데… 혹시?…》

하고 소대장이 말했다.

《소대장동무, 아무래도 31호차굴에 들어가 봐야 할것 같아요. 함께 가보지 않겠어요?》

《그럼 빨리 가봅시다.》

선령은 소대장과 함께 전지불을 비치며 차굴속으로 들어섰다....

조재길은 낮에 일하던 작업장에 있었다. 장봇같은 가스불을 물기가 번들거리고 연기때가 덕지로 불은 차굴벽아래에 걸어놓고 침목밑에 나무췌기를 치는중이었다. 기관차연기의 흐릿한 장막속에서 그의 그림자가 거인처럼 느릿느릿 움직였다.

선령은 조재길을 놀래우지 않으려고 조용한 목소리로 찾았으나 고굴에서와 같은 진동이 췌렁 하고 울렸다. 머리를 번쩍 든 조재길은 자기앞에 나타난

두사람을 일별하자 놀라고 당황해서 메를 떨어뜨리며 일어섰다.

소대장이 먼저 분통을 터트리듯 물었다.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지?》

《말은 일을 똑똑히 못했었습니다. 침목상태가 나쁘다는것을 알면서도 구경하러 그대로 나갔었지요.》

조재길의 말을 선령이가 따뜻한 어조로 받아주었다.

《소대장동무에게 알렸더라면 더 좋았을걸 그랬군요. 그렇지요. 재길동무?》

《제 잘못은 제손으로 고쳐야 한다구만 생각하다보니...》

조재길이 확실히 달라지고있었다. 그에게 전에 없이 높은 책임성이 생긴것이다.

선령은 기뻐다. 하지만 그를 기쁘게 한것은 그보다도 조재길이가 2키로메터가 넘는 굴속을 혼자 들어온 용기와 대담성이었다. 그것역시 그의 강해지는 의지를 말해준다고 해야 할것이다....

침목상태는 그닥 좋지 않았다. 방금 조재길이가 나무췌기를 치던 침목은 레루못자리를 중심으로 손가락이 들어가게 빠개졌고 속이 썩어들고있었다. 새 침목인 경우에도 철길을 한번 뺐다놓으면 손상이 가는데 하물며 수명이 다 되어가는 침목이야 말해 무엇하랴. 그러나 침목문제는 어디까지나 해당구간을 담당한 철길대가 책임지도록 되어있다. 전철련대는 철길을 뜨고 로반을 낮추는 경우에도 침목을 다치지 않기로 되어있다. 렬차의 무사고정시 통과를 보장하기 위해서 최대한의 원상복구만 하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나무췌기를 쳐서 고정시키는 방법이다.

(어떻게 일부 낡은 침목을 우리가 교체할수 없을가?...)

선령은 문득 조재길의 의견을 듣고싶었다.

《재길동무, 낡은 침목들이 아무래도 마음에 걸리는군요. 무슨 방도가 없을까요?》

조재길은 레루못을 마저 박고나서 선선히 대답했다.

《우리가 교체하면 됩니다. 많지 않으니까요.》

《얼마나 될가요? 1000메터당 한 50여개정도 될것 같기도 하고?》

《소조원동문 벌써 다 계산했구만요. 그이상은 되지 않습니다.》

《그걸 재길동문 어떻게 알아요?》

《여기 들어오면서 대충 헤여봤습니다. 90 개정도 더군요. 2 키로메터가 좀 못되니 100 개로 되는셈이지요. 그러니 1000 메터당 50 개가 아닙니까.》

조재길은 암산으로 중대구간 40리에 600개라는 수자까지 산출해냈다. 누구나 할수 있는 일이면서도 누구나 다할수 없는 일이었다. 자기 사업의 중요

성과 의의를 인식하고 머리를 쓰는 자각된 주인만이 할수 있으나 그렇지 못한 사람은 할수 없는 일이다.

선령은 산수적수자를 귀중하게 여기지 않았다. 자신이 한 일을 자신이 책임지려는 량심적인 충동으로부터 낡은 침목문제를 찾고 해결방도까지 말하는 조재길의 정신적변화를 무엇보다 귀중하게 생각했다. 선령은 재길을 힘껏 돕고싶었다.

《재길동무, 난 우리 힘으로 낡은 침목을 교체할수 있다는 재길동무의 의견에 동의하며 또 적극 지지해요.》

《중대장동무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  
다.》

《중대장동무도 찬성할거예요. 재길동무가 발기하고 제기하는 일이라면 중대장동무 더 기뻐할거예요.》

《그럼, 제가 안을 만들어 제기해보랍니까?》

《그렇게 하자요. 참, 소대장동무하고도 먼저 의논해보자요.》

자리에서 일어난 선령은 차굴 옷쪽으로 나가며 침목상태를 살피고있는 소대장을 불렀다....

밤이 깊어서 세사람이 중대로 돌아왔을 때는 이미 공연이 끝났었다. 하지만 그들은 조금도 서운하지 않았다.

《출발!》

장준범중대장의 다기찬 구령은 곧 중대나팔수에 의하여 전달되었다. 중대장의 부관격인 애어린 나팔수는 해빛이 눈부신 푸른 하늘로 상기된 얼굴을 쳐들고 출발을 알렸다. 힘찬 나팔소리는 울울창창한 수림을 뒤흔드는듯싶었다. 여기저기서 통나무들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앞뒤를 한뼘정도 자르면 침목 한감이 되는 무거운 나무통을 두사람씩 마주메고 나선것이다. 나무발을 빠져나온 그들은 한궂으로 모이면서 전진하는 긴 대렬을 짓는다. 대렬은 삼복더위에 허덕이면서도 떠들썩했다.

《여, 2소대, 헛바퀴질말구 나서라구.》

제2소대의 누가 발이 미끄러져서 제자리걸음을 하는 모양이다.

《<주의구간>을 모래뿌리개두 달지 않구 <출무>야?》

《모래뿌리개 없는 <기관차>에 끌려오는 <방통>은 누구야? 덜거덕소리를 내는걸 보니 3소대의 <불량화차>가 분명하잖다!》

메주 먹이는 제2소대의 대답은 가까운 앞뒤 대렬에 폭소를 터쳤다. 꼬리쪽에서도 목청을 돋구어 떠들었다. 제3소대는 중대의 견인기(기관차)로 될만한 장수는 《장갑차》밖에 없다고 우기고 제2소대는 이처럼 많은 《나무실은 차량》들을 《전기기관차》만이 높은 속도로 정확히 끌수 있다고 반박이다. 두 소대는 무릎씨름을 할 때처럼 여기에서도 기

승을 부렸다. 대렬이 뗏으면 《정차》라고 했는데 그때마다 제마끔 앞장에 서야 한다는 자기 주장들에 열을 올리곤했다.

장준범중대는 조재길의 제기를 토의하고 차굴속의 낡은 침목들을 자체의 힘으로 교체할것을 결정했었다. 그리하여 철길대와 련계밀에 립산사업소에서 침목으로 쓸 통나무를 넘겨받기로 한것이다.

선령이가 믿었던것처럼 장준범중대장은 조재길의 제기를 밀어놓지 않았다. 이미 그자신이 생각하던 문제였다. 다만 두눈을 휘둥그렇게 뗐는데 그것은 자기가 찾던 방도를 조재길이가 먼저 찾아냈고 또 그 제기하는 태도가 지난날의 비라리식이 아니였기때문이다. 장준범중대장은 조재길의 당당하고 림름한 모습에서 그의 어제와 오늘에 관계되는 자신을 돌이켜보는듯 천막속을 말없이 거닐기만 했다. 며칠후 그는 중대참모회의에서 분공된대로 철길대에도 찾아가고 철길대에서 립산사업소와 련계밀에 이미 마련해놓은 침목감을 보려고 산속으로 들어가기도 했다.

나무통대렬은 매굴에 이르러 다섯개의 방향을 잡고 소대별로 갈라졌다. 차굴의 길이와 교체침목수에 따라 작업장을 여러곳에 만들어놓았던것이다. 제2소대와 제3소대는 31호차굴을 목표로 매굴을 빠져나오자 곰의등판을 향해 걸었다.

선령이는 조재길이와 같이 침목감을 메었다. 그들의 얼굴은 땀에 떠있었다.

선령이에게 짐이 적게 가도록 침목을 깊숙이 들이메고 앞에서 걷는 조재길의 량어깨와 뒤덜미가 땀에 젖어 청동빛으로 번들거렸다.

선령은 숨을 툇으며 말했다.

《좀 앞으루 메세요. 그렇게 하고 힘들어 가겠어요?》

《괜찮습니다.》

선령은 조재길에게라기보다 자신을 고무하기 위해 다시 입을 열었다.

《재길동무, 발을 맞추자요.··· 그럼 좀 쉬워질거예요. 하나 둘, 하나 둘...》

어느덧 곰의등판은 그들의 뒤에 멀리 떨어지고말았다.···

드디어 31호차굴 옷쪽문이 내려다보이는 그리 높지 않은 낭떠러지우에 두 소대가 도착했다.

청년들의 가슴속에서는 자기들의 힘과 의지에 대한 높은 긍지와 자부심이 환희로 솟구쳤다.

선령은 조재길의 손을 꼭 잡았다. 왜선지 눈굽이 뜨거웠다. 그러나 손수건이 없어도 좋았다. 누구도 고귀한 땀에 섞인 그의 눈물을 가려볼수 없었기때문이다. 흥조어린 조재길의 볼에 처음 보는 보조개가 귀엽게 나타났다. 눈은 기쁨에 넘쳐 웃고 콧솔머리는 미풍과 희롱한다.

《어버이수령님께서 보내주신 소조원동무만 아니

였더라면 전 자기를 이기지 못했을겁니다!》

《이제 어버이수령님께서 재길동무가 자기의 나약성과 싸워이겼다는것을 아시게 되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어버이수령님께서요?!》

조재길의 음성은 떨리고 눈굽은 젖어오른다.

《그렇지만 재길동문 아직 다 이기지 못했어요.》

《예?》

놀라는 조재길에게 선령은 속삭이듯 물었다.

《재길 동무의 <연기nerg래>는 어떻게 하겠어요?》

《소조원동무!...》

《우리 어떤 일이 있어도 그것을 완성하고 철도전기화를 앞당겨서 어버이수령님께 기쁨을 드리자요.》

조재길은 머리를 힘있게 끄덕였다. 이번에는 선령의 부드러운 불에 귀여운 보조개가 곱게 피어났다. 맑고 푸른 하늘에는 아까보다 더 아름답게 흰 구름이, 마치 얼음산을 방불케 하는 시원한 흰구름이 등실 떠서 흐르고있었다. 그러나 조재길은 거들떠보지도 않는다.

선령이와 조재길의 모습을 뒤쪽 멀리 박달나무그늘아래 중대나팔수와 함께 서서 지켜보는 사람이 있었다. 장준범중대장이었다.

## 5

완충식반자동 《연기nerg래》의 시험을 성공적으로 끝내고 중대의 이름으로 그 도면을 런대부에 올려보낸 그 다음다음날이었다. 선령은 강습중에 있는 장준범중대장으로부터 한장의 편지를 받았다. 장준범중대장은 자기 편지에서 한개 단위를 책임진 초급지휘관은 철도전기화와 같은 창조물로 위대한 수령님께 충성하는것만으로는 아직 부족하다. 중요한것은 자기의 대원들을 원칙적사랑으로 교양하며 그 어떤 비바람이 불어도 흔들리지도, 꺾이지도 않는 불굴의 혁명적의지를 가진 주체형의 공산주의 혁명가로 키우는데 있다. 따라서 중대장은 자기 중대의 만형이 되어야 하며 《로동대학》의 원숙한 교사로 되어야 한다. 그러니 초급지휘관들의 위치가 얼마나 중요한가! 어버이수령님께서 공산주의미래의 담당자들인 우리 새세대청년들을 나와 같은 초급지휘관들에게 맡겨주신것이다!...

선형은 자기비판도 곁해서 쓴 장준범중대장의 편지를 읽으며 무엇보다 그의 성장을 보는것이 더 기뻐했다. 하지만 그는 자기 속을 척척 드러내보이는 그런 남자들을 좋아하지 않았기때문에 《중대장동무도 참, 깨달았으면 됐지 편지까지 뭘》하며 제사 도리어 얼굴을 붉혔다. 그런데 장준범중대장은 강습에서 돌아오자 자기 편지에 쓰지 못한 지난날들을 서글픈 얼굴로 다시 돌이켜보는것이였다.

《과견지와 나》라는 두툼한 일기장도 거의 끝나가고있다. 선령은 지기가 이곳으로 오던 첫날부터 오늘까지의 일기를 더듬으며 앞으로 새로 오는 혁명소조원에게 도움될것들을 찾아보려 애썼다....

그때 문득 숙영차의 바깥 널충충대를 가볍게 울리며 올라오는 발자국소리가 들렸다.

(벌써 오는구나)

책상을 대충 정돈한 선령은 자리에서 일어나 출입문을 열었다. 예감과 느낌은 정확했다. 등에 큼직한 배낭을 지고 손에 묵직한 밤색트렁크를 든 호리호리한 처녀가 주황빛 저녁노을을 배경으로 숙영차 《현관》에 들어서고있었다. 처녀는 마주나온 선령이가 지금까지 장준범중대와 생사고락을 같이 한 3대혁명소조원이라는것을 확인하자 머리를 깎듯이 숙이며 자기를 소개했다. 새로 과견되어온 리옥단소조원이었다. 얼마후 두 처녀는 진분홍철쭉꽃을 활짝 피워놓은 원탁을 마주하고 앉아 다정한 자매들처럼 이야기를 나누었다. 별에 타지 않은 희맑은 얼굴이며 희망과 랑만에 찬 영채도는 눈, 가볍게 다문 자그마한 입술-새로운 혁명소조원 리옥단은 볼수록 미덥고 사랑스러웠다. 선령은 많은 이야기를 하였다. 하지만 무엇인가 더 도움될 말을 못하겠 같아 미안한 감을 숨기지 못하고있었다.

《옥단동무, 난 정말 옥단동무에게 도움이 될만한 말을 많이 해주지 못하고 떠나가는것 같아요.》

《그건 정말 선령동무답지 않은 말이군요. 안심하고 떠나가세요. 앞으로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선령동무가 이미 푹푹히 가르쳐주었고 지금도 가르쳐주고있다고봐요.》

《아니, 무슨 말을 그렇게? 난 정말 옥단동무에게...》

《아니, 난 선령동무가 얼마나 훌륭하고 중요한 일을 했는지 알고있어요. 나도 앞으로 어버이수령님의 가르치심을 관철해나가는 길에서 석남철동무나 선령동무의 경험을 배워 있는 힘껏 일해보겠어요.》

선령은 아무말 없이 미더운 마음으로 리옥단의 손을 힘주어 꼭 잡았다. 리옥단은 선령이에게 잡힌 자기 손을 빼며 눈을 곱게 흘렸다.

《아이, 손아귀도... 여기선 다 이렇게 힘이 세지는가보지요?》

《호호호... 참 그렇기두 해요.》

《선령동문 정말 나한테 많은걸 가르쳐주고있어요.》

그이튿날 이른아침 선령은 자그마한 산간역에 머무른 남행열차에 올랐다. 역승강장은 그를 배려러 나온 사람들로 붐비었다. 장준범중대였다. 그들의 앞에 장준범중대장과 조재길 그리고 리옥단혁명소조원이 손을 흔들며 서있었다. 마주 손을 흔드는 선령의 눈에 맑은 이슬이 피었다. 하지만 떠나가는 그의 마음은 가벼웠다.

## 산간마을의 영웅작업반장

위동훈

해마다 늘어만 가는 살림에 올해에 또다시 흐뭇한 분배를 받아안고 행복에 겨워 어깨가 시큰거리도록 춤추고 노래부르며 분배장이 떠나갈듯 들썩거리던 농장원들이 저녁무렵에야 집으로들 헤어져가기 시작했다.

가파로운 산기슭 발마다에서 놀랍게도 탄탄히 여문 팔뚝같은 강냉이이삭을 따들이던 나날도 명절이나 다름없었지만 한해농사를 보란듯이 총화짓고난 이 마당이야말로 농장원들에게 있어서는 승리의 기쁨을 나누는 자랑스런 명절이 아닐수 없었다.

작업반장 리돈식영웅은 분배장의 하루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그저 꿈만같았다.

한해를 주기로 해마다 맛보는 기쁨이지만 이해의 기쁨은 류다른것이였다.

만풍년의 기쁨은 농장원들의 얼굴마다에 억제할수 없는 미소로, 웃음으로 피어나는것이다.

리돈식은 분배장한가운데 오래도록 남아있었다. 조용히 눈을 감으니 지나간 나날들이 영화의 화면처럼 망막을 스쳐간다.

력사에 드문 왕가물을 이겨내느라 입술마저 갈라터지던 어려운 고비들, 《만풍년포전》만들기투쟁의 불길높이 포기포기에 땀과 정성을 묻어가던 줄기찬 혁신의 나날들, 더 많은 부식토를 마련하기 위해 산밭을 토틈던 고심의 나날들이 지금에 와서는 그저 즐거운 추억으로 돌이켜지는것이였다. 그것은 만풍년알곡고지를 점령하기 위한 장엄한 진격의 나날들이였다.

### 1. 한평의 땅을 위하여

1월 어느날,

달빛이 희미한 향풍산 큰골치기의 얼어붙은 산장밭으로 호젓이 걸어가는 사람이 있었다. 소잔등도 얼어터진다는 대한바람이 골안을 살살이 훑으며 우-우- 불어치곤할 때마다 잠깐씩 등을 돌려대고 서있다가 추위를 털어버리듯 몸을 부르르 떨고는 다시 걷는다. 흰김을 그물그물 피워올리는 부식토 더미앞에 가서는 무엇을 가늠해보듯 한참씩 살펴보고 다른곳으로 옮겨가는것이다. 이제는 근 20년간 작업반장으로 일해오는 로력영웅 리돈식동무였다. 오늘 한것이나 향풍산골안과 등성이를 오르내리며 부식토원천을 찾아헤매던 그는 밤이 퍼그나 깊어서야 마을근처에 내려섰다. 거기서 꽤기때기 널려져있는 산장밭들을 돌아보고난 그는 천천히 골짜기 밑으로 발길을 돌리였다.

멀리에 집이 보였다. 귀를 기울이니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간간이 들려온다.

《허어 그놈들, 아버지가 돌아온담에 잔다더니 아직 텔레비앞에 앉아있는 모양이군.》

활개짓을 하며 걸어가던 그는 뭔가 마저 끝내지 못한 일을 두고 집으로 돌아가는것 같아 문득 걸음을 늦추었다.

부식토에 대한 욕심으로 험한 산밭을 타고다니며 여러군데 좋은곳을 보아두기는 했지만 그 운반대책은 아직 신통한것이 떠오르지 않았다. 몇몇 분조장들은 지난해보다 훨씬 많은 부식토를 마련했으니 이제는 산에서 등짐지기를 그만둬도 되지 않겠느냐고 했다. 물론 먼 산꼭대기들에 있는 질 좋은 부식토를 등짐으로 나른다는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다. 그렇다고 좋은 거름을 그대로 묵여둔다는것은 너무나 아쉬운 일이었다. 삭도를 놓아서도 그것을 날라야 할것이다. 그러나 삭도를 놓는다는것이 농사차비로 바쁜 요즘에는 헛치 않으리라는 생각도 들었다. 이래저래 생각이 깊어질수록 리돈식영웅의 발걸음은 굼뻐졌다.

요즘 와서 그는 반장의 일이 결코 수월한것이 아님을 자주 느끼군한다.

일체의 징용에 끌려갔던 아버지가 골병이 들어 돌아가자 12살 어린나이에부터 손에 묻혀오는것이 흠이요, 오직 안다면 농사한가지밖에 없다던 그랬다. 고등농업전문학교 통신을 다니며 주체농법의 새로운 원리를 깨쳤다고는 하지만 배울수록 끝이 없고 일해볼수록 새로운것이 농사일인것 같았다.

향풍산기슭의 척박한 산장밭들을 놓고보아도 몇 해전에는 정당 1,8톤의 강냉이를 수확하고 만족해하던 땅인데 위대한 수령님의 가르치심을 받들고 주체농법을 관철해나가는 과정에 3배, 4배로 그 수확량이 꺾중 뛰어올랐다. 알곡수확의 예비는 해마다 새로 생기군했다. 그렇다면 올해에는 또 어디서 새로운 예비를 찾을것인가?

그는 마음속으로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구절을 외워보았다.

《우리가 늘 말하는것이지만 혁명가들은 일감이 찾아올것을 앉아서 기다릴것이 아니라 일거리를 만들고 일감을 찾아서 일하는 품성을 가져야 합니다.》

리돈식영웅은 깊은 생각에 잠겨 어둠이 갈앉은 산기슭포전들을 둘러보았다. 1월의 맵짠 바람이 급작스레 골안을 울리훑곤할 때마다 후후 느껴질만큼

랭기가 끼쳐왔지만 그것을 전혀 감각하지 못하는 사람마냥 허리를 꼴꼴이 편채 밭고랑을 터벅터벅 옮겨짚었다.

(아버이수령님께서는 우리가 강냉이 정당 10톤을 낸 다음에 한번 더 오시겠다고 하셨는데… 예비를 찾아야 한다. 그이의 크나큰 믿음과 사랑에 보답하기 위하여 알곡생산의 예비를 찾고 또 찾아야 한다.)

밭부리에 무엇이 걸려 비칠거리던 그는 밭을 내려다보았다. 넓적한 돌이 흙우에 이마를 내밀고 있었다. 주위를 살펴보니 그런 돌들이 여기저기에 박혀있었다.

(저놈의 돌들이 많은 포기의 강냉이를 밀어대는 셈 아닌가.)

불쑥 이런 생각이 들자 돌을 그대로 놔두고서는 마음 한귀퉁이가 켠겨서 견딜것 같지 않았다.

사실 몇해사이에 돌쪼기를 하여 밭들이 펴 좋아지기는 했지만 아직도 큰 돌과 바위들은 그냥 밭가운데 버티고 앉아있는것들이 많았다. 이 밭빼기에서만도 큰돌들을 꺼내면 한평나마 실수확면적을 얻어낼것 같았다.

집에 내려간 그는 창고에서 쇠메와 정을 찾아매었다.

《여보, 밤중에 어딜 또 나가요? 저녁이나 잡숫구 보지 않구.》

밖으로 나온 안해가 근심스레 하는 말이다.

《내 인차 돌아오겠소.》

《밤이 깊었는데 무슨 일을 또 한다구 그래요. 평생 할 일을 가지구. 래일은 날이 아니예요?》

《래일두 날이야 날이지. 래일 할 일은 또 새루 있소. 내 걱정 말구 어서 들어가보우.》

《무슨 급한 일인지 정 그러면 나두 가자요.》

한동안 안해의 얼굴을 말없이 바라보던 리돈식은 조용히 그러나 선선한 목소리로

《그럼 옷을 꺼입고 나오우. 곁들어주는 사람이 있으면야 더욱 좋지.》 했다.

밤중에 있는 일을 작업반원들은 누구도 몰랐다. 며칠후 새땅 얻는 투쟁의 불길이 지펴져 밭가운데 있는 큰 돌들을 꺼내는 작업이 여러곳에서 본격적으로 진행될 때에야 1분조장 림동무는 큰골치기의 산장밭에서 자기가 알고있는 큰 돌들이 없어진것을 놀라게 생각했다.

이렇게 하면 새로 얻은 땅은 작업반적으로 두정보를 넘었다.

## 2. 《부식토 한톤을 강냉이 한톤으로 생각합시다》

작업반실에서는 분조장들의 모임이 있었다.

리돈식영웅은 각 분조들의 부식토생산정형과 매

호호별로 되는 퇴비생산수자를 수첩에 적어나갔다.

《우리 분조에선 지난해보다 60톤을 더했수다. 질루 말하면 두배를 했다고 하는게 아마 정확할겁니다.》

1분조장 림동무가 얼굴에 만족한 빛을 띠우고 하는 말이다.

《3분조에서두 70톤쯤 더했습니다.》

모두 풍년든 지난해농사를 기준으로 올해의 부식퇴비생산량을 대비해보는것이다. 그것은 적은량이 아니었다. 깊디깊은 산골의 한 작업반에서, 그것도 가파로운 산을 오르내리며 마련해농은 부식토와 퇴비이고보면 거기에 스며있는 농장원들의 노력과 땀방울을 대수롭게 계산할수 없었다. 하지만 그런 수자로서 자신을 위안할수 없는 리돈식이었다.

1974년 8월 24일,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두번째로 험한 령을 넘으시여 이름없는 자그마한 산간부락인 향풍협동농장 6작업반을 찾아주시었다.

아버이수령님께서는 작업반에서 해마다 강냉이 정당수확고를 높여온데 대하여 높이 치하해주시고 다음해농사를 하나하나 의논해주시었다.

아버이수령님께서는 오래도록 머무르시여 산골농민들의 생활을 더욱 유족하게 만들기 위한 방도에 이르기까지 구체적으로 가르쳐주신 다음 리돈식의 어깨를 다정히 두드려주시며 우리는 동무들이 강냉이를 정보당 10톤을 낸 다음에 한번 더 오겠습니다. 이런 산간지대에서 특히 태풍피해를 받는 지대에서 강냉이를 정보당 10톤 내면 우리 나라 그 어디에서나 다 강냉이를 10톤 낼수 있습니다라고 힘주어 말씀하시었다.

신임이 있으면 이보다 더 큰 신임이 어디 있으며 또 이보다 더 영예로운 임무가 어디 있으랴!

리돈식영웅은 언제나 마음속깊이에 불씨처럼 담겨져있는 아버이수령님의 교시를 생각하며 더욱토록 말없이 분조장들을 둘러보았다.

(반장인 내가 힘껏 내밀어야지. 그러면 분조장들이 더 큰힘을 보태줄거야.)

《영양단지모판도 만들어야지, 밭갈이준비도 해야지, 종자선별도 해야지… 이제부터 할 일이 더 많아졌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소? 부식토를 계속 굽어모을수 없겠소?》

한동안 생각에 잠겨있던 리돈식이 누구에게라 없이 묻는 말이었다.

《밭에서 거리도 멀어졌는데 이젠 부식토모으기를 그만하고 영양단지모판 만드는데 힘을 집중하는게 좋지 않을까요…저것 보지요. 잡도릴 보니 눈이 굉장히 쏟아질것 같수다.》

창박을 내다보고있던 4분조장 박동무가 이렇게 말했다.

리돈식도 창박으로 시선을 던졌다. 쌀뜨물처럼 뽕얇게 흐린 하늘에서는 목화송이 같은 함박눈이 소리없이 내리고있었다. 오래간만에 내리는 눈이다. 이렇게 함박눈이 쏟아지기 시작하면 골안으로 트랙트르는 물론이고 소도 발을 옮겨디딜수 없게 된다. 그래서 작업반에서는 해마다 눈내리기전으로 부식으로 굶어내리는 작업을 서두르곤했다.

리돈식영웅은 벌써 며칠동안 생각해온 이동식삭도문제를 내놓기전에 자기의 결심을 이야기했다.

《동무들,부식토를 더 굶어모읍시다. 이곳 땅이야 우리가 잘 알고있지 않소. 사실 지난해에도 부식토와 퇴비를 많이 준 밭에서는 강냉이 정보당 10톤반을 수확하지 않았소. 부식토 한톤을 강냉이 한톤으로 생각합시다!》

4분조장 박동무가 조용히 한숨을 쉬더니 내키지 않는 소리로 말했다.

《더 굶어모읍시다. 그렇지만 인젠 눈이 깔린데다 거리가 멀어놔서 로력을 곱 들이고서도 얼마 거뒀을일것 같지 않습니다.》

《자, 이걸 좀 보시오.》 하며 리돈식영웅은 얇은 뽕이책상을 방가운데 끄당겨놓고 그우에 보풀이 인 종이 한장을 펼치였다.

《설계가는 아니지만 서툰 솜씨에 이동식삭도를 좀 그려봤소. 이게 군산이끌이구, 여기가 굴팔 그리구 저긴 고향팔이요.》

《부식토가 썩어나는곳들이구만요. 거 좀 봅시다.》

4분조장 박동무가 호기심을 가지고 책상앞으로 바짝 다가붙었다.

《자 이거, 보수주의잔 좀 가만 있거나 하지.》 하며 1분조장 림동무가 익살스레 눈을 꿈쩍하며 어째로 그를 떠밀었다.

《허참, 이 친구, 제 자랑하기 좋아하는 사람을 뭐했더라- 하하하... 그제 머저리가 옳지?》

이러는바람에 방안이 한바탕 웃음소리로 들썩거렸다.

《말루 보수주의를 하든 제자랑을 하든 거야 별일 아니지만 행동으루 그렇게 되면 야단이지.》

리돈식은 이렇게 말하고나서 이동식삭도에 대하여 자기가 생각했던것을 설명하였다. 많은 사람의 지혜가 합쳐져 삭도도면은 더욱 합리적인것으로 완성되어갔다.

결국 한대의 삭도를 놓자던것이 너도나도 하고 나서는바람에 매 분조에 한대씩 삭도를 놓기로 하였다.

알고보면 간단한것이였다. 그것은 8~10미리 쇠줄을 산봉우리에서 산 자드락밭에까지 팽팽히 늘어놓고 부식토짐을 쇠고리로 달아 내려보내는 방법이였다.

리돈식영웅은 그날로 50여리 떨어진 광산으로 달려가 1,000여메터의 쇠줄을 구해왔다.

하루해가 벌써 저물어갔지만 작업반의 청년들은 기어이 쇠줄을 끌고 산봉우리로 오르기 시작했다.

맨앞에서 힘차게 노래를 부르며 올라가던 윤동무가 쭈르르 미끄러지자 웃음이 와 터진다.

《뒤에서들 좀 힘쓰라우.》

윤동무는 이렇게 투덜거리며 얼른 앞으로 달려가 쇠줄끝을 거머쥔다.

250메터의 쇠줄 한끝이 산봉우리의 바위턱에 든든히 매여지자 아래켄에서 탈개로 그것을 조이기 시작했다. 삭도는 완성된셈이다.

청년들은 서로 첫짐을 달아보겠다고 새끼로 엮은 구력을 끌고 우르르 달려갔다. 잠시후 부식토가 한가득 들어찬 첫짐이 쇠고리에 걸려 삭도줄에 매달렸다.

《이거 아무래두 난...》

4분조장 박동무가 쇠고리를 붙잡은채 리돈식을 바라보며 히죽이 웃었다.

《왜? 겁이 나서 그러우?》

《아무래두 첫짐은 반장동무가 내려보내는게 좋을것 같아서 그러니다.》

《허허허... 손이 좀 떨리는 모양이지. 자, 여긴 4분조구역이니 분조장동무가 한번 솜씨를 내보오. 단발명중으로 실수없이말이요.》

4분조장 박동무가 쥐고있던 쇠고리를 놓아주자 부식토구력이 흠칫거리며 조금씩 미끄러져나가기 시작했다. 뒤에서 약간 밀어주니 부식토구력은 곧 속도를 내기 시작했다.

쇠줄을 타고 미끄러져내리는 소리가 골짜기를 따라 가볍게 산울림쳐간다.

《허 멋있군! 거름이 비행길 타는구만.》

《거름만 아니지요. 나두 비행길 탄것 같은데, 허허허...》

4분조장이 멀리 산밑으로 미끄러져가는 부식토구력을 바라보며 웃었다.

뒤이어 부식토를 가득가득 담은 구력들이 연방 삭도줄을 타기 시작했다. 일이 흥겨우니 노래가 나올밖에... 벌써 산봉우리에서 목청을 돋구는가 하면 저 아래 부식토를 받는 산장밭에서도 고운 목소리가 울려왔다.

《오늘은 정말 너무 많은 일을 하는것 같은데...》

웃음진 얼굴로 연방 부식토구력을 달아매는 4분



조장 박동무의 검실한 얼굴에 땀이 번들번들 내배였다.

아래컨에선 벌써 모닥불이 황황 일어나고있었다. 이제 그 모닥불우에 부식토와 소석회, 퇴비를 섞어 쌓아놓기만 하면 아무리 추운 겨울날씨에도 며칠 가지 않아 저절로 온기가 퍼지며 완전히 썩게 되는 것이다.

리돈식영웅은 입가에 가벼운 미소를 짓고 모닥불을 바라보고있었다. 즐거운 겨울날이었다. 그에게는 이런 겨울날이 얼마든지 길어도 좋을것 같았다.

### 3. 크나큰 신임에 보답하고자

봄이 가고 여름도 삼복팔에 들어설무렵이다. 우물을 파고 굴포를 만들고 올해에는 가물과의 전투가 그 어느때보다도 치열히 벌어졌다.

구름 한점 걸리지 않는 8월의 하늘, 습기를 잃어가는 따거운 산장밭들, 리돈식영웅의 가슴도 마르다못해 타고있었다. 그는 사막을 걷는 사람처럼 목이 타드는것을 느끼며 15리 작업반구간을 오늘도 벌써 세차레나 올라오고 내려가고 무릎마디가 저려날 지경으로 산악길을 걸었다.

언젠가 잠진나왔던 의사들이 꺼떻게 타고 움푹 패인 그의 초췌해진 얼굴을 근심스레 바라보더니 좀 쉬어야겠다고 했다. 그후 인편으로 료양권을 보내온 일까지 있었다.

리돈식영웅은 실상 오늘까지 그것을 까맣게 잊고있는 형편이다. 차라리 자기 한몸이 못쓰게 되는한이 있더라도 강냉이만은 한포기도 죽일수 없으며 또 가물을 타게 해서도 안된다고 생각한 그였다.

4분조의 갈밭굴어귀에 이르러 물을 준 땅을 두쳐보던 그는 잠시 그 자리에 못박힌듯 서있었다. 물이 아직 맨 밑바닥 기본뿌리에까지 닿지 못했었다. 아무래도 물을 날라다 주어야 하는 높은곳의 산장밭들은 강우기나 수동뿔프로 물을 주는 비교적 낮은 곳의 밭들보다 물을 적게 먹고있었다. 땅이 바짝 메마를 때 물을 조금씩밖에 주지 않으면 농작물이 오히려 가물을 더 탄다는것을 그는 잘 알고있었다. 가물수록 물은 더 많이 주어야 한다.

(힘든 일이지. 산허리에 자리잡은 밭이 아닌가. 그만큼 물을 먹은것도 다행이야.)

자기도모르게 타협하려드는 생각이였다. 하지만 이 순간 가슴속 깊은곳에서 보다 크고 엄숙한 내부의 목소리가 자신을 질책하는것이였다.

머슴군의 자식에게 행복한 생활을 마련해주시고 가장 고귀한 정치적생명을 안겨주시고 공화국공민의 최고영예인 로력영웅칭호까지 안겨주신 아버지수령님,

산골농사를 잘 지어놓고 농업대회때 올라와서 한번 토론을 하라고 것처럼 크나큰 신임과 사랑을 베풀어주시던 아버지수령님.

지금 리돈식영웅의 귀전에는 동무들이 강냉이를 정보당 10톤 낸 다음에 한번 더 오겠습니다라고 하시던 아버지수령님의 자애에 넘치신 부드러운 음성이 들려오는것 같았다.

산간마을의 한 자그마한 작업반에 신임이 있으면 이보다 더 큰 신임이 어디 있겠는가. 이 신임에 보답하지 못한 당원을 어찌 아버지수령님께 충직한 당원이라 하겠는가?

그는 제잡담 산밑, 자그마한 내물이 흐르는곳으로 발걸음을 옮기였다. 거기서는 농장원들과 지원자들이 수동뿔프로 바께쓰들을 가지고 물을 주고있었다.

《동무들, 저 산장밭에 한번씩만 더 올라갑시다. 그러면 강냉이가 좋아서 춤을 출거요.》

그의 말에 모두 찬성이였다.

《자, 올라들 가자요. 강냉이가 춤을 추게시리-》

누군가 호기롭게 웨치며 앞장을 서자 모두 그뒤를 따라선다.

점심때가 되자 리돈식영웅은 꿈무늬에 차고왔던 점심밥을 먹고 인차 수동뿔프로 달라붙었다. 내물이 마르면 말랐지 자기 힘이 진할것 같지는 않았다.

이날 향풍협동농장 6작업반에 물주기를 나왔던 군의 일군은 리돈식영웅을 조용히 만나자 이런 말을 했다.

《난 반장동무가 그사이 료양을 떠났을줄 알았수다. 허허... 잘못 생각했지요. 반장동무가 언제건 료양가볼 사람이라구.》

《하하하... 내가 없다구 될 일이 안되구 안될 일이 되구 하겠습니까. 앞으 료양을 가봐야겠습니다. 아버지수령님께 기쁨을 드릴수 있도록 우리 작업반원들의 충성의 보고를 올린 다음에 말입니다.》

아버지수령님의 뜻을 받들어 산간농촌의 한 기슭을 지켜선 농업전사의 결심은 굳센것이였다.

로력영웅 리돈식작업반장은 언제나 농장원들의 앞장에 서서 그들을 힘차게 부르고있다. 김매는 계절에 사람들은 남보다 먼저 새벽이슬을 차고 밭고랑에 들어선 리돈식영웅을 바라보며 후더워지는 마음을 쉬이 묵새기지 못하곤했었다.

산간농촌을 지켜선 영웅작업반장은 오늘도 아버지수령님께 더욱 큰 기쁨을 드리기 위해 향풍산기슭의 산장밭마다에 값높은 충성의 땀방울을 깊이깊이 묻어가고있다.

# 승리한 가을이 설레인다

김송남

들은 풍년을 안아  
백리에 설레이고  
마음은 행복에 젖어  
천리를 달린다...

그 설레임 다 담지 못해  
별이 그만 넘쳐날듯  
어디나 《만풍년포전》  
벼바다 강냉이바다 끝없는 물결도  
목메여 그 무슨 말 세상에 전하는가

가을이란다. 가을도 만풍년의 가을!  
알알이 어버이수령님 주시는  
사랑이란다, 은덕이란다  
몸소 씨뿌리고 가꾸어주신  
주체농법의 알찬 열매란다...

세계를 휩쓰는  
한랭전선의 찬바람 막아주시며  
자옥자옥 걸어오신 두렁길  
축축히 이슬에 젖던  
그이의 옷섶을 흔들며 지나온 들바람이  
알찬 저 이삭들을 한껏 익히고

몸소 물감을 찾아주시던  
그 산기슭에 이어  
이 땅의 마지막 밭머리까지  
어디에나 출렁이는 우물과 굴포,  
깊숙이 박아넣은 그 줄짗들  
백년왕가물에 맞서 솟구쳐오르는  
새 젖줄기를 마시며 자란 강냉이포기들  
팔뚝같은 이삭들을 내밀었구나

오, 소중하다  
그래서 더욱 소중한 우리의 가을이다  
먼먼 지경의 낯선 대륙들엔

한파에 열파에 부대끼며 시달리며  
절망의 눈물속에 이 가을이 왔건만  
더 큰 기쁨을 펼치며  
조선의 가을은 이해에도 금빛으로 물들었구나!

우리 마음도  
저 빛으로 한껏 물든다.  
기계로 모를 낸 푸른 논벌에  
영양단지 강냉이모 뿌리 내린 더기에  
철따라 비로 주고  
살뜰히 더웁혀 물줄기 대어줄 때  
우적우적 키솟구는 그 소리에  
봐라, 여기도 《만풍년포전》이라던  
농민들의 그 기쁨을 거쳐 가을아 너는 왔구나!

아, 우리의 해살 언제나 밝고  
우리의 봄은 언제나 따사로우라고  
이 땅의 바람  
이 땅의 강물  
오곡을 키우며 언제나 부드럽고 풍만하라고  
이 세상 모든것 안아주시는  
수령님의 그 뜻은 사랑의 하늘  
세월처럼 무궁한 은혜의 창공...

조선의 가을아  
너도 이 하늘밑에 설레임을 자랑하자!  
이삭들아 열매들아  
너도 이 하늘밑에 싹틔고 꽃이 폈고  
오늘에 열매 맺음을  
기뻐하자! 기뻐하자!

아, 승리한 가을이 설레인다  
들은 넓어도 다 담지 못한  
어버이수령님의 그 사랑에 겨워  
백리 또 백리 넘치는 금나락,  
조선의 가을은 이 가을도 만풍년이다!

# 분배날 밤

전병구

쌀산우에 둥둥 북을 치는듯  
달이 뜬다, 보름달이 뜬다  
노래소리, 팽파리소리  
온 마을의 경사속에 분배장의 벼가마니

아직도 집집으로 실려가는 밤  
분배차를 앞질러  
얼룩이 멍멍이들 대문간 뛰어드는데

호두나무아지 사이로 내리는 달빛도  
 행복이 넘치는 방마다에 흘러들어라  
 텔레비죤과 라디오,  
 포개놓은 이부자리 천정에 꼭 닿은 집  
 땅이 생겨 처음 보는  
 대풍의 기쁨 분배의 기쁨을 받아안은 이 밤엔  
 고간도 넘쳐나  
 넓은 마당이 고간이 되었구나

달아 둥근달아!  
 귀뚜라미 처량히 울던  
 왜놈의 그 시절 오막살이 그 가을밤엔  
 쪽데기마저 앓은자리에서 다 떼운  
 그 마당가를 쓸쓸히 비쳐주더니

오 이 밤엔, 이 밤엔  
 온 마을 집집의 행복한 그 마음을 안고  
 하늘 중천에서  
 너도 환한 웃음을 웃는 이 나라 농민들의 얼굴이  
 되었구나

이 대풍의 기쁨을 주시려  
 농장벌의 솟는길도 몸소 헤치시고  
 풍년샘 솟아오르는 발머리에도 친히 서주신  
 어버이수령님의 그 사랑을 못잊어  
 너도 이 밤 금빛은빛을 뿌리는구나

그 사랑 받아안고  
 영양단지 애기모를 내던 그날엔  
 너도 밤도와 천리벌을 비쳐주는 등불이 되어  
 발머리를 떠나지 않았어라.

사나운 비바람에  
 한포기의 애기모가 상할세라  
 한포기 벼꽃이 흩어질세라  
 해불을 켜들고 떨쳐나섰을 때  
 충성의 그 마음에 이끌려  
 구름 갈피를 헤치며 너도 따라서지 않았던가

달이여 비치라  
 그 옛날 만석군 부럽지 않게  
 대풍의 이 기쁨을 안겨주신  
 수령님의 은덕에 목매여  
 이 밤도 기쁨속에 잠못 이루는  
 이 나라 농민들의 환희에 젖어  
 너도 쌀산우에 솟는 달이 되었구나

오, 오막살이 그 시절 그 밤엔  
 귀 떨어진 웅배기에 달을 담아놓고  
 이 풍년 이 행복을 소원으로만 그려 보았더니  
 꿈만 같은 이 밤 대풍의 이 밤엔  
 높이 솟은 벼가마니우에  
 밥상 같은 보름달을 둥둥 걸어놓았네.

## 분조장이 웃는다

김종백

굴러가는 가랑잎을 보고도 웃는다는  
 스물한살의 처녀시절  
 그 시절에 사는 우리 분조장

하지만 어느때부터인가,  
 소리내어 웃는 일이란 없고  
 제초기 몰아가는 흥겨운 논판에서도  
 노을이 내리는 저물녘 강변에서도  
 해무던 그의 웃음소리 들을수 없었네

분조장의 책임이 무거워선가,  
 간밤에 아지친 소담한 벼포기

안아보고 쓸어보며  
 농장원들 모두 웃음 일 때도  
 제먼저 논판에 들어서며 하는 말  
 -한벌만 더 김을 매자요

달빛 이고 짐으로 돌아오던 발머리길  
 강냉이이삭이 하도 실하여  
 쌍둥이아이를 업은것 같다고  
 누군가 룡담을 건널 때도  
 웃지도 않고  
 -새끼줄 한줄만 더 늘이고 가자요.

봄 여름 논밭에 꽃피어났던  
 갖가지 자랑을 두고 웃을수도 있으련만  
 그는 웃음을 몰랐네,  
 오직 만풍년의 가을만을 내다보며 불타는 그 눈  
 해놓은 일은 까맣게 잊고  
 할 일만을 생각하며 언제나 가슴불타는 우리  
 분조장,

선들바람에 설레이는 풍년벌  
 천만이랑 금물결속에 묻히어  
 벼가울을 하던 그날  
 총알같은 벼이삭을 쓰다듬으며  
 이슬 맺힌 눈으로 치너는 말하였네

-어버이수령님께서 기뻐하실거예요!

아득히 펼쳐진 황금벌이 그의 말을 받아외웠네  
 분조장의 얼굴에서 떠났던 그 웃음이  
 온 벌에 흐르고 하늘에 넘치는가,  
 기쁨을 안고 노래를 싣고  
 쏟아질듯 흥치며 벼이삭 설레이는 소리

종구나, 백학은 춤추고  
 벼수확기는 노래부르고  
 줄줄이 내리는 눈부신 해발아래  
 백리 논벌이 얼굴처럼 환하다  
 아, 우리 분조장은 이렇게 웃고있었네.

## 산촌의 풍년맛이

백일호

어허 세월이 좋아  
 이 땅에 떠실린 만풍년이 좋아  
 산허리에 울리는 프락프락 발동소리도  
 향기에 젖어드는 이 가을  
 나도 낫을 들고  
 씨엥씨엥 언덕길 오르오

저 보소  
 이 고장 산세를 닮아  
 층층 솟아오른 다락밭마다  
 숲처럼 들어찬 강냉이바다  
 이 땅에 쌓아올린 난가린가싶소

귀엽스러워  
 손자녀석 볼을 건드리는 마음인듯  
 저도 몰래 손이 가오  
 나무그루처럼 실한 강냉이포기마다  
 무겁게 엮힌 베개통같은 왕이삭들에

이게 정말 강냉이가 옹긴 옹소  
 이삭끝까지 둥글둥글 박힌 알알이  
 손에 알리오 손에 잡히오  
 아하, 이것이 정말 강냉이알인가싶소

풍년중에도 상풍년이 들었소  
 어린 아이 식성 헤아리는 다심한 마음으로  
 김을 매며 비료도 꺾어주고  
 이삭마다 꽃가루 묻혀주며  
 직심스레 밭에 산 그 나날뿐이겠소

왕가물로 무덤던 그 한낮  
 강우기가 뿔어올린 그 분수비가  
 어버이수령님의 사랑의 단비가 되어  
 풍년줍이 되어  
 이삭마다 기쁨이 촘촘히 여물었소

며칠만 가물어도  
 가을맛이 어설프던 산장밭이  
 그대로 난가리로 일어섰소  
 풍년열매로 짝 들어차 넘실대며  
 이 가슴에 흥을 돌구어주오

어허, 풍년맛이하라고  
 늙은 이 몸도 불려 힘을 주는  
 해종일 웃고싶은 가을이라오  
 하늘땅보다 더 큰 우리 수령님의 은혜에  
 기어이 보답하려는 이 가슴에  
 젊음을 되살려주는 좋은 계절이라오!

## 마지막 고개

한익훈

밤이 이슬해서 XX지구지질총국 합숙문으로 들어서는데 돋보기를 코에 걸고 신문을 읽고있던 경비원로인이 접수구밖으로 손을 내흔들며 나를 멈춰세웠다.

《중대장동무한테 편지가 왔군요.》

그는 네모반듯한 봉투편지 한장을 내밀었다.

《조국의 끝에서 보낸답니다.》

나는 싱글벙글 웃고있는 로인의 손에서 빼앗다싶이 하여 편지를 받았다.

로인의 말대로 정말 봉투의 뒤등에는 《조국의 끝에서, 아들 최명호올림》 이렇게 눈익은 글자가 또박또박 씌여있었다. 몹시 반가웠다.

내가 총국으로 출장떠나올 림박에 명호가 소년단 야영을 떠난다는 말이 있더니만 결국 야영소에서 보낸 그 애의 편지를 받아보게 되었다.

나는 방에 들어서기 바쁘게 창문열에 놓여있는 의자에 걸터앉아 봉투를 뜯었다. 그 어떤 애뜻하고 다정다감한 정이 마음속에 따뜻하게 차올랐다.

그 애의 편지는 길지 않았다. 야영소에 도착한 때로부터 이틀간의 생활을 전하는데 불과하였다. 긴 편지는 차후로 보낸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그 짧은 아들의 편지가 나의 심정에 불러 일으킨 충격은 작은 것이 아니었다.

…여기는 조국의 끝, 옥천리입니다.…”

이렇게 시작된 아들의 편지는 읽는 첫순간부터 나의 가슴을 몹시 높뛰게 하였다. 손이 떨리고 숨이 가빠졌다.

아마 집에도 명호의 편지는 가닿았을테지. … 명호 어미의 심정은 과연 어떠했을가? … 아니, 명호가 옥천리에 있는 소년단야영소로 떠나게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그때에 명호 어미는 벌써 지금의 내 심정을 체험하였을지도 모른다.

나는 창문턱에 팔굽을 짚고 두손으로 불을 켜켜 밤거리를 내다보았다. 하늘에는 별빛, 땅에는 불빛… 별빛, 불빛이 어울려 무르녹은 밤거리를 바라보는 나의 눈앞으로 영원히 잊혀지지 않고 또한 잊

을수 없는 수십년전의 일들이 꼬리를 물고 달려왔다.

나는 이 순간 아들 명호를 앞에 앉혀놓고 끝없이 이야기하고싶은 흥분을 금할수 없었다.

………

아들아, 너는 편지에 북받치는 자랑을 안고 썼다.

…아버지 **김일성** 원수님의 은혜로운 배려로 우리는 지금 두만강 푸른물이 소용돌이치며 흘러가는 조국의 한끝, 옥천리의 높은 산정에서 야영의 즐거움 나날을 보내고있어요.…”

조국의 한끝, 옥천리!… 네가 행복에 넘쳐 곱씹은 이 말이 나에게는 자꾸 놀랍게만 생각된다. 가슴 울렁거린다.

길지 않은 네 편지를 받아읽는 첫순간부터 무엇 때문에 아버지가 이다지도 생각깊어지는것일까? 아들아, 너는 상상도 하지 못할것이다. 꿈에도 짐작할수 없다.

네 나이 지금 13살, 바로 그 시절의 이 아버지도 옥천리마을에 가보았더란다. 하나 너희들처럼 즐거운 야영생활을 찾아 그리로 간것은 아니었다.

인젠 너도 수십번나마 들어서 잘 아는 이야기- 너의 할아버지, 할머니가 일년내내 뼈가 휘도록 지은 곡식을 하루아침에 소작료로 지주놈에게 다 털리우고 살길 찾아 류량의 길에 나섰던 그때에 가보았던 옥천리란다.

어린 나는 그때 우리가 왜 정든 고향을 떠나야 하는지 알수가 없었다. 그래서 나는 부뚜막의 솔을 뽑는 어머니에게 이렇게 물었다.

《엄마, 우리는 어디로 가나?》

어머니는 머리를 쳐들지 않은채 조용히 대답했다.

《좋은데로 가지.》

나는 어머니의 그 말을 믿었다. 정말 좋은곳으로 가는줄로만 알았다. 동네에 나가서 아이들한테 우린 이제 좋은곳으로 간다고 자랑까지 했더란다. 응채랑 서분이랑 바우랑 나를 은근히 부러워들 했지.

고향을 떠나던 날, 그 애들은 나를 배려해주려고 동구밖 멀리까지 따라나섰다. 우리들은 여느날처럼 왁작 떠들지도 않았고 장난질도 하지 않았다. 헤어지는 울적한 마음이 우리들을 어른처럼 만들어버렸는지도 모른다. 그 애들은 좋은곳으로 혼자만 가게 된 나를 끝없이 부러워했고 나역시 그 애들과 함께 좋은곳으로 가지 못하는 안타까움을 금할수 없었다.

삼천강언덕에서 헤어지게 될 때 바우가 씩씩거리며 주머니를 뒤졌다. 그리고 종이딱지를 무독히 꺼내더니 나에게 내밀었다. 어제만 하여도 우리들 사이에 영영 금이 가게 할것만 같았던 종이딱지였다. 나한테서 종이딱지를 몽땅 따냈다고 바우는 여간만 뽐내지 않았고 나는 한장도 남김없이 떼운 분함을 이기지 못해 눈물까지 흘리면서 단단히 별렀다.

무엇인가 곰곰히 생각하던 서분이는 공기돌 다섯개를 내 손에 꼭 쥐여주었다. 나도 귀중하게 여기던 모지라진 손칼을 꺼내어 그 애들한테 내밀었다. 그러면서 셋이서 같이 가지라고 말했다. 우리들이 헤어지면서 기념으로 줄수 있었던것은 이것이 전부였다.

나와 그 애들과의 리별은 이렇게 끝났고 우리 네 식구의 류랑의 길도 여기서부터 시작되었다.

우리가 가는 길은 좋은곳으로 잇닿아있고 그 길이 즐겁기만 하리라고 생각하고있었기에 나는 며칠간 내내 희망에 넘쳐서 활개치며 걸어갔다. 아버지를 멀리 뒤흔겨놓고 산언덕길을 뚫아오르기도 하였고 우정 턱없이 뒤흔어져서 들국화꽃을 꺾다가 어머니의 재촉을 받고서야 달려가기도 하였다. 험찍이며 달려가서는 어머니의 등에 업힌 누이동생의 고비같은 손에 꽃을 쥐여주기도 하고 겨드랑이에 손을 넣어 간지럽혀주기도 하였다. 그러면 성희는 너무도 좋아 어머니 잔등에서 훌쩍훌쩍 엉덩방아를 찼었다.

가는 걸음은 즐거웠다. 그러나 기쁨은 한순간에 불과한것이였다. 길은 끝없이 멀었다. 다리가 아프고 배가 고파나기 시작했다.

그때도 가을철, 너희들이 뺨스에 앉아 노래부르며 넘고 넘었다는 고개길을 나는 텅텅 부어오른 발을 끌며 걸어갔다. 너희들에게는 눈부시고 보기만 하여도 절로 노래가 흘러나왔다는 옥천리까지의 그 많고많은 고개길을 나는 참으로 힘들게도 갔었다. 한고개를 넘으면 또 다른 고개, 어쩌면 고개가 그리도 많더냐.

넘고넘어도 고개길은 끝날줄을 모르고 끝없이 저 멀리로 하얗게 감돌아나갔다. 아지랑이가 아물아물 끓고있는 고개길을 바라보느라면 눈에도 가물가물 줄음이 매달렸다.

나는 당장 그 자리에 쓰러져서 깊이 잠들고싶었다.

수정같이 맑은 물이 빨강게 단풍진 손바닥같은 나무잎들을 떠실고 흰바위우를 훑으며 돌돌 흐르고 노란 저고리에 빨간 치마를 떨쳐입은 산봉우리들이 푸른 하늘을 안고 빙글빙글 돌아가는, 끝없이 가고싶은 조국의 아름다운 산천, 이것은 너의 편지를 빌어서 이 아버지가 상상해본 가을풍경이다. 나는 너희들이 그 아름다움을 도저히 글로 그려내기 어렵다는 가을풍경을 조금도 기억할수 없구나. 그때 아버지는 자연에 눈길을 팔만치 생활의 여유를 못가진 소년이었다. 몹시 배가 고팠고 발이 아팠었다는 기억밖에 할수 없는 그것이 또한 내 가슴을 아프게 한다.

이 고달픈 고개길이 언제면 끝장날까?... 어쩌면 저 고개가 마지막이 되지 않을까?... 그때 이 아버지가 애오라지 바라는 소원이란 저 고개가 마지막이 되어주었으면 하는것이였다.

다리를 절룩거리며 어느 고개길을 오르다가 나는 그만 돌부리에 걸쳐어 앞으로 꼬꾸라졌다. 짙신 짙이 하나 벗어져 달아났고 나무가지에 굽히어 한쪽 주머니가 따지면서 바우가 준 종이딱지가 흩어졌다. 서분이가 준 공기돌도 땅바닥에 떨어져 굴러갔다.

아프고 분해진 나는 그 자리에 엉덩방아를 찼고 앉아 발바닥을 들여다보았다. 끔찍스러웠다. 발바닥에 물집이 콩마당처럼 잡힌것이였다.

나는 발버둥질하며 울었다. 자기도 알수 없는 그 어떤 원망이 가슴속에 그들먹이 차올랐다. 발이 아픈 고통도 고통이거니와 그 순간 고향떠난 서러움이 못견디게 사무쳐왔다. 배푼는 가난뱅이 자식들이였지만 생각할수록 그리워지는 응체, 서분이, 바우... 소꿉놀이 정다운 동무들이 동구밖까지 따라나와서 손을 흔들어주던 고향길로 다시 달려가고싶었다.

나는 울음을 달래는 어머니의 손을 뿌리치며 부르짖었다.

《집으로 가자, 집으로 가!》

순간 등뒤에서 벼락치는것 같은 목소리가 내 뒤덜미를 후려쳤다.

《갈테면 가봐!... 갈 집이 어디 있어, 어디에!》

흙칠 놀라 얼굴을 들어보니 광대뼈가 붙은 두드러진 아버지의 얼굴이 벌겋게 동해서 나를 내려다 보고있었다.

아버지는 한동안 노기서린 눈으로 나를 지켜보다가 짐을 벗어놓았다. 그리고는 묵묵히 물집이 진 내 발바닥을 성냥불로 지저주면서 혼자소리처럼 측은하게 뇌이였다.

《배도 고르고 다리도 아플테지. 그러나 가야 해. 돌아설곳은 어디에도 없어.》

나는 울음을 삼키었다. 아버지가 다시 노여워할까봐 두려웠던지, 아버지의 변함없는 그 다정하고 살뜰한 정이 내 마음의 서러움을 가셔주었던지 그것은 알수가 없구나.

한쪽에 쪼크리고 앉아 동생에게 젖을 빨리던 어머니가 손등으로 눈물을 훔치고있었다. 젖이 안온다고 보채는 동생에게 젖꼭지를 물리고 조그맣게 말라버린 젖통을 쥐여짜면서 좁은 어깨를 가늘게 떨던 어머니의 모습이 지금도 눈앞에 삼삼하다.

또 걸었다. 하루가 가고 이틀이 흘렀다. 지나온 고개길은 얼마며 넘어야 할 고개길은 얼마나 되는지 나는 알고고도 하지 않았다. 그저 가야 한다는 맹목적인 타성에 의지하여 가고 또 갔다. 더는 울지도 않았다. 울고싶지도 않았다.

찬비가 뿌리치던 어느날 밤부터 위낙 약골로 태어난 어린 동생 성희의 몸에 덜컥 탈이 났다. 출창 설사를 하고 젖도 잘 먹지 않았다. 머리는 불덩어리처럼 달았고 얼굴은 해말썽하게 여위여갔다. 정기 잃은 눈을 멍하니 뜨고 이 오빠를 쳐다보던 네 고모의 애처로운 그 얼굴이 지금도 이 가슴을 저며내는것 같구나. 아, 가슴 저려온다.

동생이 탈을 만난지 이틀이 지나서였다. 손에 매달려 끌려가다싶이하는 나를 돌아다보며 아버지가 말했다.

《인젠 다 왔다. 저 앞에 솟아있는 산을 넘으면 끝장이 난다.》

아버지는 우리가 넘고있는 고개너머로 구름을 휘감고 높이 솟아있는 시퍼런 산을 가리키였다. 《마지막 고개란다.》

나는 아버지의 손을 놓았다. 돌연 알수 없는 힘이 온몸에 샘처럼 솟구쳤다. 얼마나 기다리던 마지막 고개였던가. 나는 날것처럼 기뻐했다.

《다 왔다!》

나는 두손을 머리위로 활짝 펼치며 소리쳤다.

산울림이 그늘진 저쪽 산골짜기에서 마주 소리쳤다. 《다...왔...다...》

어서 저 높은 고개를 넘고싶었다. 단숨에라도 넘을수 있을것 같았다. 그 고개를 넘으면 미지의 신비롭고 황홀한 세계가 눈부신 광채를 번뜩이며 활짝 펼쳐지리라 믿어졌다. 정말 바라고 바라던 모든것이 저 고개너머에서 나를 기다리고있을것만 같이 생각되었다.

그러나 우리는 그 고개를 쉽게 넘을수 없었다. 동생의 병이 위태로워진때문이었다. 그래서 몇채의 동기와집들이 깊은 골짜기에 듅성듅성 자리잡고 앉은 초라한 동네에 머물게 되었는데 그 동네가 바로 옥천리였다.

우리는 아버지와 딸 그리고 늙은 할머니가 살고있는 길가의 집에서 동생의 병을 고쳐가지고 떠나기로 했단다. 나보다 두살 아래인 그 집 딸의 이름은 부엌너라고 불렀다.

우리는 인차 가까와졌다. 동무가 그리웠던 나였고 역시 동무가 그리웠던 부엌너였다.

우리는 눈만 뜨면 산에 올라가서 산열매를 따먹었다. 머루, 다래, 돌배... 가을철을 맞은 산에는 먹을 열매가 많았다.

날이 갈수록 동생의 병이 점점 더 심해가던 어느 하루, 아버지는 먼길을 떠났다. 언젠가 아편장사들이 아편을 가꾸는것을 보았다는 부엌너의 할머니말을 듣고 몇십리밖의 그 아편밭을 찾아 떠나갔다. 혹시 흘러버린 아편 한꼬투리라도 얻을수 있지 않을까 하는 간절한 소망을 안고...

그날도 나와 부엌너는 산열매를 따먹으려고 산에 올라갔다. 내가 돌배나무에 기어올라가 배를 따떨구면 밑에서 부엌너가 좁은 치마폭을 펼쳐들고 한알, 두알 받았다. 인젠 다 뺐다고 생각하고 내려오려는데 그냥 나무를 말뚝말뚝 쳐다보던 부엌너가 나무꼭대기를 손가락질해 가리켰다.

《성남아, 저기 또 한알.》

정말 높은 가지끝에 누렇게 익은 돌배 한알이 대롱 매달려있었다. 나는 위태롭게 가지위로 한치한치 뚝이나갔다. 말큰한 배가 거의 손에 닿을락말락할 때 딱! 하고 나무가지가 부러졌다.

나는 허궁잡이로 떨어졌다. 다행히 머루덩굴이 나를 받들어주었다. 아무데도 다치지 않은것이 신기하기도 하고 나무가지에서 떨어진것이 어처구니가 없기도해서 나는 손뼉을 치며 웃었다.

그러나 그때 부엌너는 이마를 찌르고 엉엉 소리내어 울었다. 그가 찌른 조그마한 손가락뿔에서는

빨간 피가 솟배어나오고있었다. 나무가지가 꺾어져 내리며 그의 이마를 찢는것이였다.

나는 바빠맞아 너덜거리는 잠뱅이 앞섶을 쪽 찢어 그의 이마를 동여맸다. 부엌너의 두눈에서는 흐느끼 때마다 커다란 눈물방울이 툭툭 떨어졌다.

《아프니?》

《아파. 막 쭈셔.》

부엌너는 눈을 찌프리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이걸 다 가져.》

나는 늘 똑같이 나누곤하던 돌배를 몽땅 그의 앞에 밀어놓았다.

나는 은근히 걱정되였다. 부엌너의 고운 이마에 상처를 입혀왔으니 어른들이 몹시 야단할것이기때문이었다. 그러나 집에서는 더 큰 불행이 우리를 기다리고있었다. 앓던 동생이 숨을 거둔것이였다.

어머니가 실신한 사람처럼 죽은 동생을 꼭 껴안고 목놓아 울고있었다. 나도 북받치는 설음을 터지며 동생의 하얀 손을 잡고 울었다. 싸늘하게 식어버린 동생의 손을 볼에다 비비며 울고 또 울었다. 고평히 감겨있는 동생의 그 별갈던 눈이 다시는 뜨이지 않는다는것이 믿어지지않았다.

갑자기 문이 벌럭 열리였다. 아버지가 문가에 장승처럼 서있었다. 굵은 땀줄기가 방안을 놀랍게 응시하고있는 아버지의 얼굴에서 번들거리어었다.

《여보, 성희가...》

어머니는 억이 막혀 말끝을 흐리며 동생을 안은채 방바닥에 쓰러졌다.

《끝내 갔구나!》

아버지는 꺼지는듯한 한숨을 폭 내쉬며 머리를 무겁게 떨구었다. 짙 틀어쥐는 아버지의 손아귀에서 아편이파리들이 푸실푸실 떨어지고있었다.

동생은, 네 고모는 이렇게 옥천리의 산기슭에 묻히였다. 끝내 마지막 고개를 넘어도 보지 못한채 저 세상에 가버렸다.

그 이튿날 아침, 우리 세식구는 다시 길을 떠났다. 어른들끼리 서로 그냥 함께 살자거니, 그동안 신세를 많이 졌다거니 하면서 인사말을 나눌 때 나는 내내가 풍기는 부엌문앞에 우두커니 서있었다.

부엌너의 할머니가 지팡이에 몸을 의지한채 떨리는 손으로 내 머리를 쓰다듬어주면서

《어린것이 이역에서 고생할것 생각하믄...》

한숨을 내쉬며 더 말을 잇지 못했다.

나는 할머니의 말을 리해할수가 없었다.

《할머니, 섭섭해하지 마시라요. 앞으로 종종 오겠어요.》

《저 고개가 그렇게 낮은 고개가 아니란다.》

웬일인지 할머니는 치마폭을 들어 눈가를 가리며 코를 훌쩍거리였다.

부엌너는 어디 심부름갔다는것이 그 시각에도 나타나지 않았다. 그를 만나지 못하고 떠나는것이 못내 서운했다. 그러나 고개 하나 넘으면 서로 자주 만날수도 있다는 생각이 그 서운한 마음을 어느정도 누그러들게 하였다.

우리는 부엌너의 아버지와 할머니의 바래움을 받으면서 산기슭의 하얀 오솔길에 들어섰다. 어머니는 자주 건너편 산등성을 돌아다보며 소리없이 흐느끼곤하였다. 거기엔 내 동생 성희가 누워있는 무덤이 도무룩하게 자리잡고있었다.

고개마루에 거의 올랐을 때였다.

《성남... 아!...》

산아래에서 누군가가 찢는 목소리로 나를 불렀다.

나는 돌파섰다. 머리에 형견을 동여맨 부엌너가 흰 보자기를 들고 달려올라왔다.

《부엌너야!》

나도 마주 향해 달려내려갔다.

우리는 서로 손을 마주잡았다. 부엌너는 눈물이 그렁해진 눈으로 나를 찬찬히 지켜보다가 땅에 풀썩 주저앉으며 울음을 터뜨렸다.

《너 이마가 아프니?》

부엌너는 머리를 흔들었다.

《아니야, 아니야... 너 가면 흑...》

그 순간 나도 흐느꼈다. 그 어떤 뜨거운 정이 가슴을 짝 메우면서 눈물이 쏟아졌다.

부엌너는 흐느껴 울며 땅에 펴놓았던 보자기를 들어 나에게 내밀었다.

《이걸 가져가. 배곶을적에 먹어. 이젠 어제 네가 준 돌배야. 난 널 주려구 한알도... 안...먹었어...》

아, 그때 나는 아버지가 우는것을 처음 보았다.

《애야!》

쓰러질듯 몸을 뒤흔치는 부엌너를 꼭 그러안은 아버지의 두볼로 커다란 눈물방울이 굴러내리고있었다.

《성남이네 아버지!》

부엌너는 아버지를 쳐다보며 발을 동동 굴렀다. 《가지 말라요. 우리 집에서 함께 살자요. 이 고개 저쪽은 남의 나라라는데...》

부엌너를 부둥켜안고있던 아버지의 두손이 부르르 경련을 일으키면서 풀려내리어었다.

나는 그때 아무것도 리해할수가 없었다. 부엌너가 던진 말이 어째서 그처럼 아버지를 당황하게 하는것인지 나로서는 오히려 놀라왔을뿐이였다.

그때 어머니가 아버지를 불렀다.

《여...보!...》

어머니의 목소리는 눈물에 젖어있었다.

《성희만 남겨놓고... 우리만 어떻게...》



아버지는 검은구름이 낮게 밀려오는 하늘을 묵묵히 쳐다보고있었다. 바람이 불었다. 참억새풀들이 와슬랑거리며 설레었다.

그 순간 나도 울었다. 성희생각이 떠올랐다. 어머니의 등에 업혀서 멀고도 험한 길을 나하고 줄곧 재롱을 피우며 여기까지 왔던 성희, 그 애가 지금 땅속에 묻혀있는것이다. 나는 그 애를 버리고 간다고 생각하니 마치도 산정에서 울고있는 애를 버리고 가는듯 마음이 괴로웠다.

《오빠야!...》

나는 분명히 성희의 울음소리를 귀전에 듣는것 같았다.

불시에 하늘과 땅이 뒤죽박죽이 되어 빙글빙글 돌아갔다. 나는 땅바닥에 퍼더버리고 앉아 발버둥질하며 울었다. 배가 고파서도 아니었고 다리가 아파서도 아니었다. 목메는 서글픔이 내 어린 가슴을 아프게 찢어내는것이였다.

나는 주먹으로 땅을 치며 부르짖었다.

《아버지, 가지 말자!... 가지 말자!》

그때는 언제처럼 아버지의 벼락치는것 같은 목소리가 내 뒤덜미를 후려치지 않았다.

어머니와 부엌녀의 흐느낌소리, 아버지의 깊은 한숨소리... 마음을 비틀어짜는 괴로운 순간, 순간이 흘러갔다. 나는 어망결에 아버지의 얼굴을 쳐다보았다. 수염이 덮인 아버지의 얼굴은 검고 땀에 젖어있었는데 그 어떤 크나큰 아픔을 참는 괴로움이 비껴있었다.

나는 울음을 그쳤다. 어린 마음에도 내가 아버지를 너무 괴롭혔구나 하는 후회가 들었다.

《성남아, 그만 일어나거라.》

아버지는 내 등을 짊으며 침통한 목소리로 말했다.

나는 군말없이 일어났다. 다시는 동생 성희에 대한 말을 하지 않으리라 속다짐했다. 나는 아버지, 어머니가 것처럼 가슴아파하는것은 동생 성희때문인줄로만 알았다.

그러나 아들이, 그것이 아니였다. 어린 자식을 외진 산기슭에 묻어버리고 가는 걸음이 아프고 괴롭지만 조국을 떠나는 그 슬픔이 얼마나 크고 비통한것인가를 나는 다 알지 못했다.

아버지는 애써 흐르는 눈물을 삼키는 내 등을 짊은채 떠엄떠엄 이렇게 말했다.

《내 나라의 기슭을 넘어서자니 이 가슴에 피눈물이 고인다. 하지만 지금은 불쌍한 우리를 품어줄 조국이 없구나.》

그리고 아버지는 등을 돌리였다. 그 아버지의 휘여든 어깨가 물결을 일으키듯 높이 오르내리고있었다.

너도 이미 짐작하겠지만 지금도 그때의 상처자리가 가느다란 실금처럼 왼쪽이마에 남아있는 네 어머니와 나는 울면서, 몸부림치면서 이 조국의 한끝에서 갈라졌었다. 정은 깊어도 가지 않을수 없었던 그 서러운 걸음, 그날은 두만강의 푸른 물도 슬픔에 겨워 흐느끼는것 같았고 비바람 안고 설레는 숲도 비분에 목메여 몸부림치는듯싶었다.

아들아, 이렇게 우리는 고향을 떠났고 끝내는 조국의 기슭마저 떠났었다. 한걸음, 한걸음이 천근만근으로 무거웠고 가슴이 미여지는것 같았지만 일제침략자들에게 빼앗긴 조국은 우리의 걸음을 멈춰세우지 못했다. 죽어서나 묻힐수 있어도 살아서는 건딜수 없는 내 나라, 내 땅이였다.

그로부터 두해가 지나서 그때의 부엌녀, 너의 어머니도 산설고 물설은 이역의 땅으로 넘어왔더라....

.....

벽시계가 땡땡 세점을 쳤다. 내 눈앞에 널려있는 별빛, 불빛들이 덩이를 이루어 병긋거리였다.

나는 자기도 모르게 괴여오른 눈물을 닦고 다시 아들의 편지를 읽어보았다.

...아버지, 여기는 조국의 끝이랍니다. 두만강 푸른 물이 굽이쳐 흘러가는 이 고개 저쪽은 다른 나라랍니다....

아들아, 진정 잠들수 없구나!

네 나이 어린시절에 고향을 잃고 나라를 떠났던 설움이 피눈물로 피었던 이 아버지의 멍든 가슴을 아들이, 자랑에 넘쳐 써보낸 너의 편지가 끝없는 환희와 행복으로 가득 채워주는구나.

떠날수 없는 고향이였고 조국이였지만 우리를 품어줄 고향이 없었고 조국이 없었던 어제날이였다. 세계지도에서 영영 빛을 잃을것만 같았던 조선이였다. 하나 아들이, 너는 땃땃한 자부심을 가지고 힘있게 말하고있다.

...이 고개 저쪽은 다른 나라랍니다....

그렇다. 인젠 떠날래야 떠날수 없고 순간이나마 떠났어도 못견디게 그리워지는 조국이다.

우리의 모든 행복과 희망과 생활의 보금자리인 조국, 귀중한 그 이름-어머니조국을 가진 행복감에 휩싸일 때마다 아들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주체의 조국을 일떠세워주신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원수님의 높이신 은덕에 감사를 드리자! 대를 이어 그이께 영원한 충성을 바치자!

## 창작적개성과 묘사수법들의 효과적리용

백영철

은 사회를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으로 일색화하기 위한 보람찬 투쟁으로 들끓는 사회주의현실이 요구하는 혁명적문학작품을 더 많이 창작하기 위하여서는 작가들이 문학작품창작에서 개성적특성을 뚜렷이 살리며 독창성과 비반복성의 원칙을 철저히 구현하는 창작가적자세를 가지는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위대한 수령님의 주체사상을 구현하고있는 우리의 주체적문예리론은 100명의 작가가 작품을 쓰면 100가지 작품이 나와야 하고 그 100가지 작품이 다 내용이 다르고 특성이 있어야 한다는것을 가르쳐주고있다.

작품창작에서 류사성과 모방은 사회주의적사실주의창작방법과는 전혀 인연이 없으며 사회주의적 사실주의는 다양하고 풍부한 현실을 개성화된 표현으로 더욱 생동하게 묘사할것을 요구한다.

개성적특성이 산 품위있는 작품을 창작하려면 작가들이 묘사수법들을 효과적으로 리용하는데도 창작적주목을 돌려야 한다.

작가들이 묘사형식들과 온갖 묘사수법들을 최대한으로 잘 리용하여야 형상의 표현력을 더욱 높일 수 있고 적은것을 통하여 더 큰것, 더 많은것을 보여줄수 있다.

묘사는 형상이 가지는 특성 즉 직관성, 조형성, 표현성, 그 가운데서도 표현성을 높이는데서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묘사란 구체적으로는 초상묘사, 심리묘사, 동작묘사, 자연묘사, 물체묘사... 등이다.

작가는 이러한 묘사수법들을 효과적으로 다양하고 생신하게 리용해야 개성적인 성격도, 생동한 예술적화폭도 창조할수 있다.

등장인물들의 개성적특징은 그들의 행동, 심리, 얼굴표정, 몸가짐, 말투 등에서 구체적으로 표현된다. 다시말하여 등장인물들의 성격은 그들의 외모, 심리, 표정, 몸가짐, 언어 등의 묘사 전체를 통하여 표현된다. 그러므로 현실에 있는 산 인간들의 다양한 모습을 현실 그대로의 구체성을 가지고 독창적으로, 개성적으로 그리기 위하여서는 작가들이 묘사수법들을 유효적절하게 리용하여야 하며 그를 통하여 자기의 창조적 지혜와 재능을 남김없이 발휘하여야 한다.

그리하여 초상묘사, 심리묘사, 동작묘사, 자연묘사, 물체묘사... 등 다양한 묘사가 성격의 개성화에 적극 이바지하고 초상, 행동, 심리, 대사 등이 서로 침투하고 교차하고 내적통일을 이루면서 역시 예술적형상의 독창성과 비반복성을 살리는데 적극 복무

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래야만 독자들은 주인공의 초상을 통하여 그의 내면세계를 들여다볼수 있으며 사상감정, 심리적움직임을 통하여 그의 행동과 그 결과를 예측할수 있다. 그리고 주인공의 행동을 통하여 그의 초상과 내면세계의 움직임 또한 생동하게 그려볼수 있다.

대사 역시 등장인물들의 성격을 개성화하는데서 중요한 수단의 하나다. 등장인물들은 세계관의 높이, 개성, 고양정도, 직업, 사회적직위, 취미와 기질 등에서 서로 다른 특성을 가지고있기때문에 대사에서도 자기의 특색을 가지고있다.

이 모든것은 심리묘사, 초상묘사, 행동묘사, 자연묘사... 등 위에서 이야기한 묘사수법들을 훌륭하게 리용하는 때만이 간결한 얹음새로써도 생동한 예술적화폭을 독자들의 눈앞에 펼쳐보일수 있다는것을 잘 말해준다.

묘사수법들을 유효적절하게 리용하여 예술적형상의 독창성과 비반복성을 보장하는데서 나서는 중요한 문제는 생활세부에 깊이 침투하고 그것을 분석적으로 그리는것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실생활을 생동하게, 심도있게 그려낸 사실주의적문예작품만이 사람들의 심금을 울릴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작가들은 현실을 잘 알아야 하며 인민대중의 생활속에 깊이 파고들어가야 합니다.》**

주체의 문예리론은 문학에서 인간을 구체적으로 생동하게 보여주려면 생활을 세부화하여 그려야 한다고 밝혀주고있다.

생활세부에 깊이 침투하고 그것을 섬세하게 그리는것은 성격의 개성화를 실현하며 새롭고 독창적인 종자를 아름답게 꽃피우는데서 본질적의의를 가진다.

생활의 풍부하고 다양한 모습과 갈피를 예리하게 포착하여 섬세하게 그려낼 때만이 생활의 온갖 음영과 색채, 온갖 아름다움과 의미까지 드러내는 그런 생동성과 발랄성으로 하여 사람들의 심금을 울리는 강한 힘을 가질수 있다.

이러한 생활세부를 섬세하게 포착하고 깊이있게 묘사해야 작품창작에서 류형성, 류사성을 극복하고 개성적인 특색을 나타낼수 있다.

생활세부의 섬세한 포착은 주인공과 다른 인물들의 호상관계에서 빚어지는 감정과 기분, 체험과 심리 즉 내면세계의 미묘하고도 복잡한 움직임을 파고드는데서 많이 이루어진다.

성격의 개성적특징을 밝히자면 다양하고 복잡한 인간관계속에서 드러나는 인간의 내면세계를 분석적으로, 깊이있게 보여주어야 한다. 그것은 모든 인간은 자기에게 고유한 내면세계를 가지고있으며 그 내면세계가 인간관계에 작용하고 또한 인간관계가 내면세계에 영향을 주기때문이다.

인간의 내면세계의 특징을 밝히며 성격을 개성화하는데서 중요한것은 그 인간에게만 고유한 심리적 특성을 다양한 각도에서 깊이있게 보여주는것이다.

작가들은 심리묘사를 통하여 주인공들의 사색과정, 심리정서적상태를 그리는데 모를 박아야 한다.

이와 함께 심리묘사에서 중요한것은 인간의 사상감정이 외적으로 드러나는 그의 행동을 생동하게 보여주는것이다.

인간의 심리를 그의 사상감정의 내적과정속에서만 보여주려고 하여서는 안되며 그것이 외적인 행동에서 감성적으로 포착할수 있게 보여주는것을 유기적으로 배합하여야 한다.

만일 작가들이 인간의 내면세계에 깊이 파고 들어가 사람들의 심금을 건드릴수 있는 그러한 세부들을 탐구하고 분석적으로 그리는것이 아니라 그런것을 하찮게 여기고 되도록 《핑장한》 사건의 줄거리만 세워가며 건성건성 거칠게 그리다면 그런 작품은 내용의 생활적충만성과 인상의 개성적생동성을 잃고 아무런 사상정서적충격도, 예술적감흥도 주지 못하며 따라서 생활의 진실한 반영을 기대할수 없다.

내면세계에 깊이 뚫고들어가 그것을 섬세하게 그리는것이 주인공들의 성격을 특징짓는데서 얼마나 중요한 의의를 가지는가 하는것은 장편소설 《충성의 한길에서》(1부)에서 악독한 일제식민지통치하의 고역속에서도 주인공 정순이가 남몰래 가꾸는 소중한 꿈을 그린 대목 하나만 놓고보더라도 잘 알수 있다.

소설은 하루종일 지주집 연자방아를 돌리고도 헤어무는 산에 올라 봄내, 여름내 가냘픈 손으로 산나물을 뜯고 버섯을 따서 어머니의 숙수치마 한감을 마련하였을 때의 정순이의 심리적움직임을 생동하고 깊이있게 보여주고있다.

《정순이는 기쁘고 행복했다. 버르고버르던 어머니의 치마감을 사고나니 별생각이 다 났다. 앞으로는 꼭 울케의 치마감도 끊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기성이의 옷감을 사야 하겠다는 생각도 들었다. 아니 어쩌서 그것뿐일가? 인남이의 색동옷, 오빠의 옷감도 끊어야 할것 아닌가! 그 누구의 옷이던 죄다 자기의 힘으로 한벌씩 마련해주고싶었다. 이 사랑하는 식구들이 다 자기가 마련해준 새옷들을 입고 한집안에 모여앉아 웃음꽃을 피우며 즐겁게 살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가! 이 그런 날이 있을가? 우리가 혁명을 해서 이기고 나라가 해방되면 그런 날이 오지 않을까? 왜놈들이 다 없어지고 조선이 독립해서 우리 집식구가 두만강나루배를 타고 건너가

그립던 회령땅 옛집터에 새집을 짓고... 아 그때에야 눈물도 걱정도 없이 온 집안이 꽃밭처럼 되고 웃음소리가 차넘치지 않을까? 부디 그런 날이 있어 주려마. 내 그런 날을 위해서야 무얼 아끼고 무얼 고달프다 생각하랴! 정순이는 꿈이 부풀어 즐겁고 눈물이 났다.》

장편소설은 이처럼 사람답게 살아보려는 정순이의 소박한 념원이 조국해방의 념원과 잇닿아있다는것을 치밀하고 깊이있게 보여주고있다.

초상묘사, 심리묘사, 동작묘사, 물체묘사 등 다양한 묘사수법을 리용하는데서 또한 중요한것은 특징적인 세부를 그리는것이다.

주체의 문예리론은 예술적형상의 가치는 결코 백이라는 수자에 있는것이 아니라 하나의 깊이에 있으며 백에서 백을 보여주는데 있는것이 아니라 하나에서 백을 보여주는데 있는것만큼 작가는 백에서 하나를 고를줄 알아야 하며 백을 보여주기 위하여 하나의 형상을 집중적으로 그릴줄 알아야 한다고 가르치고있다.

작가에게는 자기의 그 어떤 창작적의도를 표현하기 위하여 백가지 천가지의 세부를 선택할 가능성이 주어져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 하나가 백을 대신할만한 그런 특징적이며 본질적인 세부, 창작가의 의도를 가장 명백하고 심오하고 생동하게 표현해줄수 있는 그런 세부를 골라잡는것이 중요하다. 작가의 예술적기교의 높이는 바로 특징적인 세부가 가지고있는 표현성을 최대한으로 리용하는데 있다.

작가의 능력은 바로 하나에서 백을 보여주고 백을 보여주기 위하여 하나를 골라잡고 집중적으로 그려내는데 있다.

작품에 그러한 생활세부가 비록 자그마한것일지라도 그것이 대상의 본질과 특징을 그 전모에서 뚜렷이 드러내고 생활의 본질과 그 합법칙성을 구현한것이라면 사람들의 기억속에 오래동안 살아있게 된다.

류사한 인물설정, 비슷한 정황묘사, 혼한 자연묘사, 일반적이며 상식적인 심리묘사를 가지고서는 그것들이 담고있는 사상미학적의의를 진실하고 생동하게 밝혀낼수 없으며 따라서 독자들에게 아무런 예술적감흥도 불러일으킬수 없다.

작가는 눈에 보이지 않는 세부에서도 생활의 진실을 보여주기 위하여 진지하게 노력해야 한다. 하나의 세부를 통해서도 성격 및 심리의 특징, 정황과 나아가서는 시대의 특징을 나타낼수 있는 거기에 묘사의 강한 힘이 있다. 그러한 세부를 붙잡고 집중적으로 그리는것이 묘사의 기교이다.

가령 주인공의 외모를 그리는 경우에도 그것을 다 그릴것이 아니라 그의 성격이 잘 드러나도록 그 어떤 특징적인 세부들을 집중적으로 그려야 한다. 왜냐 하면 초상묘사의 필요성은 인물성격을 특징화하는데 있기때문이다. 따라서 작가는 주인공의 성격이 잘 드러나도록 외모의 그 어떤 특징적인 세부

들을 골라잡고 그의 내면세계까지 읽어볼수 있도록 형상적으로 그려야 한다.

만일 작가가 초상묘사를 주어야 할 곳에서도 주지 않고 인물의 생김생김의 일반적면모만을 준다면 그 인물이 어떤 인물인지 독자들의 눈앞에 떠오르지 않을것이며 그만큼 개성이 없는 두리뭉실한 인물로밖에 되지 못할것은 명백하다.

인물들의 동작을 그리는 경우도 마찬가지다.

동작묘사 역시 인물들의 성격을 특징짓는데 복종되는것만큼 걸음걸이, 손짓, 표정 등을 그 인물만이 습관적으로 하는대로 개성적인 동작으로 보여주어야 한다. 매개 인물의 동작을 개성적으로 묘사하려면 그에게 고유한 특징적인 세부를 예리하게 포착하고 생동하게 그려야 하는데 이것 역시 작가의 개성과 기교의 높이에 따라 각이하게 실현된다.

물체묘사도 성격창조에서 중요한 묘사수법이기 때문에 잘 리용하여야 한다.

인물들이 일상적으로 즐겨 사용하는 가구와 물품 등은 매개 인물의 교양정도와 개인적취미, 생활습성과 처지 등을 표시하는 증거품과도 같다. 그러므로 적중한 물체묘사는 주인공들의 교양정도와 취미, 그들의 생활습성과 처지 등에 대한 몇십배에 달하는 설명보다 더 구체적이고 진실하며 더 생동하고 표현적일것이다.

대사 역시 생활적이며 개성적이면서도 간결하고 철학적인것이여야 한다. 대사는 서술보다 많은 비중을 차지할수는 없지만 인간성격을 특징짓는데서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며 작가의 창작적개성과 예술적기교의 높이를 규정짓는 기본분야의 하나이다.

뜻이 깊고 생활적이며 인간성격을 특징짓는 대사는 사람들의 기억속에 오래동안 남아있게 된다. 다시한번 입속으로 뇌이고싶고 그럴수록 그 깊은 뜻이 안겨오는 대사는 작품의 철학적깊이를 그대로 담보하여주며 인물들의 개성적특징을 그만큼 더 깊이있고 생동하게 보여준다.

잘된 대사란 그뒤에 설명을 달지 않고서도 말하는 사람의 표정, 감정상태가 떠오르게 하며 정황이 드러나며 분위기가 느껴지는 그런 대사여야 한다.

이 모든것은 특징적이며 전형적인 세부들의 선택이 인물성격을 특징짓는데서 얼마나 중요한 의의를 가지는가 하는것을 뚜렷이 보여준다.

그런데 이러한 묘사수법들을 어떻게 리용하는가 하는것은 매개 작가의 창작적개성에 속하는 문제이다.

작가들은 제 나름으로, 자기의 개성과 방법에 따라 성격묘사의 각이한 수법들을 리용한다. 어떤 작가는 대화와 행동을 통하여 성격을 창조하는데 특색이 있다면 다른 작가는 자연묘사에 많이 의거하고있다. 또한 이러한 묘사수법들이 비교적 조화롭게 배합되어있는 작품도 있다. 어느 방법이 더 좋은가고 시비할 필요는 없다.

다만 어느 방법을 택하든 군더더기가 없이 적은

것으로 큰것, 더 많은것을 얻어내면 그만이다.

다음으로 작가들은 생활세부에 깊이 뽇고들어가 성격의 개성화에 도움을 주는 특징적인것, 전형적인것을 예리하게 포착하여 그것을 분석적으로 그리는것과 함께 잡다한 세부들을 끌어들여 예술적효과를 나타내는데 지장을 주는 경향을 철저히 경계하여야 한다.

주체의 문예리론은 생활에서 흔히 있는 사실이라고 하여 그것이 다 전형적인것이라고는 볼수 없다고 가르치면서 비정상적이며 사발적이고 잡다한 생활세부를 그리는 창작태도를 철저히 경계해야 한다는것을 밝혀주었다.

창작가들이 하나의 세부를 가지고도 백을 련상시킬수 있는 그러한 특징적인 세부를 골라잡는데 무관심하면 필연코 불필요한 세부들이 판을 치기 마련이다.

작품에는 부족한것도 없어야 하지만 불필요한것도 없어야 하며 더 보탬것이나 빼버릴것이 없어야 한다.

작품창작에서 성격의 개성화를 실현한다고 하면서 잡다한 생활세부들을 끌어들여 동일한 농도로써 묘사할 때에는 형상들의 색조에서 강약이 없는 평균화가 이루어짐으로써 사람들의 인상에 깊이 남는것이 없게 되며 엷음새의 예리화와 기복이 또한 이루어지지 못한다.

묘사수법들을 리용함에 있어서 잡다한 세부들을 끌어들여 성격을 개성화하려는 경향은 작가들의 지나친 로파심과 소심성 그리고 예술적기량이 낮은데로부터 흘러나온다.

작품창작에서 개성적특성을 살리기 위하여서는 작가들이 대답하여야 한다.

작가는 설교가의 립장에 서지 말아야 하며 지나친 로파심과 소극성에서 벗어나야 한다. 그럴때만이 묘사에서 개성적특성을 살리고 여운을 남겨둘수 있으며 사람들을 작품속에 완전히 끌어들여 함께 모색하는 위치에 세울수 있다.

이 모든것이 보여주는바와 같이 초상묘사, 심리묘사, 행동묘사, 물체묘사, 자연묘사 등 다양한 묘사수법들을 밀접히 결합시켜 잘 리용하는것은 인간의 내면세계의 고유한 특징을 구체적으로 진실하게 밝히며 성격적특징을 뚜렷이 살리는데서 매우 효과적이다.

묘사수법들을 효과있게 리용하며 특색이 있는 작품을 창작하려면 작가들이 옳은 창작적립장과 자세를 가지고 창작사업에 립해야 한다. 작품창작에서 독창성과 비반복성의 원칙을 철저히 구현하는 창작가적자세와 립장은 성격의 개성화를 실현하는 다른 모든 문제와 마찬가지로 묘사수법들을 다양하고 생신하게 리용하는데서도 근본문제로 제기된다.

창작사업이란 말그대로 항상 새롭고 독창적인것을 창조하는 과정이다. 그러므로 독창적이며 비반복성의 원칙을 구현하는 립장과 자세는 창작가의

립장과 자세로 되지 않을수 없으며 이러한 근본립장과 자세를 가지지 못하였을 때 그는 창작가로서의 존재가치를 잃어버리게 된다.

작가는 언제나 작품창작에서 개성적특성을 살리며 독창성과 비반복성의 원칙을 철저히 구현하는 창작가적립장과 자세를 견지하여야 하며 그런 립장과 자세에서 창발성을 전면적으로 높이 발휘하여야 한다.

작가들은 독창적이며 비반복성의 원칙을 철저히 구현하는 창작가적자세를 견지하기 위하여 독창적

으로 대담하게 생각하고 대담하게 창작하는 동시에 창작적인 탐구와 당적안목에 기초한 창작적사색을 깊이있게 하고 높은 창조적열정을 발휘하여야 한다.

작가들은 창작가적립장과 자세를 확고히 견지하는것과 함께 사상미학적준비를 갖추어야 한다. 작가들은 또한 사상적준비를 갖추는것과 함께 작가적기량을 끊임없이 높이고 형상의 표현력을 더욱 높여 특색이 있는 훌륭한 작품을 더 많이 창작해내야 할것이다.

## 지상토론

# 생활의 요구와 단편소설

## 백경을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의 기치밑에 그 어디를 가나 새로운 기적과 전변이 일어나고 모든 사람들이 주체형의 새 인간으로 변모되어가고있는 오늘 사회주의현실은 비할바없이 다양하고 풍부한 생활내용으로 충만되어있다.

이러한 벽찬 현실은 우리의 전통적단편소설문학으로 하여금 주제와 성격의 유형성, 단조성을 철저히 극복하고 참신한 종자와 새로운 인간성격들을 다양한 각도에서 폭넓게 탐구하고 심오하게 천명할것을 요구하고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작가들이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사상이 빛나게 구현되고있는 들끓는 현실에 더욱 튼튼히 발을 붙이고 다양한 생활령역에서 의의있는 종자를 독창적으로 잡아쥐며 서로 다른 모습으로 독자들을 교양할수 있는 각이한 새형의 인간전형들을 적극 찾아내어 빛나게 형상화하여야 한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오늘 우리의 작가, 예술인들이 공장이나 농촌에 내려가 특별히 관심을 돌려야 할것은 새형의 인간들을 찾아내고 그들의 생활을 구체적으로 잘 연구하는것입니다.》**

위대한 수령님의 이 교시는 우리의 문학작품들이 언제나 비반복적인 새형의 시대적전형들을 독창적으로 탐구하고 창조하는데로 지향되어야 하며 시대정신을 민감하게 구현하여야 한다는것을 가르쳐주고있다.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위업을 다그쳐가는 우리 시대가 낳은 주체형의 혁명가들의 성격에서 본질적특징으로 되는것은 아버지수령님에 대한 끝없는 충성심이다. 그리므로 오늘 우리 근로자들의 확고부동한 생활신념으로 되어 그들의 투쟁과 생활에서 다양하게 발현되고있는 아버지수령님에 대한 다함없는 충실성을 독창적으로 탐구하고 예술적으로 심오하게 밝혀내어 새형의 인간, 주체형의 인간성격의

새로운 본모기를 다양하게 창조하는것은 현시기 우리 단편소설문학이 해결해야 할 초미의 문제의 하나로 된다.

최근 현실주제단편소설들은 이러한 방향에서 탐구적지향들이 높이 발양되고있다고 생각한다.

지난해 잡지 《조선문학》에 발표된 단편소설들 가운데서도 새세대의 혁명전위들인 3대혁명소조원들을 훌륭히 형상한 《해빛을 안고 온 청년》(리종렬), 《기쁨》(정성훈) 등과 함께 《30년후》(김청남), 《위성들》(장수근) 등은 이러한 지향을 훌륭히 보여주고있다.

단편소설 《30년후》, 《위성들》에는 당정책적립장에서 의의있는 문제성을 제기하고 그것을 독창적으로 심오하게 천명하려는 작가적지향이 뚜렷이 나타나있다.

이 단편들은 새로운 종자, 새로운 성격을 발견하는데서와 그를 예술적으로 가공하는데서 독창성을 보이고있으며 평범한 생활의 한 단면을 가지고 우리 시대의 본질적특성과 새로운 인간의 면모를 훌륭히 보여주고있다. 이것은 새로운 종자, 새로운 성격에 대한 독창적인 발견과 예술적구현으로 우리 단편소설문학의 화원을 더욱 풍만하게 하려는 작가들의 창조적열정의 산물인것이다.

단편소설 《30년후》는 오직 아버지수령님에 대한 충성의 일념을 안고 해방후 30여년을 이름없는 산간벽지에서 남이 알아주건 말건 혁명이 맡겨준 초소를 책임적으로 지켜오고있는 성실하고 참된 한 당원의 모습을 통하여 사람이 한생을 빛나게 산다는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는 심각한 사회적문제에 심오한 예술적해답을 준 작품이다.

긍정적주인공인 정확섭교원은 원래 타고난 음감과 뛰어난 음악적재능을 가진 청년이었다. 그로 하여 그에게는 명성을 높이 떨칠 화려한 무대로 갈 기회가 얼마든지 많았다. 그러나 그는 해방직후 그 복잡하고 어렵던 나날에도 이름없는 산간벽지에까지 찾아오시여 우리 노래를 배우지 못하고있는 산

끝아이들의 생활을 보시고 오래동안 떠나시지 못하시던 아버지수령님의 그 깊은 심려를 덜어드려야 할 당원의 순결한 양심을 안고 높은 명예와 화려한 꽃다발이 기다리는곳으로가 아니라 랑림산밑 벽지의 학교로 가며 거기서 오늘까지 30여년간을 후대교육을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쳐오고있다.

작품은 정당하게도 주인공의 이러저러한 생활경로를 펼쳐보이는데 치중한것이 아니라 그와 그의 관계인물인 김진규(30년전에 헤어졌다가 오늘 다시 만나게 되는)의 성격적특질들이 집약적으로 드러날수 있는 한도막의 특징적인 생활국면을 독창적으로 탐구하고 깊이 있게 파보여주고있다.

작품은 이를 통하여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열화같은 충성심으로 특징지어지는 우리 시대 주체형의 새 인간들의 고상한 사상정신적품모를 감명깊게 보여주면서 아직 주인공처럼 높고 숭고한 정신적높이에 이르지 못한 김진규의 가슴속에서 일어나는 자기반성의 극적체험과 정서적과동을 실감있게 밝혀내고있다.

짙막한 이야기속에서 자신을 뼈아프게 뉘우치는 김진규의 눈을 통하여 우리에게 비쳐진 정학섭의 모습은 이제는 머리에 흰서리가 내리기 시작한 나이이지만 결코 로세대로서가 아니라 새형의 인간으로서 숭고하고 아름다운 그리고 로쇠와 침체를 모르고 계속 혁명적기상으로 나래치는 진정한 주체형의 새 인간으로 가슴뿌듯이 안겨오는것이다.

주인공의 형상이 이처럼 생활적인 공감을 가지고 독자들의 가슴에 뜨겁게 안겨오는것은 단순히 대담성, 용감성 등으로 특징지어지는 성격의 외형적모습이 아니라 주체형의 새 인간들의 심장깊이 간직되어있는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다함없는 충성심을 개성적으로 훌륭히 구현한데 있다.

《영수야, 빛나게 산다는것을 요란한 명성이나 사람들을 놀래울 공훈과 직선적으로만 생각해서는 안된다! 그것은 보다 넓고 숭고한것이야... 그리고 자기에게 차례질 훈장이나 표창을 조금이라도 생각한 영웅적위훈은 그것이 아무리 놀라운것이라 해도 참다운 의미에서의 빛나는것으로 되지는 못한다. 오직 티없이 깨끗한 마음으로 아버지수령님과 우리당을 따르고 어디서나 진심으로 받들고 일해나가는 거기에 빛나는 생활이 있는것임을 알아야 한다!》

언제나 심장속깊이에 이렇듯 순결한 충성의 마음이 흘러넘치는 그였기에 아버지수령님을 진심으로 받들어나가는 길에서 한치의 드림이라도 생겼다고 생각되면 잠시도 참지 못해하며 쏟아지는 폭우속의 40리 험한 산길을 한밤중에 넘나드는 그 기상이 더없이 진실하게 안겨오는것이며 그의 숭엄한 정신세계앞에 그 누구도 머리숙이지 않을수 없는것이다.

그의 이러한 순결하고 고상한 정신세계는 바로 30년전에는 세포의 결정으로 그에게 임무를 주었고 혁명의 이름으로 그를 타이르던 김진규, 오늘에 와서는 육체적로쇠와 함께 찾아드는 정신적로쇠를

《공로》와 《나이대접》으로 응당하게 받아들였던 김진규의 준렬한 자기반성적주정도로에 안받침되어 더욱 뚜렷이 부각되고있다.

이처럼 작품은 가장 빛나는 생활이란 그 어디에서 무슨 일을 하건 관계없이 오직 아버지수령님을 진심으로 받들고 끝없이 충성다해나가는 거기에 있다는 심오하고 독창적인 종자를 우리 시대 새형의 인간성격의 본질적특질의 개성적해명을 통하여 훌륭히 꽃피우고있다.

이와 함께 어제날의 영예를 오늘의 투쟁으로 더욱 빛내여가려는 충성의 열정이 계속 세차게 타오르지 못할 때 그 누구든지 시대의 거세찬 흐름에서 변두리에 밀려나지 않을수 없다는것을 김진규의 형상을 통하여 생동하게 보여줌으로써 독자들로 하여금 김진규의 립장에 자신을 세워놓고 자기의 생활을 맹렬하게 돌이켜보지 않을수 없게 하고있다.

바로 여기에 문예작품은 사람들에게 교양과 교훈을 줄수 있도록 되어야 하며 어떻게 살고 어떻게 일해야 하는가 하는것을 보여줄뿐만아니라 그렇게 하도록 요구해야 한다는 공산주의인간학의 요구를 옹계 구현한 이 작품의 사상예술적성과의 하나가 있는것이다.

보는바와 같이 우리 시대 새형의 인간들에게서 다양하게 발현되는 성격적특질들을 새로운 각도에서 독창적으로 탐구해내고 그를 시대정신의 높이에서 깊이있게 일반화하는것은 작품의 사상교양적의의를 높이는 중요한 담보로 되고있다.

단편소설 《30년후》가 독자들에게 깊은 인상과 사색의 여운을 남겨주는 개성이 뚜렷한 작품으로 될수 있는것은 또한 제기한 문제와 인간성격이 새롭고 독창적일뿐만아니라 형상구성과 수법에서의 새로운 시도와 적지않게 관련되어있다.

단편소설의 형태적특성을 잘 살리는 조건에서 작품의 양상과 형상구성, 수법을 새롭고 다양하게 하는것은 류사성과 단조성을 극복하고 다양하고 풍부한 현실생활을 진실하게 반영하는데서 매우 중요한 문제로 된다.

여기에서 작가들이 독창적으로 탐구과악한 생활에 기초하여 극조직과 문학적인 이야기를 짜는데서 기발하게 착상하고 새로운 형상구성수법들을 대담하게 들고나오는것이 중요하다.

현실의 다양한 생활을 각이한 단면들에서 반영하는 단편소설창작에서 새로운 예술적경지의 개척이 없이 몇개의 고안된 구성적 《틀》에 의하여 인간관계와 생활이 그려진다면 작가가 아무리 새로운 주제와 새로운 인간성격을 탐구했다 해도 새맛이 없고 류사성과 단조로움을 피할수 없게 될것이다.

단편소설 《30년후》의 작가는 흔히 있을수 있는 평범한 생활의 한 단면을 가지고도 내용이 심오하고 극적인 긴장성과 흥미가 있는 참으로 문학적인 이야기로 꾸림으로써 짙막한 이야기속에서 시대의 본질과 등장인물들의 성격적특질을 훌륭히 보여주는 단편작가다운 개성적인 솜씨를 보여주고있다.

단편소설 《30년후》는 매우 짧은 소설이다. 물론 소설이 짧다는 그것만으로는 장점이 될수 없지만 극적으로 잘 엮어진 짧고 맵짱 이야기속에 독자들의 흥미를 집중시키고 심금을 울려주는 심오한 내용을 담기만 했다면 단편으로서는 그것처럼 좋은 일이 없을것이다.

《30년후》는 그 제목이 말해주다싶이 등장인물들의 짧지 않은 생애에 대한 이야기지만 생활에 대한 극적인 파악에 기초해서 대담하게 생략하고 집약하고 비약시키면서 시대와 성격의 본질과 의미가 한꺼번에 드러날수 있는 생활의 예각을 독창적으로 포착하고 지성이 반짝이는 예리하고도 빈틈없는 섬세한 필치로 깊이 파고들어감으로써 심오한 사상적내용과 함께 그 어느 단편과도 자기를 구별하는 독특한 얼굴을 가지게 되었다. 판에 박은 환경묘사와 인물소개, 주인공의 생활을 따분한 서술로 늘어나가는 구태의연한 틀에 매운 긴 소설보다 잡아챈 종자를 형상적으로 천명하기 위한 하나의 과녁에 초점을 집중시킨 짧은 이 단편은 얼마나 더 힘있고 생동하며 인상적인가!

여기에 이 작품이 보여준 긍정적인 시사의 또 하나가 있다.

우리 작가들은 참신하고 심오한 주제와 성격, 새로운 인간관계와 소설적인 이야기거리를 탐구하면서 이 모든것을 예술적으로 실현하여주는 표현수단들과 수법들을 새롭게 개성적인것으로 되게 하는데서도 높은 창발성을 발휘해야 한다.

새롭게 착안하고 새롭게 발견한 생활도 만약 그것이 그에 맞는 새로운 형상수단들을 가지지 못하면 은을 낼수 없으며 빛을 뿌릴수 없다. 생활이 다양하고 풍부한 그만큼 그를 반영하는 단편소설의 양상도, 구성수법도 다양하고 풍부해야 할것은 물론이다.

종자를 꽃피우는 각도에서 인간성격들과 실생활을 생동하게 형상화하는것은 작품의 사상주제적과업을 명백히 천명하고 주인공을 생동하게 개성화하기 위한 필수적과업의 하나이다.

단편소설도 포함하여 묘사의 문학적인 소설작품들은 특히 생활을 현실 그대로의 구체성과 생동성을 가지고 풍부하고 심오하게 그려내야 산 인간의 전형을 진실하게 창조할수 있으며 시대정신을 옹기 구현할수 있다. 풍부하고 심오한 생활화폭속에 구현되지 못한 성격은 무미건조하고 추상적인 성격으로밖에 될수 없으며 사람들에게 감성적으로 파악되어 깊은 인상과 미학적정서적영향을 줄수 있는 예술적성격으로는 될수 없다.

사람들의 가슴속에 오래 살아남은 우수한 단편소설들은 참신하고 의의있는 종자와 함께 생동하고 심도있는 풍부한 생활로 하여 더욱 깊은 인상을 안겨주며 짙막한 단편소설을 통해서도 당대의 시대상까지 훌륭히 그려볼수 있는것이다.

최근 우리 단편소설들에서 풍부하고 심오한 생활 묘사로 잡아챈 종자를 뚜렷이 천명하고 성격형상을

생동하고 인상깊게 개성화한 작품은 단편소설 《위성들》이다.

이 단편은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이 새로운 높은 단계에서 힘있게 추진되고있는 오늘의 벅찬 시대적화폭을 현실 그대로 생동하게, 박력있게 안겨주고있는데서 특징적이다.

단편소설은 어버이수령님에 대한 끝없는 흠모와 불타는 충성심으로 가득차있을뿐만아니라 위대한 수령님식 사업방법을 따라배우며 실지 구현하고있는 혁명의 지휘성원인 한 당일군의 성격을 창조하면서 생활의 탐구와 묘사수준을 상당한 높이에서 보여주고있다.

생활을 깊이있게, 풍부하게 그리는데서 인간관계를 생활의 본질적측면에서 작품의 사상주제적과업에 맞게 옹기 설정하는것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단편소설 《위성들》은 사회주의현실을 주제로 한 작품에서는 갈등이 없는 경우도 있다고 하신 위대한 수령님의 가르치심을 구현하여 갈등없이 혁명의 주인으로서의 높은 자각을 지닌 우리 시대 인간들의 호상관계를 주인공 마진욱을 축으로 하여 다양하게 뿔어주면서 거기에서 벌어지는 생활들을 세부적으로 깊이있고 풍부하게 그려내어 하나의 생동한 시대적화폭을 창조하였으며 주인공의 성격을 두드러지게 전형화하고있다.

확실히 이 단편에는 생활이 있고 랑만이 있고 시대적맥박이 세차게 뛰고있다.

주인공인 군당책임비서 마진욱의 성격이 왕성한 사업의욕과 청춘의 기백, 능숙한 조직적수완과 혁명적전개력, 높은 당적책임성과 인민의 총복다운 사업태도를 훌륭하게 겸비한 어버이수령님께 끝없이 충직한 주체형의 당일군의 전형적형상으로 그로록 인상깊고 친근하게 안겨오는것은 무엇때문인가.

그것은 무엇보다도 주인공의 모든 성격적특질들이 잊혀지지 않는 회화적화폭과 인상적인 장면으로 부각되어있기때문이다.

오봉리에서 밤떼를 타고 고깔봉으로 내려오는 장면만이라도 보자. 얼마나 인상깊고 랑만적이며 누구든지 한번 들어서보고싶게 그려진 생활화폭인가!

또 그속에서 벌어지는 주인공들의 대화는 마진욱의 성격적아름다움, 우리 시대 인간들의 고상한 정신세계를 얼마나 생동하게 보여주고있는것인가!

마진욱이와 같은 지휘관과 함께라면 며칠밤을 지새우며 가고 또 가도 지침이나 피로와 같은것은 있을상싶지 않은 밤이다. 미분보이라이야기, 백화점건설장 장면, 충성의 백살구나무이야기와 서영찬과 프락또르운전수처녀와의 사랑에 대한 이야기 등 얼핏보면 작품이 기본줄거리와는 관계없는듯싶은 생활까지도 포함하여 이 작품에 그려진 세부들은 그 모두가 고깔봉다락발건설장이라는 하나의 커다

란 생활화폭을 이루면서 주인공의 성격을 생동하게 부각하는데 효과적으로 복무하고있는것이다.

그리하여 이러한 생활세부들로 이루어진 생동한 생활화폭속에서 독자들은 항일유격대의 지휘관들 처럼 이신작칙의 모범으로 모든 문제를 풀어나가며 군중속에 깊이 들어가 그들과 생사고락을 같이 하면서 모든 사업을 통이 크게 대담하게 밀고나가 당정책을 제때에 철저히 관철해나가는 참다운 지휘성원-당일군의 모습을 인상깊이 새길수 있는것이다.

오늘 단편소설들이 들끓는 현실을 다양한 각도에서 풍부하게 반영하면서 어떤 주제, 어떤 생활을 취급하든지 그를 통하여 도달하여야 할 사상에술적과업은 사람들을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충실성으로 교양하는데 이바지하는것이다.

때문에 주체형의 새 인간들의 전형적성격창조에서 언제나 중심적이며 기초적인 문제는 어버이수령님에 대한 끝없는 충실성의 예술적구현이다.

따라서 생활과 성격의 탐구와 전형화에서의 독창성과 개성화문제도 어디까지나 본질에 있어서 어버

이수령님에 대한 충실성의 예술적구현에서의 독창성이며 개성화로 되여야 한다.

만약 이것을 놓치고 성격적특질을 살린다고 하여 이러저러한 인간들의 《특이한》 성격적측면이나 비본질적인 생활을 흥미본위로 그린다면 그러한 인간과 생활은 심장과 중추가 없는 인간, 아무런 가치도 없는 생활로밖에 되지 못할것이다.

그러므로 작가들은 주체형의 새 인간들의 성격을 창조함에 있어서 그들의 심장속깊이에 철석같은 신념과 의지로 뿌리박은 어버이수령님에 대한 불타는 충성심을 진실하고 생동하게 밝혀내는데 창작적사색을 집중하여야 하며 작품의 형상구성안에 들어오는 모든 인간관계와 성격들, 생활세부들까지 다 여기에 복종되도록 하여야 한다.

바로 여기에 다양한 생활과 각이한 인간성격들을 그리면서도 모든 작품들이 한결같이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위업에 힘있게 이바지할수 있는 길이 있는것이다. 작가들은 들끓는 생활에 더 깊이 침투하여 생활의 요구를 민감하게 반영한 전투적인 단편소설을 다양하고 특색있게 창작해야 할것이다.

## 서정시에서의 생활반영과 서정성문제

리동수

실생활을 생동하게 깊이있게 형상하는것은 공산주의 새 인간학의 근본요구로 된다.

문학예술작품에서 성격은 생활을 떠나서 창조될수 없으며 생활 그자체도 산인간의 생동한 모습과 떨어져서 개성화될수 없다.

시작품에 창조되는 서정적주인공의 형상도 항상 실생활속에서 환기된 시인의 구체적인 체험을 대변하며 생활속에서 우리나라 구체적인 사상감정을 일반화한것이다.

이로부터 시인의 구체적인 체험을 표현하는 서정시에서 생활반영문제는 절박한 문제로 제기되게 된다.

서정시창작에서 생활을 옹계 형상하는 문제가 절실한 요구로 나서는것은 그것이 시의 생명으로 되는 서정성을 더욱 풍부하게 하기때문이다.

생활속에서 우리나라와 밀착되지 못한 서정토로는 사람들의 심리에 감성적으로 침투할수 없으며 대중의 심금을 울릴수 없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오늘 우리 나라의 벅찬 현실은 그대로가 시이며 노래입니다.》**

생활이 그대로 시이며 노래인 우리 나라에서는 가는곳마다 시적감흥을 불러일으키는 감동적인 사실들과 아름다운 이야기들로 가득차있다.

서정시는 공감을 불러일으키는 생활속에 뿌리를 박고 생활이 불러일으키는 시적감흥, 정서적충동을 노래할 때야만 서정성을 풍부히 살릴수 있으며 사람들의 심금을 울리는 좋은 작품으로 될수 있다.

생활속에 발을 붙이지 못한 서정시는 기필코 추상성을 면치 못하며 생활과 밀착되지 못한 서정토로는 개념적인 구호나 무미건조한 해설로 될수밖에 없다.

서정시에 생활을 옹계 반영해야 또한 몇줄안되는 시줄속에 시대정신을 구현하며 생활의 본질을 옹계 표현할수 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노래가 인민들의 사랑을 받으려면 또한 인민들의 생활과 감정을 옹계 반영하여야 합니다. ... 생활을 떠난 노래는 아무런 가치도 없습니다.》**

현실에 튼튼히 발을 붙이고 인민들의 생활을 생동하고 깊이있게 파고들어야 깊은 사상성을 가진 가치있는 작품으로 될수 있다.

인민들의 사랑속에 널리 보급되고있는 시가들은 례외없이 실생활을 생동하고 심도있게 반영하고있다.

저녁부터 오르던 안개마저 힘겨워 중턱에서 잠들고만다는 험한 문경고개를 단숨에 넘으며 미체침략자를 때려눕힌 인민군전사들의 영웅성, 노을길은 전호속에서 멀리 고향의 하늘가로 올라가는 노래소



리에 멀적의 신념을 담아보내던 전사들의 모습, 썸 물터에서 처녀들과 식사당번군인사이에 오가는 두터운 정을 인상깊게 노래한 전시가요들이 그토록 사람들의 심금을 울리며 오래도록 불리우고있는 것도 바로 생동한 생활이 불러일으킨 풍부하고 심오한 시적체험을 감동깊게 노래하고있기때문이다.

그러므로 서정시에서는 무엇보다먼저 생활이 불러일으킨 시적체험을 솔직하고 진실하게 형상해야 한다.

서정적주인공의 체험을 꾸밈없이 진실하게 노래해야 작품에 형성된 생활을 생활 그대로 받아들일수 있으며 그 형상이 추구하는 교양적내용을 손색없이 전달할수 있다.

서정적주인공의 체험은 생활의 본질을 일반화한 전형적인것으로 되어야 한다. 시인의 체험이 생활의 본질과 필연적인것에 기초할 때야만 시의 사상정서는 비로소 진실성을 띠게 되며 시적공감을 불러일으키게 된다.

생활을 꾸며내거나 분식하여서는 대중의 심금을 불러일으키는 서정시를 창작할수 없다.

생활반영의 진실성은 깊은 사색과 탐구를 거쳐 이루어지는것이다.

시 《조국의 산과 들길을 지나며》(김정곤), 《들길우에 날은 저무는데》(김석주)는 시인의 체험과 생활반영의 진실성에 대한 요구를 예술적으로 옮겨 해결했다고 생각한다.

두 작품은 모두다 생활에 대한 시인의 진지한 탐구와 시적일반화의 심도를 보여주고있는바 첫시는 조국의 산과 들길 그 어느곳에 가거나 인민을 위해 바치시는 어버이수령님의 크나큰 사랑과 심려의 손길을 뜨겁게 느끼는 감동적인 체험을 노래하고있다면 둘째시는 어느 한 평범한 농민영웅의 희생을 두고 가슴아파하시며 생전에 못다준 사랑에 심려를 금치 못하시는 수령님의 한량없는 은정에 대하여 노래하고있다.

한 시는 생활속에서 이미 축적된 시인의 내부적인 체험을 개방하는 형식으로 노래되었다면 다른 시는 구체적인 생활세부를 바탕에 깔고 생활이 불러일으킨 감동적인 체험을 토로하고있다.

두 시는 다 생동한 생활에 토대하여 생활이 환기시킨 시적충격, 시적감흥을 토로하고있다.

아아! 설레이는 이삭의 바다 한끝 저기  
수령님 웃자락이 들바람에 날리고있어라  
웃으며 재잘거리는 아이들의 어깨너머  
어버이수령님 자애로우신 미소 하늘 가득히 넘치  
여라

조국의 산과 들 그 어디  
둘러봐도 걸어봐도 그 사랑 끝간데 없는 강산이  
여  
오! 마음은

어버이수령님 사랑의 한복판으로  
삼가 들어서노라

어버이수령님의 자애로운 미소가 하늘가득 넘치고 어디를 보나 그이의 사랑 끝간데 없는 강산에서 크나큰 사랑의 한복판에 삼가 들어서는 시인의 절절한 체험이야말로 얼마나 진실하고 생활적인가!

이 땅의 인민들모두가 가장 소중히 그리고 절절하게 체험하고있는것을 꾸밈없이 진실그대로 노래한 여기에 이 시의 사상예술적성과가 담보되고있다. 생활을 다양하고 깊이있게 형상하는것은 또한 시에서 생활을 옮겨 반영할수 있게 하는 중요한 문제의 하나로 된다.

생활을 진실하게 보여주는것과 함께 다양하고 깊이있게 형상할데 대한 실천적요구는 서정시에 반영되는 생활자체가 무한히 다양하고 풍부하고 심오하다는데로부터 출발하고있다.

오늘의 우리 생활은 지난날의 생활보다 더욱 복잡하고 풍부하며 심오하다. 그렇기때문에 시에서 생활현실을 옮겨 반영하기 위하여서는 깊이 사색하고 탐구해야 하며 많은 연구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생활을 깊이있게 형상해야 철학적사색을 불러일으키는 심오한 내용을 담을수 있으며 단조롭고 도식적인 틀을 없앨수 있다.

서정시는 생활을 화폭처럼 그려보이며 사건줄거리를 가지고 전개되는 소설과는 달리 생활에 대한 시인의 체험과 현실속에서 환기된 시적감흥을 주정으로 토로하는 짧은 운문형식인것만큼 함축된 시줄속에 풍부하고 심오한 사상을 담아야 하며 깊은 사색속에 많은것을 련상케 하고 여운을 남기게 해야 한다.

그러자면 생활을 진실하게 파고들어가 탐구적인 안목으로 남들이 미처 생각할수 없었거나 발견할수 없었던 진리를 찾아낼줄 알아야 한다.

그리하여 마디마디 표현들을 새겨올고싶고 구절구절마다 뜻이 깊고 새로운 철학적인 시를 창조해야 한다.

런시 《이 땅이 나의 조국이다》(동기춘), 《위대하신 품에 안겨》(김정곤) 등은 생활을 깊이 파고들어가 심오하고 풍부한 형상속에서 사람들을 사색의 세계에로 이끌며 끝없이 감동시키는 특색있는 작품들이다.

두 시는 다같이 지난날 농민들이 수난의 력사를 살며 간직하여온 땅에 대하여 노래하고있다. 그러나 생활에 대한 시인의 탐구적인 자세와 철학적사색에 안받침된 심오하고 풍부한 시적형상으로 하여 서로 독창적인 경지를 개척하고있다.

런시 《이 땅이 나의 조국이다》중 첫시에서 시인은 땅에 대한 심오한 서정적체험을 이렇게 토로하고있다.

땅은 흙이었다  
이 세상이 생기고 사람들이 보금자리 틀던  
저 먼 시대에  
땅은 단순한 흙이었다

노예주를 위해 노예가 땅을 가꾸고  
량반의 령지에서 천민이 낱알을 바칠 때  
땅은 흙이 아니라 계급의 징표였다

.....

**김일성**장군님께서  
-토지는 발갈이하는 농민에게!  
이 혁명의 강령을  
조국해방의 붉은 기폭에 쓰시었을 때  
땅은 흙이 아니었다  
땅은 계급혁명의 근본문제였다

투사들이 불을 비비며 눈물적신 땅이어  
가슴에 품고 싸운 한줌의 흙이어  
아아, 그 땅은  
흙이 아니었다  
그것은 조국이였다

흘러간 시절을 추억속에 돌이키며 인간의 참된  
삶을 련상시키는 시

사색과 탐구로 이어진 심장의 호흡이 뜨겁게 느껴지는 이 한편의 시에서 우리는 시인의 자세, 시대 앞에 지닌 시인의 사명에 대하여 다시한번 생각하게 된다.

땅을 두고 모대긴 시인의 고심과 응심깊은 사색의 바다를 헤쳐간 자취가 력력한 시다.

먼 태고로부터 단순히 삶의 도구로 인간의 노동 앞에 무력하던 땅이 바로 그것때문에 눈뭇감은 머슴에게는 목숨으로, 계급의 징표로 되어 사람들을 괴롭히던 땅, 민족의 태양이시며 전설적영웅이신 **김일성**장군님께서 조국해방의 기폭우에 토지혁명의 강령을 쓰시었을 때 땅은 비로소 자주성을 위한 인간의 참된 삶을 추동하는 계급혁명의 근본문제로, 그것을 위해 목숨바친 항일투사들의 숭고한 영상에 어린 흙이 아닌 조국으로 숭엄히 돌보인것이다.

이렇듯 시는 땅과 인간의 운명에 관한 철학을 생활속에서 우리나라고 생활이 불러일으킨 체험속에 심오히 형상함으로써 사람들로 하여금 시대와 혁명에 대하여, 조국과 삶에 대하여 깊이 생각하게 한다.

런시 《위대한신 품에 안겨》도 생활은 다양한 시점에서 깊이있게 노래한 성과작의 하나이다.

위대한 수령님의 크나큰 품에 안겨 땅의 주인으로 자기 운명의 주인으로 자라난 한 농민녀성의 성장문제를 각이한 시적계기와 정황속에서 노래한 이 시는 서정적주인공의 운명을 다양한 생활세부에 의탁하여 심오하고 생동한 정서로 노래하고있다.

첫시 《땅을 분여받은 날 밤에》는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주신 땅을 분여받은 날 밤 꿈아닌 현실 앞에 격동을 누를길 없어 땅을 안고 모대기는 서정적주인공의 감동깊은 체험을 모진 목숨과 이어진

땅과 결부시켜 절절하게 노래하였다.

그러자 그 언제인가  
첫애기를 재우던 그 밤처럼  
마음은 속삭이고 노래부르고싶어  
어머니는 가슴을 헤쳐  
대지에 젖을 물리고싶고...

아, 땅이 어머니를 안았는가  
어머니가 땅을 품었는가  
땅도 어머니도 위대한 품에 안겨  
말도 없이 깊어가는 밤

어머니는 잠이 드셨네  
서른살에 처음 발편잠을 자고있네  
고요한 밤  
별많은 밤...

땅을 두고 자리를 뜰수 없어 땅을 안고 누워 별 많은 한밤을 난생처음 발편잠을 자는 천대받던 어머니, 시인은 땅에 대한 이 나라 녀인들의 갈망, 이 나라 모든 농민들의 필생의 념원과 끝없는 격동을 자유분방한 시적환상과 섬세한 감각으로 표현하고 있다.

시에 반영되는 생활은 심오해야 할뿐아니라 다양하고 비반복적이어야 한다.

이것이 저것 같고 저것이 이것 같은 특징이 없고 단조로운 시는 감동을 줄수 없으며 독창적으로 탐구되지 못한 류형적인 시는 아무런 인상도 남길수 없다.

시 《아버이 심려를 덜어드리는 처녀》(조빈)는 혁명의 전위, 3대혁명소조원의 형상을 특색있게 노래한 우수한 작품의 하나이다.

시인은 첫머리부터 대학생-소조원처녀의 형상을 아침안개 밀려간 사라진 발에 쫓는 해와 마주 웃으며 언제나 이렇게 새벽을 맞는 미더운 모습과 결부시키고있다.

흙 묻은 손을 등뒤로 감추던 그 마음을  
친히 알아주시며 따뜻이 너의 손을 잡으신 수령님-

행복에 겨워 목메여 흐느끼는  
너의 어깨를 다정히 쓰다듬어주실 때  
아, 잡으시고 농을줄 모르시는 아버지 손등에  
끝내 떨구고야 만 감격의 눈물이  
오늘도 네 가슴에 뜨겁다.

해불처럼 타오르는 너의 심장과  
흐르는 개울처럼 언제나 맑은 웃음으로  
사람들을 부르며 함께 가고 이끌어주는...  
농장원들속에 언제나 네가 설 자리 찾을줄 아는  
수령님 사랑속에 태어난 새세대여

아버 이수령님의 다함없는 사랑속에 자라나 그의 심려를 덜어드리는데서 삶의 최고보람을 찾는 서정적주인공의 형상은 소조원의 체험을 자신의 체험으로 받아안은데서만 창조될수 있다고 본다.

우에서 본바와 같이 서정시에서 생활을 옹계 형상하는것은 시의 생명인 서정성을 풍부히 살리기 위한 절박한 창작실천적요구로 나서고있다.

생동하고 구체적인 생활을 바탕으로 깔고 생활속에서 우러나온 시적감흥을 진실하고 깊이있게 노래할

때야만 시에서 추상성과 산문화를 없애고 대중의 심금을 울리는 참신하고 풍부한 정서를 창조할수 있다.

생활을 선도하며 이끄는 기수인 시인들은 대중교양의 힘있는 무기이며 전투적기발인 서정시의 고유한 특성을 살려 우리의 서정시가 근로자들속에 널리 보급되고 사랑받는 사상정신적량식으로 옮겨지도록 해야 한다.

## 혁명소설에 대한 반향

위대한 수령님의 주체적문예사상과 뜨거운 배려에 의하여 오늘 우리 나라에서는 문학예술의 다른 분야와 마찬가지로 소설문학도 새로운 양양의 길에 들어섰다.

문학을 앞세워 발전시킬데 대한 방침을 받들고 특히 최근 몇해동안에 장, 중편 소설문학이 급격히 발전되었다.

혁명소설들은 지금 각계각층 근로자들속에서 광범한 반향을 불러일으키면서 그들의 실희투쟁의 힘있는 무기로 되고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수한 예술작품으로써 인민의 사랑을 받지 않는것이 없으며 또한 인민의 이해와 평가를 받지 못한다면 우수한 예술작품이 될수 없는것입니다.》

《예술의 진정한 평론가는 인민들입니다. 인민들보다 더 총명한 평론가는 없습니다. 인민들의

판정에 합격한 작품은 좋은 작품이고 인민들의 판정에 합격하지 못한 작품은 좋지 못한 작품이라고 보아야 합니다.》

광범한 독자들의 의견을 적극 받아들이는것은 우리 문학의 건전하게 발전시키기 위한 확고한 담보로 된다.

《조선문학》편집부는 이번호부터 혁명소설에 대한 독자들의 반향을 추려서 매호 실으려 한다. 이를 통하여 독자들은 문학작품을 정확하고 깊이있게 감수, 파악하는데 도움을 받을수 있을것이고 작가들도 창작에서 건설적인 도움을 많이 받을수 있을것이라 생각한다.

광범한 독자들과 론설원, 작가들이 이에 적극 참가하여주기를 바란다.

《조선문학》편집부

## 혁명의 길, 충성의 한길을 드림없이 걸겠습니다

-장편소설 《충성의 한길에서》(제 1부)를 읽고-

송정인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습니다.

《우리는 앞으로도 간고한 투쟁을 예견해야 합니다. 우리는 혁명선렬들의 영웅적투쟁을 본받아야 하며 그들의 투쟁정신을 계승발전시켜야 합니다.》

장편소설 《충성의 한길에서》(제1부)는 주인공 김정순이 위대한 수령님께 끝없이 충직한 불요불굴의 공산주의혁명투사로 성장하는 과정을 생동하게 형상함으로써 주체형의 혁명가가 되기 위하여서는 어떻게 살고 배우며 일해야 하는가를 감명깊게 보여주고있습니다.

저는 이 소설을 끝없는 감격과 흥분으로 가슴볼

때우며 눈물속에, 기쁨속에 읽었습니다.

주인공 김정순은 어린 나이에 얼마나 피눈물나는 생활체험을 겪게 됩니까.

나라 없는 민족의 설움을 안고 착취사회의 맨 밑바닥에서 온갖 불행과 고통을 다 겪으며 주인공은 일찍부터 계급의식을 키워나갑니다.

낮에는 지주놈의 연자방아를 돌리고 저녁에는 산에 올라가 나물을 캐고 밤에는 야학에 다니며 부지런히 일했지만 정순의 집, 회령집의 살림은 퍼지지 않습니다.

회령집의 온 식구가 일년내내 손끝이 닳고 등뼈가 휘도록 아글타글 일했으나 살림이 나날이 퍼폐해지는 까닭을 두고 주인공은 깊이 생각하군합니다.

한동네에서 소꿉장난을 같이 하며 자라나던 분임이가 빗값으로 지주놈에게 팔려가다싶이 시집을 가게 되었을 때 어찌할바를 모르고 《아, 나같은게 뭇하러 세상에 태여났을가!...》 하고 안타까이 물어보는 말을 두고 주인공은 녀성들의 불행한 운명에 대하여 깊이 생각합니다.

배고파 우는 조카애를 등에 업고 동네방네 젖동냥을 다니면서, 삐걱삐걱 울리는 연자방아를 힘겹게 돌리면서 주인공은 너무도 불공평하고 모순에 찬 세상을 못견디게 증오하고 가슴에 서리고 맺힌 원한을 풀기 위해 원수를 반대하여 싸워야 하겠다고 굳게 마음다집니다.

이처럼 일찍부터 혁명의 길을 찾는 주인공에게 위대한 수령님의 따사로운 해발이 비치여집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일제에 의하여 사랑하는 어머니와 형님 등 혈육을 빼앗기고 정든 회령집마저 모두 불태워버려져 의지가 지 없게 된 주인공을 유격근거지로 불러주십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주인공으로 하여금 잃어버린 어머니의 품보다 더 크고 따뜻한 혁명의 품, 유격근거지에서 혁명을 배우게 하시고 공청조직에 들어 청년전위로 투쟁하도록 크나큰 정치적인임과 배려를 베풀어주십니다.

간악한 원수 왜놈들에게 무참히 쓰러지고 쫓기우며 갈곳이 어디인가고 통곡하는 불쌍한 인민들을 이끄시여 혁명의 근거지를 꾸려주시고 참된 삶의 길, 투쟁의 길을 밝혀주시는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장군님! 망국의 설음 안고 피바다에 잠겼던 우리 민족에게 조국해방의 서광과 미래를 안겨주신 아버지수령님!

실로 아버지수령님은 이 세상에 오직 한분밖에 안계시는 재생의 은인이시고 마음의 기둥이시며 투쟁의 스승이시고 모든 행복과 영광의 미래이시였습니다.

하기에 공청조직에 들 때에 주인공은 《나같은게 이 세상에 무엇하러 태여났을가?》고 하던 분임이의 눈물겨운 질문에 대하여, 그때에는 미처 대답해 주지 못했던 엄숙하고 심각한 이 문제에 대하여 다 음과 같이 생각합니다.

(또다시 분임이의 개탄소리가 귀에 울린다. 그럼 나는 왜 태여났는가? 나는 지금 뭇뭇이 말할수 있다. 나는 온 세상을 향하여 소리높이 말할수 있다.

한평생 우리의 장군님, 우리의 **김일성**장군님을 모시고 혁명을 하기 위해 태여났다고!)

위대한 수령님을 끝없이 경모하며 아버지수령님께 영원히 충성 다하는것은 피어린 생활로정을 통하여 주인공의 가슴속에 뿌리박힌 신념이었습니다.

민족의 태양이신 수령님을 우러러 흠모하고 존경하며 오직 위대한 수령님만을 믿고 따르는 주인공의 마음은 언제나 솟구치는 샘물마냥 다함이 없고 맑고 깨끗하였습니다.

주인공은 위대한 태양 **김일성**장군님께 충성다하는것을 조선혁명의 승리를 위한 첫째가는 의무로 최대의 행복으로 여기고 언제 어디서나 장군님을 위해 살고 장군님의 뜻대로 싸워나갑니다.

나는 이 소설을 읽으면서 주인공의 영상이 눈앞에 안겨와 자신의 생활을 뜨거운 마음으로 돌이켜 보았습니다.

지금도 내 눈앞에는 쓰러지면 다시 일어나 왜놈 《토벌대》에 의하여 불타버린 아동단학교를 일떠세우는 주인공의 숭고한 모습이 떠오릅니다.

애들을 키우는 일도 우리 혁명의 미래를 키우는 훌륭한 혁명투쟁이라고 하신 위대한 수령님의 말씀을 깊이 명심하고 적들의 침공이 계속되는 것처럼 어려운 속에서도 아이들을 혁명의 계승자로 교육교양하는 주인공!

일제놈들의 《토벌》에 의하여 피바다, 불바다가 된 가운데서 엄마, 아빠를 잃고 불에 그슬려 널려있는 고아들을 유격근거지의 품, 뜨거운 혁명적사랑의 품에 품어주고 키워나가는 사업은 말그대로 하나의 전투였으며 숭고한 혁명사업이었습니다.

아버지수령님에 대한 주인공의 끝없는 충실성은 덕산동지구 혁명조직에서의 사업에서도 생동하게 표현되었습니다.

참으로 혈전만리 불바다, 피바다를 헤치며 주인공이 걸은 혁명의 길은 위대한 수령님께 모든것을 다 바쳐오신 충성의 한길이었습니다.

장편소설 《충성의 한길에서》(제1부)는 주인공 김정순이 걸은 혁명의 길, 충성의 한길에 남긴 불멸의 이야기들을 인상깊게 수록하고있는것으로 하여 우리 독자들의 가슴을 끝없는 충성의 정열로 불태워주고있습니다.

저는 이 작품의 주인공을 따라배워 언제나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끝없는 충성의 한길을 드립없이 걷고 또 걸겠다는것을 굳게 결의다집니다.

# 《락동강》에 비친 위대한 수령님께 충직한 인민군전사들의 형상

- 중편소설 《락동강》을 읽고 -

박영래

《락동강! 락동강! 아, 력사의 강아, 기뻐해다오, 반겨해다오. 광광 소리치며 웃고 울어다오, 락동강아!》

이것은 엄단웅작 중편소설 《락동강》의 한 구절이다.

락동강! 이름만 불러도 얼마나 깊은 생각을 불러내며 추억의 돛을 펼쳐주는것인가!

나는 요즘 중편소설 《락동강》을 두번째로 다시 읽었다.

준엄한 조국해방전쟁시기 위대한 수령님께 충성을 다한 인민군전사들의 영웅적투쟁모습을 다시한번 감명깊게 보고싶어서였다.

전투가방을 메고 허리에는 권총을 찬 젊은 군관. 그리 크지도 않은 보기좋은 보통기, 벌에 그슬린 거무스름한 얼굴에 남달리 큼직한 두눈이 조용히 빛나고있는 젊은 군관, 그는 사단군의소에서 퇴원하여 한 구분대 지휘관으로 임명받고 가는 최경민이다.

소설의 주인공 최경민은 이렇게 독자들과 첫 상봉을 하게 된다.

나는 이 소설을 읽으며 사랑스러운 주인공 최경민을 비롯한 그의 전우들과 함께 포연탄우속을 뚫고 피암동 120리 강행군으로부터 락동강도하전투에 이르기까지 기쁨과 슬픔을 함께 나누며 보람찬 전투의 길을 걷게 된다.

나는 이 소설을 읽으면서 작품에 형성된 인물들은 비단 주인공뿐아니라 모두가 위대한 수령님께 끝없이 충직한 주체형의 혁명가들이며 그들모두는 영웅이라는 생각을 금할수 없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작가, 예술가들은 인민속에서 나온 수많은 우리 영웅들의 형상을 묘사하여야 하겠습니까. 그런데 영웅의 형상을 그린다고 해서 신기한 사실, 전설적인 비범한 인간을 찾으려고 애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창작태도로써는 우리의 영웅들을 옳게 묘사할수 없습니다. 우리의 영웅들은 어제날의 로동자, 농민, 사무원, 학생들이며 그들의 자제들입니다. 그들의 풍부한 감정과 인간성, 그들이 가지고있는 고상한 사상과 신념, 그들의 꾸밈없는 소박한 행동 그대로를 묘사한다면 오늘날의 우리 공화국영웅들이 될것입니다.》

소설의 주인공들은 어제날의 평범한 로동자, 농민, 사무원, 학생들이며 그들의 자제들이다.

작가는 그들의 형상을 신기한 사실, 비범한 인간으로가 아니라 생활속에서 우러나오는 숭고한 감정과 꾸밈새없는 소박한 행동 그대로를 그리고있다.

혁명가란 그 어떤 특별한 인물인것이 아니며 누구나 나 결심하고 혁명의 길에 나서서 우리 당의 주체사상으로 무장하고 당정책관철을 위하여 이악하게 투쟁한다면 훌륭한 혁명가로 될수 있다.

중편소설 《락동강》이 독자들을 당정책관철에 힘있게 고무하는 생활의 참된 교과서로 되는것도 오늘 우리 인민의 생활과 투쟁에서 의의있는 주제를 취급하고있다는데만 있는것이 아니라 평범한 사람들의 세계관형성과정을 진실하게 그리고있기 때문이다.

광산에서 일하다가 군대에 입대하여 대대를 책임진 지휘관으로 자라난 최경민은 우리 사회에서는 어디에 가나 만날수 있는 보통청년이다. 소설은 이러한 그가 준엄한 전쟁의 불길속에서 어떻게 단련되며 위대한 수령님께 대한 충성심을 어떻게 쌓아가는가를 참으로 생동하게 보여주고있다.

뿐만아니라 충성심이 낳은 영웅적행동의 바탕에 깔려있는 힘의 원천이 무엇인가를 깊이있게 밝혀주고있다.

락동강도하를 위하여 적들의 관심과 화력을 총집중시키면서 사단선전대로 진출해야 할 어려운 전투임무-이것은 실로 전 대대가 희생을 각오해야 하는 것이였다.

그러나 젊은 대대장 최경민은 이 어려운 전투임무앞에서 주저하지 않는다.

그것은 후방을 멀리 떨어져 락동강전선에 나와있는 부대와 연합부대들의 작은 하나의 움직임과 전투원들의 생활의 구석구석에 이르기까지 세심히 보살펴주시는 위대한 수령님의 뜨거운 사랑이 있기때문이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락동강정면도하를 맡은 사단선전대의 지휘관은 누구이며 그들을 엄호할 포의 화력은 얼마나 되는가를 구체적으로 알아보고 귀중한 우리 전사들을 포의 충분한 지원도 없이 적들의 포화속에다 내맡길수 없다고 하시면서 사포군을 동원하여 전적으로 그들을 지원하도록 해주신다. 크나큰 사랑을 주시고 크나큰 믿음을 안겨주신다.

이것은 전사들에게 락동강도하작전도 바로 위대한 수령님의 령활한 지휘밑에 진행된다는 크나큰 감격과 함께 그이께서 주신 영예로운 임무를 집행한다는 긍지와 영예감으로 가슴벅차게 하는것이다.

소설은 이처럼 소박하고 평범한 보통 사람들이 어버이수령님께 충성을 바쳐가는 길에서 영웅적위훈을 세울수 있는 힘의 원천이 어디에 뿌리를 두고 있으며 수령님의 참된 전사-인민군용사들의 끝없이 아름답고 숭고한 정신적품모가 어떻게 형성되었는가를 진실하게 보여주고있다.

소설을 읽을수록 인물들의 성격적특징의 섬세한 부분까지도 깊이 알게 되고 그들과 더욱 친숙하여진다.

최경민의 형상을 놓고도 그렇게 말할수 있다. 그는 위대한 수령님의 탁월한 전략전술적방침을 높이 받들고 그 어떤 불리한 전투상황속에서도 어버이수령님의 교시를 자로 하여 사고하고 행동하며 그의 명령을 무조건 끝까지 관철해나가는 책임성있고 지혜로우며 항상 자신에게 높은 요구성을 제기하고 강의한 의지를 키워나가는 군사지휘관이다.

대대에 도착하였을 때 숙영을 주민지역에 정한 군사부대대장의 군사규범상 어긋난 처리를 바로잡는것이라든가 피암동으로부터 시간당 10키로메터의 높은 속도로 진행되는 강행군과정에 불의에 나타난 적들의 총소리를 예민하게 판단하는것, 그리고 지도작업을 통해서만 낮익힌 초행길을 손금처럼 꿰뚫고 확신성있게 대오를 이끌어가는것, 302고지 탈환전투에서 적들이 좌측으로 우회하고있을 때 그것은 놈들이 아군을 포위하기 위한것이 아니라 얻어맞고 나오는 패잔병이라는것을 적들의 물결을 통하여 기민하게 판단하는것과 같은것은 소설에서 주인공 최경민의 군사지휘관으로서의 성격적특질을 드러내 보여주는 좋은 국면들이다.

뿐만아니라 부임인사를 나누고 구분대 실정을 료해하는 지휘관들의 모임에서 회의시간을 3분 어기고 수업을 깎지 않고 복장정돈을 잘하지 않은것을 비판하는 장면같은것은 최경민이 깐깐하고 엄격한 군사지휘관임을 잘 보여주고있다.

그런가 하면 그는련대의 처녀준의 명회앞에서는 무슨 말을 할지 갈피를 잡지 못하며 얼굴까지 붉어지는 순박한 청년이다.

그러나 그는 군사임무에 대한 높은 책임성과 요구성, 깐깐하고 빈틈없이 일을 할줄 아는 좋은점이 있는 반면에 사람들의 심장을 틀어잡고 그들의 심

장을 능숙하게 움직일줄 아는 그런 능력이 부족하다.

최경민의 이러한 성격적약점을 능숙한 당사업, 사람과의 사업으로 뒤받침해주고있는 김성태의 형상은 우리에게 또 얼마나 큰 믿음을 안겨주는것인가.

김성태-그는 최경민에게 있어서 없어서는 안될 사람이다.

전쟁이 일기전에는 사회에서 당사업을 하던 김성태는 비록 군인생활이 몸에 배지는 않았지만 로숙하게 전사대중을 위대한 수령님의 명령지시를 무조건 끝까지 관철하도록 불러일으킬줄 아는 당일군이며 어머니다운 아량과 너그러움으로 전사들을 교양할줄 아는 능숙한 정치일군이다. 때문에 지휘관들과 전사들은 그가 잠시 없어도 것처럼 섭섭해하고 기다리며 만나면 서슴없이 자기들의 속생각을 허물없이 터놓고싶어하는것이다.

강행군으로 지칠대로 지친 전사들속에서 군의소를 뒤흔쳐나온 강호범과 리종환이 되돌아가게 된 생활적인 이야기로부터 초급선동원인 라명훈을 움직여 시공격전투때의 형무소해방이야기를 꺼내여 피로한 행군대오를 떠밀던것이며 구분대장들을 힘겨운 진지굴설작업에 조직동원하던 모습은 오래도록 잊혀지지 않는다.

련대장 오현무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조직령도하신 항일무장투쟁에 참가한 혁명투사이다.

위대한 수령님을 모시고 피어린 15성상의 간고한 투쟁을 통하며 찾은 조국에 개신한 그에게 부과된 새 전투과업은 수령님께서 새롭게 밝혀주신 혁명로선과 방침을 높이 받들고 인민무력건설을 위한 군사후비육성사업이었다.

오현무가 최경민을 알게 된것은 어느 초모대원집결소에서였다.

광산에서 일하다가 군대에 입대하겠다고 때를 쓰며 따라왔다는 더벅머리총각. 그를 바라보는 오현무에게는 **김일성**장군님께서 이끄시는 항일유격대에 보내달라고 씨름까지 해가며 조직책임자에게 줄라대던 지난날의 자신을 돌이켜보게 되였다.

그때로부터 그는 최경민을 위대한 수령님께 무한히 충직한 혁명전사로 항일의 혁명정신을 이어받은 새형의 군사지휘관으로 키우기에 힘쓴다.

소설에서 오현무련대장은 위대한 수령님식사업방법을 체현하고 그것을 구현하여 전사대중을 더욱 힘있는 존재로 키우고 그들의 자주성과 창조성을

적극 발양시킬뿐만아니라 인간적 미와 향기가 풍기는 다감한 성격의 소유자로 형상되고있다.

이것은 주로 대대장 최경민과의 관계를 통하여 보여주고있다.

전사들의 심정을 리해못하는 최경민에게 강호범 분대장의 보따리에 대한 깊은 사연을 절절하게 이야기하는 장면과 부상처로 오는 모진 아픔을 남몰래 이겨나가는 그를 엄하게 꾸짖으며 자신의 앞에서 치료를 받도록 하는 장면은 혁명적동지애에서 우러나오는 그의 고상한 인간적 미와 향기를 느끼게 하는 좋은 실례들이다.

오현무의 이러한 형상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창건하시고 그이에 의하여 교양육성된 우리 인민군대는

모든 사람들이 수령님의 혁명사상으로 무장하고 서로 믿고 진심으로 사랑하는 동지적사랑에 기초하고있음으로 하여 그 힘은 불패이라는것을 확증하여 주고있다.

강호범-그는 매우 의의있는 인물로 그려지고있다.

그의 어린시절은 이 나라 령남벌의 어머니젓줄기 칠백리 락동강의 푸른 물결과 함께 흘러갔다. 10년가까운 세월을 고스란히 민대감의 집에서 머슴을 살다가 그놈의 눈에 거슬려 아버지와 어머니 그리고 인연깊은 이쁜이와 생리별을 하고 탄광으로 끌려갔던 그였다. 징용으로 끌려갔던 북반부의 어느 탄광마을에서 8.15해방을 그는 맞았다.

해방을 맞은 그는 **김일성**장군님의 품속에서 처음으로 행복이 무엇이며 삶의 보람이 어떤것인가를 알게 되었다. 때문에 전쟁이 일자 태를 묻고 자라난 고향땅을 해방하고 그리운 사람들을 아버지수령님의 품속에서 행복을 노래하며 살게 할 그날을 앞당기기 위하여 성스러운 전투대오에 용약 떨쳐나섰고 고향땅과 사랑하는 사람들이 그리울수록 원수들에 대한 적개심이 그만큼 컸다.

그때문에 병원규률을 위반해가면서 기를 써가며 전투서열에 서게 되는것이다.

그랬던 그가 고향해방전투를 앞두고 정찰임무수행중에 원수들에게 무참히 학살당하는 아버지를 보게 되자 치솟는 격분을 참지 못하고 모험을 하게 된다.

혁명적단련이 부족한 그로서 어찌 그렇지 않았겠는가. 군복 입은 의젓한 모습을 아버지에게 보여드리고싶었던 그 소박한 녀원마저도 산산이 부서졌으

니...

작품에서 강호범은 자주 결함을 범하는 인물로 그려지고있다. 이것은 소설의 주인공 최경민의 성격발전에 훌륭히 복종되고있다.

김명희의 형상은 마치 포연속에서도 자기의 아름다운 모습을 잃지 않고 굳세게 피여있는 목란꽃과도 같이 그윽하게 안겨온다.

학교시절에는 푸른 희망을 안고 학교마당을 걸으며 미래의 너자수영선수가 되는 꿈을 길렀으리라.

그러나 준엄한 전쟁은 이 소박한 처녀를 전사들의 생명을 위해서는 물속에도 서슴없이 뛰어들고 치료규률을 위반하는데 대해서는 조금도 양보없는 엄격한 처녀로 되게 하였다.

이처럼 소설의 몇몇 주요인물들만 보아도 그들이 자라난 경위와 태어난 고향이 다르고 성격과 취미 또한 다르다.

그러나 전쟁의 포화속에 몸을 잠근 그들의 가슴은 하나의 지향으로 잇닿아있다.

위대한 수령님의 부르심을 높이 받들고 원수 미제놈들의 침해로부터 사회주의조국을 수호하며 빼앗겼던 조국의 절반땅을 도로 찾는 성스러운 싸움의 길에서 수령님께 충성을 다하는것이다.

작품에 그려진 주인공들은 서로 보충해주고 제약하면서 충성의 한길로 힘있게 걸어가고있다.

락동강! 락동강도하전투가 있는지도 어느덧 스물 하고도 일곱해란 세월이 흘렀다.

그동안 락동강도하전투에 참가하였던 전사들의 귀밑머리에는 흰서리가 내렸다.

혁명의 세대는 바뀌어 포연속에서 첫 울음을 터뜨린 새세대들이 사회의 주인으로 등장하였다.

세대는 바뀌었으나 혁명의 과녁은 변하지 않았다.

소설은 어제날 락동강전투에 참가하였던 로병사들에게는 끝없는 혁명적 자부심과 긍지를 안겨주고 혁명의 새세대들에게는 위대한 수령님의 부르심을 받들고 충성의 길에서 영웅적위훈을 세운 로병사들처럼 원수와의 싸움에서 용맹할 불타는 결의를 다지게 한다.

참으로 소설은 날로 우심해지고있는 미제침략자들의 새 전쟁 도발책동으로 하여 어느때보다도 긴장한 정세하에서 3대혁명 기치높이 사회주의대건설전투에 떨쳐나선 우리들의 사업과 생활에 커다란 고무적힘을 안겨주고있다.

# 새세대의 매혹적인 성격형상

-장편소설 《백양나무》를 읽고-

김창숙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었습니다.

《소설을 읽는것은 사람들의 생활에서, 특히 희망과 포부가 크고 감정이 풍부한 젊은 청년들의 생활에서 뿔래야 뿔수 없는 중요한 문화사업입니다.》

저는 혁명소설을 읽을 때마다 정다운 길동무들을 사귀곤하는것이 기쁩니다.

이러한 길동무들가운데는 장편소설 《백양나무》(하정희)의 주인공들도 들어있습니다.

장편소설 《백양나무》에서 주인공 김진구의 형상과 함께 새세대들의 성격형상은 참으로 매혹적입니다.

소설에 밝혀져있는바와 같이 오늘의 현실은 어버이수령님의 위대한 주체사상과 그 구현인 당의 روشن과 정책으로 튼튼히 무장하고 높은 기술과 완강한 체력을 가진 사람을 요구합니다. 이 세 요소중에서 어느 한 요소라도 갖추지 못한 사람은 사회발전의 현실적요구에 따라갈 능력이 없기때문에 자연히 도태되는것입니다.

소설에서는 이 세 요소가 다 겸비된 사람으로서 조성갑, 리경애, 박희수, 홍정옥, 조영숙 등 새세대들의 형상을 보여주고있습니다.

어버이수령님의 사랑의 품속에서 태어나고 자라난 그들의 생활은 얼마나 혁명적인 량만으로 가득차있습니까.

그들은 오직 위대한 수령님의 주체사상 이외에는 그 어떤 다른 사상도 모르는 새세대의 주인공들이것입니다.

어버이수령님의 교시를 무조건 끝까지 관철하기 위하여 우선 당대표자회에서 하신 어버이수령님의 보고를 수십번씩 읽고 통달하며 자신의 뼈와 살로 만드는 리경애, 가열로자동화의 꿈을 안고 현장으로 달려온 오목눈을 가진 아름다운 열공학기사 홍정옥, 그의 혁명동지 박희수기사, 로동자들의 건강을 위해 작업장을 위생문화적으로 꾸리며 《산업의학》, 《산업위생》을 연구하는 조영숙,

이들의 투쟁은 얼마나 즐기차며 또 열정적입니까.

때문에 그들의 사랑은 달 뜨는 강변이나 이슬맺힌 공원에서가 아니라 어버이수령님의 교시를 관철

하기 위한 벽찬 로동속에서 싹트고 꽃피여 우리들에게 더욱더 아름다운 매력을 주는것입니다.

그들의 노력으로 두대치기는 성공되고 가열로는 자동화되며 로동자들은 위생문화적으로 꾸려진 작업장에서 상쾌한 기분으로 일하게 되는것입니다.

그리하여 이 작업반은 교대당 516톤의 강피를 뽑아내고 어버이수령님께 충성의 보고를 올리는것입니다.

여기서 나는 김진구작업반장의 심장의 부르짖음을 다시금 읽었습니다.

...**김일성**원수님의 현명한 령도가 있고 우리 인민의 불보다도 뜨거운 충성심이 있을 때 우리는 필승불패입니다. 두려울것이 없으며 못해낼 일이 없습니다. **김일성**원수님의 현명한 령도를 높이 받들고 전진하는 우리 인민의 그이에 대한 무한한 충성심이야말로 우리 사회발전의 강력한 추동력입니다. ...

그렇습니다. 저는 이 소설을 통하여 사회주의사회에서는 자본주의사회와는 달리 경제규모가 커질수록 생산력을 발전시킬수 있는 가능성이 더욱 커지며 생산력발전을 추동하는 가장 결정적인 요인은 사람들의 혁명적열의라고 하신 경애하는 수령님의 독창적인 혁명사상의 정당성을 다시금 똑똑히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는 무한한 흥분속에서 소설의 마지막장을 번지였습니다.

최고인민회의 제4기 제1차회의에 참가했다가 어버이수령님을 만나뵈고 또다시 그이께 60만톤을 맹세하고 돌아오는 김진구반장의 마음은 한없이 설레입니다.

해방전에는 학교문앞에도 가보지 못했던 15살의 나 어린 막로동군 소년이 이제는 최고인민회의의 대원으로 성장하는것입니다.

이와 같은 주인공을 비롯한 새세대들의 성장과정은 로동계급에게 돌려주시는 어버이수령님의 사랑과 배려의 력사이며 그 과정은 또한 어버이수령님에 대한 충성의 력사이기도 합니다.

제가 이 소설을 읽은지는 퍼그나 오래 되었지만 이 작품의 주인공을 비롯한 새세대들의 성격형상은 계속 저의 생활을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끝없는 충성의 한길로 이끌어주는 참다운 길동무로 되고있습니다.



# 인민군전사-영웅들의 불보다 뜨거운 충성심을 감명깊게 배웠습니다

-중편소설 《메아리》를 읽고-

김영심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었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미제와 그 앞잡이들을 반대하며 조국을 통일하기 위하여 적극 투쟁하도록 하려면 조국해방전쟁때 우리 인민이 미제를 반대하여 용감히 싸운 영웅적인 투쟁모습들을 단편이나 중편, 장편으로 잘 그려내야 합니다. 전쟁때 우리 인민들이 투쟁한 모습을 소설로 잘 써놓으면 우리 근로자들과 청년들이 재미있게 읽을 것이며 미제를 반대하여 어떻게 싸워야 하는가 하는것도 많이 배우게 될것입니다.》

저는 위대한 조국해방전쟁의 가렬한 불길속에서 위대한 수령님을 위하여, 당과 혁명,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청춘도 생명도 기꺼이 바쳐싸운 인민군용사들의 투쟁을 형상한 중편소설 《메아리》(정성훈)를 깊은 감동속에서 읽었습니다.

특히 주인공 강철의 형상은 저에게 깊은 인상을 주었습니다.

일제의 발굽아래 짓밟혀 신음하던 우리 인민에게 해방의 기쁨을 주시고 배움의 길을 마련해주신 아버지수령님의 그 사랑, 그 은덕에 충성으로 보답할 굳은 결의밑에 학문탐구에 청춘의 모든 지혜와 재능을 다바치며 마침내 아버지수령님께서 심려하시는 문제에 대한 연구에 달라붙는 강철, 오랜 기계공업의 역사를 가진 나라들에서도 완성을 보지 못한 문제라고 주저하는 사람들이 없지 않았지만 남들이 못했다고 우리도 못한다는 법이야 없지 않는가고 스승에게 하는 절절한 그의 호소는 학습을 기본혁명과업으로 하는 우리 대학생들에게 참으로 많은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해방된 새 조선의 기계공학자로서 위대한 수령 **김일성** 장군님의 가르치심만을 믿고 따르는 드립없는 그의 신념, 이것은 스승과 제자, 학우들간에 오가는 길지 않은 몇마디의 말들을 통해서도 잘 알수 있습니다.

자기 삶의 의의와 보람은 **김일성** 장군님께 충성다하는 오직 한길에만 있으며 그 길에서 자신의 행복도 기쁨도 생의 목표도 찾아야 한다는 불보다 더 뜨거운 충성심을 간직하고있는 강철의 고상한 품성은 저를 깊은 감동세계에로 이끌어줍니다. 여기에 자기의 한생을 총화하며 그가 마지막으로 남긴 일기의 한토막이 있습니다.

《적후에 들어가게 된다. ...생의 참된 보람을 아는 사람은 헛살지 않는것이다. ...혁명군대 전투원들의 삶은 얼마나 행복한가!

순간을 살아도 위대한 수령님을 위하여, 한생을 살아도 아버지수령님을 위하여 살며 싸우리라는 굳은 각오를 가지고 생활하는 우리 혁명전사들의 삶이야말로 이 세상에서 제일 보람있는 삶인것이다!》

읽으면 읽을수록 가슴을 치며 심장속깊이 파고드는 절절한 심장의 이 호소! 이러한 심장을 지닌 그 옹기에 전쟁의 그 가렬치절한 싸움의 날 걸음마다 위험이 기다리는 어려운 적후정찰으로 자진하여 떠나는것이 아니겠습니까!

함께 대학으로 떠날것을 희망하는 옛학우에게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를 남기고 적들이 살판치는 머나먼 적후으로 강철은 떠나갑니다.

소설의 폐지를 넘겨갈수록 주인공들의 아름다운 정신세계는 저를 깊은 감동속에 잠기게 하였습니다.

참된 삶, 영원한 삶이 어떤것인가를 빛나는 모범으로 보여준 강철, 이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깊이 리해하여주는 미더운 전우 은주, 하기에 그는 자기의 가장 사랑하는 전우가 이미 곁에 없음을 모르지 않는 그 순간에도 영원히 살아있을 고귀한 전우의 삶에 대하여 궁지높이 이야기하는것입니다.

깊은 감동과 흥분 속에서 강철이가 다시 전후복구건설에 투신하는 소설의 마지막장을 넘겼건만 위대한 수령님을 위한 충성의 길에서 자기의 한몸이 그대로 육탄이 되어 임무를 수행한 미더운 정찰소대장 강철의 모습은 계속 저의 눈앞에 선히 떠오르는것입니다.

가장 빛나는 영원한 삶, 그것은 바로 주인공 강철처럼 순간을 살아도 한생을 살아도 오직 위대한 수령님만을 믿고 따르며 그이를 위한 길에서 한목숨 다바쳐 싸우는것이 아니겠습니까.

하기에 저는 불보다 더 뜨거운 그의 충성심을 몸으로 느끼며 나도 그처럼 한생을 충성으로 빛내 이리과 굳은 결의를 다지며 소설을 읽었습니다.

실로 중편소설 《메아리》는 자라나는 세세대-우리 청년학생들에게 자기의 청춘시절을 어떻게 빛내일것인가를 산모범으로 보여주며 이끌어주는 참다운 혁명의 길동무입니다.

원산제1사범대학 어문학부 국문과  
4학년 학생